

연구보고서

JILES-2019-03

제주 평생교육 도민 의식 및 인지도 향상 방안 연구

홍숙희·김민호·이소연

제주 평생교육 도민 의식 및 인지도 향상 방안 연구

책임연구자

홍 숙 희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략기획부장

공동연구자

김 민 호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학과 교수

이 소 연 | 전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소장

발 간 사

우리 제주지역은 2002년 제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비로소 학교와 민간단체, 기관 중심의 평생교육을 넘어 공공 정책으로서의 평생교육 진흥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20년의 시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회적 환경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제주지역사회 대응능력을 기능하는 지역평생교육체제의 혁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쳐 누구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 및 지역평생교육체제의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평생학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제주지역의 성인 평생학습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외 평생교육 참여 환경 조성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제주지역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도-진흥원-행정시 평생학습관의 공동 과제와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제주지역 평생교육 정책 실행의 성과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 결과의 사회적 환원 지표인 시민성 증진을 위한 제주지역 평생교육의 방향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반영한 사업의 운영과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요약문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평생학습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하여 도내·외 평생교육 참여 환경 조성 현황과 시민성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분석을 통해 제주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인식 확대방안을 모색하였음.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평생교육 도민의식 및 인지도 향상 방안으로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 환경 조성 및 참여 기회 확대, 더불어 시민참여교육의 활성화, 마을평생교육지원 체제 형성 등에 관한 방안을 제안하였음.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각 장별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먼저, I 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의 급속한 사회변화 등에 따른 지역평생교육체제의 혁신과 재구조화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평생학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인하고, 연구의 목적과 내용,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음

II 장에서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제주지역 평생교육의 의미와 제주 평생교육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평생교육 인프라 및 도민 참여 실태를 분석하였음. 도 단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의 수행과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제주지역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 참여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도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시간부족, 교육기관 부재, 가족부양시간 등이 전국 평균대비 높게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한편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정도는 전국 평균 대비 약 1.5점 높게 나타남으로써 평생학습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이 재확인되었음

III 장에서는 시민성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 실현, 도민의 글로벌 시민성 함양과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이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음.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평생교육이 지닌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

였는데, 사회통합이 절실한 한국의 사회 현실에 비추어 다섯 가지 유형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였음. 첫째는 학습 사상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의 제도화’ 추진, 둘째는 기술격차의 해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의 생활화’ 추진, 셋째는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추진, 넷째는 ‘사회운동’ 참여과정과 결과로 나타나는 평생학습, 다섯째는 ‘학습의 일상성’을 구현하는 평생학습 등 다섯 가지 맥락이 실제 국가의 평생학습 정책이나 민간의 평생학습 실천 등에서는 혼재되어 진행되고 있음.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평생교육의 공공성은 모든 사람의 학습권 보장, 민주적 성숙에 필요한 시민성 함양으로 도출됨. 제주 도민의 글로컬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학습자와 강사 및 평생교육 전문가,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지역 기반 조직들의 네트워킹, 학습문화 형성의 장애요인을 동시에 해소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FGI를 통해 검토함.

IV장에서는 평생학습권 보장 및 시민성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하였음.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권 보장 사례로 서울시 동네 배움터,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부천시 학습 반디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음. 이어 근거리 평생학습 공간 확보 및 확대에 대해 경기도의 우리동네 학습공간, 부천시 퇴근학습길, 안산시 길거리학습관, 고양시 평생학습카페 사례를 검토하였음. 또 시민성 증진과 시민 참여교육 활성화는 광명시 ‘공공성 함양 프로젝트’, 성남시 ‘찾아가는 공익성 시민교육’, 은평구 ‘은평시민대학’, 수원시 ‘유투공’과 시민기획단 나침반 기획강좌, 부천시 ‘학습반디36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도봉구 ‘일상의 민주주의와 시민적 학습’ 사례를 검토하였음. 더불어 지자체와 대학 협업 사례로 서울시와 성공회대의 ‘협치와 시민’, 시민단체 참여연대 사례로 ‘누구나 쉽게! 나라예산 감시학교’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V장에서는 제주의민 평생학습 참여 인식 확대방안을 전문가FGI를 통해 분석하였음. 전문가 심층면담은 제주의민의 평생학습 참여 인식 확대 방안, 제주 평생학습 인지도 향상 과제 도출, 도민의 시민성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글로컬 시민의 주체적 삶을 실천하는 시민참여교육을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하였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시민참여교육의 유형을 확인하고, 마을주민의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시한 방안은 첫째, 걸어서 갈 수 있는 학습공간 확보, 둘째, 학습자가 편리한 시간에 교육 프로그램 제공, 셋째, 마을주민은 학습활동에 집중하고 예산 집행은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임. 이어 마을 기반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전략은 첫

째, 마을 주민을 시민참여교육의 주체로 세우기, 둘째, 마을 역사·현안 과제·학습동아리 활동 등을 시민참여교육의 내용으로 삼기, 셋째, 일반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공공적 성격 담아내기, 넷째, 시민참여교육 방법 및 평가의 개선, 다섯째, 평생교육 사업 운영 방식의 내실화, 여섯째, 시민성 교육 지도자(코디네이터) 양성, 일곱째, 시민참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제시되었음

Ⅵ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평생교육 도민의식 및 인지도 향상 방안으로 제주지역 평생교육 정책의 강점 개발 및 확산노력, 제주지역 마을단위 교육지원사업 연계·협력 활성화,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 지원, 제주지역 공공 학습지원체계 등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이를 토대로 제주 평생학습 참여 환경 조성 및 참여기회 확대와 시민성 증진을 위한 시민참여교육의 활성화, 마을평생교육지원 체제 형성, 민·관·학 거버너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 이러한 방안들은 앞으로 제주지역 평생교육 정책 실행의 성과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시민성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운영 및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Ⅶ장에서는 I ~ Ⅵ장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향후 제주평생교육 도민 의식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제주 평생학습 참여환경 조성 및 참여기회 확대 등 제주 평생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목 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의 필요성	3
나. 연구의 목적	4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의 내용	4
다. 연구의 방법	6
II. 제주 평생학습 참여환경 및 현황 분석	9
1. 제주 평생교육 정책 현황 분석	11
가. 사회환경 변화와 제주지역 평생교육의 의미	11
나. 제주 평생교육 정책 추진 현황	12
2. 제주 평생교육 인프라 및 도민 참여 실태	14
가. 제주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현황	14
나. 제주 평생학습 참여 실태 분석	19
III. 시민성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25
1. 평생교육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 실현	27
가. 사회통합이 절실한 한국의 사회 현실	27
나. 한국 사회에서 평생교육이 추구해 온 사회적 가치	28
다. 한국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평생교육의 공공성	33
2. 도민의 글로컬 시민성 함양과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	35
가. 글로컬 시민의 탄생 경로	35
나. 글로컬 시민의 개념적 조건	37
다. 글로컬 시민 형성의 장애요인	38

IV. 평생학습권 보장 및 시민성 증진 사례 탐색	43
1.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권 보장 사례	45
가. 서울시 동네배움터	46
나.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50
다. 부천시 학습반디	53
라. 소결 및 시사점	57
2. 근거리 평생학습공간 확보 및 확대 사례	59
가. 경기도 우리동네 학습공간	59
나. 부천시 퇴근학습길	60
다. 안산시 길거리학습관	63
라. 고양시 평생학습카페	65
마. 소결 및 시사점	67
3. 시민성 증진과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사례	69
가. 광명시 ‘공공성 함양 프로젝트’	69
나. 성남시 ‘찾아가는 공익성 시민교육’	70
다. 은평구 ‘은평시민대학’	72
라. 수원시 ‘유투공’과 시민기획단 나침반 기획강좌	74
마. 부천시 ‘학습반디36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75
바. 도봉구 ‘일상의 민주주의와 시민적 학습’	76
사. 지자체와 대학 협업사례 ‘서울시와 성공회대: 협치와 시민’	78
아. 시민단체 참여연대 사례 ‘누구나 쉽게! 나라예산 감시학교’	79
자. 소결 및 시사점	79
V. 제주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인식 확대방안 모색	83
1. 제주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인식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85
가. 조사 개요	85
2. 글로컬 시민의 주체적 삶을 실천하는 시민참여교육	87
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시민참여교육	87

나. 마을주민의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87
라. 마을 기반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전략	89
Ⅵ. 제주평생교육 도민의식 및 인지도 향상 방안	97
1. 기본방향	99
가. 제주지역 평생교육 정책의 강점 개발 및 확산노력 고려	99
나. 제주지역 마을단위 교육지원사업 간의 연계·협력 활성화	100
다.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 지원	100
라. 제주지역 공공 학습지원체계 마련 중심의 정책 강화	101
2. 제주 평생학습 참여환경 조성 및 참여기회 확대	102
가. 제주 평생학습 참여환경 조성	102
나. 제주의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103
3. 시민성 증진을 위한 시민참여교육의 활성화	105
4. 마을평생교육지원 체제 형성과 민·관·학 거버넌스의 활성화	106
Ⅶ. 결론	109
1. 연구결과와 요약	111
2. 정책적 시사점	113
참고문헌	116

표 목 차

〈표 II-1〉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사업 실적	14
〈표 II-2〉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현황	15
〈표 II-3〉 제주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운영 현황	17
〈표 II-4〉 제주지역 기관 유형별 프로그램 평균 수강 인원	17
〈표 II-5〉 2016년 제주지역 행복학습센터 운영 현황	18
〈표 II-6〉 2018년 제주시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운영 현황	18
〈표 II-7〉 2018~9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마을배움터’ 운영현황	19
〈표 II-8〉 2017년도 제주지역 평생학습 참여 실태 조사 대상	19
〈표 II-9〉 2017, 2018년도 제주지역 평생학습 참여율	20
〈표 II-10〉 2017, 2018년도 제주지역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별 평균	23
 〈표 III-1〉 글로컬 시민의 자질	 38
 〈표 IV-1〉 2017-2018 동네배움터 추진성과	 47
〈표 IV-2〉 2017-2018 동네배움터 운영사업 시설	48
〈표 IV-3〉 이천시 평생학습조례에 규정된 주민자치학습센터 연계 조항	51
〈표 IV-4〉 부천시 학습반디 지정 및 운영 현황	54
〈표 IV-5〉 부천시 학습반디매니저의 역할	55
〈표 IV-6〉 서울시·이천시·부천시 동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 비교	57
〈표 IV-7〉 경기도 우리동네 학습공간 현황	60
〈표 IV-8〉 2018 부천시 퇴근학습길 추진실적	62
〈표 IV-9〉 2019 부천시 퇴근학습길 학습공간 현황	63
〈표 IV-10〉 2018 안산시 길거리학습관 분기별 프로그램 현황	64
〈표 IV-11〉 2018 안산시 길거리학습관 운영현황	64
〈표 IV-12〉 안산시 길거리학습관 총 예산 (2015-2018)	65
〈표 IV-13〉 2019 고양시 평생학습카페 예산	66

〈표 IV-14〉 2019 고양시 평생학습카페 운영현황	67
〈표 IV-15〉 근거리 평생학습공간공유 사례 운영 현황 비교	68
〈표 IV-16〉 광명시 프로그램 현황	70
〈표 IV-17〉 은평시민대학 프로그램 현황	72
〈표 IV-18〉 유투공 프로그램 현황	74
〈표 IV-19〉 시민기획단 나침반 프로그램 현황	75
〈표 IV-20〉 학습반디 프로그램 현황	76
〈표 IV-21〉 도봉구 시민학습 프로그램 현황	77
〈표 IV-22〉 성공회대 프로그램 현황	78
〈표 IV-23〉 감시학교 프로그램 현황	79
〈표 V-1〉 관계자 심층 면담 대상 및 일정	85
〈표 V-2〉 제주 평생교육 도민의식 및 인지도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	86
〈표 V-3〉 시민참여교육의 유형	87

그림목차

[그림 II-1] 2018년도 평생학습 전체 참여율	20
[그림 II-2] 비형식 교육 영역별 참여율	21
[그림 II-3] 비형식 학습 참여에 따른 영역별 만족도	21
[그림 II-4] 2018년도 평생학습 참여 장애 요인	22
[그림 II-5] 평생학습 참여성과	23
[그림 II-6] 평생학습 삶의 질 향상 정도	24
[그림 IV-1] 서울시 동네배움터 추진체계	46
[그림 IV-2] 동네배움터 사업 유형별 추진 내용	47
[그림 IV-3] 이천시 평생학습 전달체계	50
[그림 IV-4] 부천시 근거리 평생학습체계 및 지역평생교육과정	53
[그림 IV-5] 2018 부천시 학습반디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홍보 리플릿	56
[그림 IV-6] 36개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영역 변화(2018)	56
[그림 IV-7] 부천시 우리동네 학습공간과 퇴근학습길 홍보지	61
[그림 IV-8] 안산시 길거리학습관 운영체제	64
[그림 IV-9] 고양시 평생학습카페 운영 형태	66
[그림 IV-10] 광명시 민주시민학교	70
[그림 IV-11] 성남시 시민교육 프로그램	71
[그림 IV-12] 질문하는 학교	73
[그림 IV-13] 숙의민주주의 학교	73
[그림 IV-14] 은평시민대학 포럼	73
[그림 IV-15] 도봉구 시민학습 1학기	77
[그림 IV-16] 도봉구 시민학습 2학기	77
[그림 IV-17]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 내용체계도	80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역평생교육체제 혁신 필요

-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 등의 생명주기 단축, 직업세계를 비롯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 등이 초래되면서 제주지역사회의 대응능력을 견비하는 지역평생교육체제의 전면적인 혁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생애주기의 변화로 인생2모작, 인생3모작시대가 등장함에 따라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누구나 학습제주평생교육 도민의식 및 인지도 향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평생교육체제의 재구조화 필요

- 한국사회의 주요 의제로 등장한 저출산 문제는 ‘학령인구의 절벽현상’에 그치지 않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이어지고 있음. 제주사회도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인구구조가 나타나고 있음. 또 ‘베이비부머세대’의 급증 현상 또한 지역사회의 과제임. 이에 따라 사회적 활력과 도민의 행복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체제 및 인프라 확충 필요
- 기존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과정 제공 중심 방식에서 달라진 제주사회의 여건을 반영한 수요 맞춤형 프로젝트 운영 중심의 접근 방식 요구됨. 이에 따라 각 평생교육 기관의 여건과 강점을 살려서 교육 대상과 영역의 차별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커짐

□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평생학습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에 의한 결과물으로써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궁극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중심의 공생적 생태계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한 도시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을 형성하고, 개발하여 공유함으로써 한 도시가 생동성과 활력성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지속성을 보장함

- 따라서 제주도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차별없는 학습환경 조성 및 지원 활성화는 제주지역 전체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의 보존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체 가치 실현의 핵심기제임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평생학습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도내·외 평생교육 참여 환경 조성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제주지역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도-진흥원-행정시 평생학습관의 공동 과제와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지역 평생교육 정책 실행의 성과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 결과의 사회적 환원 척도인 시민성 증진을 위한 제주지역 평생교육의 방향과 역할을 제고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의 운영 및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 문헌 및 통계 검토

-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보고서, 제주지역 성인의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등을 분석하여 제주지역 평생교육 수요 측정
- 국내외 유사 사례를 조사하여 누구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제주지역 평생학습추진체제의 혁신 방향을 모색함

□ 제주 평생학습 참여환경의 현황 분석

- 제주 평생교육 정책의 시행과정과 참여환경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연계하여 누구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의 방향성을 검토함
- 제주 평생교육 인프라 및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율 현황 분석을 기초로 도민 참여 수요 변화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시민성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분석

- 평생교육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국사회에서 평생교육이 추구해 온 사회적 가치를 살펴봄. 이어 한국사회에서 추구해야할 평생교육의 공공성을 학습권 보장, 시민성 함양을 중심으로 검토함
- 도민의 정체성 정립 방향을 글로컬 시민으로 규정하고, 글로컬 시민성 함양과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의 방향을 모색함

□ 평생학습권 보장 및 시민성 증진 사례 분석

-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권 보장에 대해 근거리 평생학습 전달체제 재정비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타 지역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도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역 평생학습체제 추진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함
- 또한 생활권 유희공간의 활용을 확대해온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사례를 검토하여 근거리 평생학습 공간 확보 및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을 확인함
- 시민성 증진과 시민참여교육 활성화는 민주시민교육의 생활화 사례를 지자체는 광명시, 성남시, 은평구, 수원시, 부천시, 도봉구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대학 협업 사례는 서울시와 성공회대를, 시민단체사례는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평생교육에서 시민 주도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평생교육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함

□ 제주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인식 확대 방안 분석

- 전문가 심층면담(FGI) 질문을 통해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 배치현황의 적절성 여부와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우선투자 지원분야를 검토함

- 또, 제주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민 체감도 증대를 위해 우선 시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담(FGI) 질문을 거쳐 글로컬 시민 형성의 장애요인, 글로컬 시민의 주체적 삶을 실천하는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제주평생교육 도민의식 및 인지도 향상 방안 제안

- 제주 평생학습 참여 환경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와 시민성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제고,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거리 평생학습 공간의 확보와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등을 통한 평생교육 도민 의식 및 인지도 향상 방안을 제시함

나. 연구의 방법

□ 문헌 분석

- 지역평생교육 체제의 혁신, 시민참여 활성화 관련 국내외 사례 및 문헌 조사 실시
- 시민성 증진을 위한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사례 등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방향성을 파악함
- 외국 문헌 및 홈페이지 조사 등을 통해서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지역 평생교육 혁신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 통계 분석

-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보고서(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 제주지역 성인의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보고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18),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9) 등을 활용하여 제주지역 평생교육 수요 측정 및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 현황 추정함

□ 전문가 회의

- 제주지역 평생학습 참여 환경 및 도민 참여 확대 방안, 제주 평생학습 인지도 향상 과제 도출, 도민의 시민성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평생교육 전문가 회의를 집단 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 으로 개최하였음
- 심층면담시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를 제시하여, 면담 참여 대상자들이 연구과제 전반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분석하여 자료화함

□ 분석 및 종합

- 수집된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원이 문헌분석, 관계자 심층면담에 대해 각각 기술 분석 실시
- 기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교육 도민 의식 및 인지도 향상 방안 탐색
-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헌 검토-전문가 심층면담 및 협의를 보완적 수단으로 적용하는 삼각측정법을 활용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함

II. 제주 평생학습 참여 환경 및 현황 분석

1. 제주 평생교육 정책 현황 분석
 2. 제주 평생교육 인프라 및 도민 참여 현황
-

II. 제주 평생학습 참여환경 및 현황 분석

1. 제주 평생교육 정책 현황 분석

가. 사회환경 변화와 제주지역 평생교육의 의미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사회변화와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인구 고령화 진행에 따라 새로운 삶의 의제로 평생학습이 등장하였음. 노령인구의 증가와 1인가구의 비율이 급증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인 5060세대의 급증으로 새로운 인생 기회 제공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제주도의 65세이상 노인인구가 97,194명(2019. 4월 기준)으로 도 전체인구 668,648명의 14.5%(전국의 11위), 제주도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됨. 이에 따라 노년기에 대한 평생교육의 강화 및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위한 5060세대의 전환기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업들이 등장함
-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노동시장의 급격한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재교육과 새로운 기술 훈련이 중요해지고 있음.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산업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노력을 통해 1차와 3차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의 지속 성장을 모색해야 함
- 제주지역 일자리 특성이 전국 대비 상용직 비중은 낮고 일용직과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취약한 취업구조를 지니며, 임금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고려하여, 청년·중장년·노년에 이르는 전직 준비 등을 위한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2010년 이후 순 유입인구의 증가가 2017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4% 감소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2018년에는 제주 전출인구 30,322명 가운데 제주도민은 13.0%(3,929명, 10년 이상 거주자 도민 산정)인 반면, 이주민은 87.0%(26,393명)로 조사됨(고태호, 2019). 3·40대의 비중이 높은 이주민의 지역 내 전입 및 정착유도를 위한 일자리 및 생애전환기 평생학습, 공동체 문화 이해 교육 등 다양하고 다층적인 교육 지원이 요구됨

- 따라서 제주지역의 평생교육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 속에 신뢰와 관용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과 결과를 형성함. 이로써 평생교육이 제주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도민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인차적 성장을 지원하는 도민의 역량 강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의 요체인 시민성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

나. 제주 평생교육 정책 추진 현황

□ 도 단위 평생교육 정책 도입 경과

- 제주 지역의 평생교육 정책의 도입은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인 2002년, 2003년에 현재 양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국가단위의 지원사업이 적용되면서 부터이며, 타 지역에 비해 일찍 평생교육 정책이 적용됨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2007. 12. 14)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2009. 3. 18)해 광역자치단체에서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계기 마련
- 2011년 1월 직제 개편으로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를 평생교육과로 명칭 변경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2011. 1. 1)을 통해 도 단위 평생교육 정책의 심의기구가 설치되면서 본격화됨.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체계가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단위로 구성된 여건을 반영하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2011. 8. 17)하여 행정시 평생학습관 설치 근거 등을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제1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0~2012)이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 된 후 2차 계획(2012~2017)과 수정계획(2015~2017)이 수립됨. 도 조직개편에 따라 도 단위 평생교육 담당 행정 전담 조직은 인재개발원 평생교육과에서 2014년 8월 13일에 도 본청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가 신설됨에 따라 이관되어, 본격적인 평생교육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됨

□ 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운영 현황

- 도 평생교육진흥원은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국가적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시·도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됨(지정위탁형 : 제주, 부산, 울산, 충남, 충북 / 독립형 : 경남 등 6개 시·도 선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됨

-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 담당부서인 인재개발원 평생교육과와 제주발전연구원 간의 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운영에 따른 위·수탁 협약 체결(2012. 7.18)로 평생교육진흥원 업무 개시
-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를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2년여 기간의 준비를 거쳐 국제화장학재단과 통합하여 2018년 1월에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새롭게 출범하였음. 기존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와 장학 사업을 함께 담당하는 도 출연기관으로 자리매김 되었음
- 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과 장학사업 수행을 통해 전 도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서의 기능이 부여됨. 제주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광역단위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설팅프로그램 개발·연구·조사 및 평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근래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설치·운영 지원 등의 업무 수행과 더불어 인재육성 장학사업 등을 담당하여 평생교육 결과의 지역사회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함

□ 행정시 행정 전담 조직 및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평생교육진흥사업은 광역 단위에서의 제주 전지역, 전 도민 대상의 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전개와 추진이 요구됨.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평생교육정책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중점을 두어 전개됨
- 제주시평생학습관의 주요 기능은 1시민 1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전문가 과정 및 네트워크 사업 추진, 시민외국어 및 정보화교육 등으로 구성됨. 제주시권역은 시민중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도자양성과정, 교육소외계층 및 성인·기초문해교육, 평생학습 체험수기공모대회, 제주시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함
- 서귀포시평생학습관의 주요 기능은 평생학습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개발, 평생교육기관 단체의 네트워크 사업지원, 시민대학운영,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임. 서귀포시는 여성교육지원담당을 평생학습관에 함께 두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가 평생학습팀으로 통합됨. 평생학습관에서 상시적인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시민제안 및 권역별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함.

- 한편 2019년 현재 제주시는 자치행정과 평생학습담당이 제주시평생학습관 운영 전담을 하고, 서귀포시는 평생교육지원과 평생학습담당이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운영 전담을 맡고 있음. 평생교육업무를 전담하는 평생교육사는 각 1명이 배치되어 있음

2. 제주 평생교육 인프라 및 도민 참여 실태

가. 제주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제주지역은 매년 도청 평생교육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 및 제주시, 서귀포시, 도 교육청에서 추진된 평생교육 사업 실적과 결과를 종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함
- 2018년 사업 결과, 사업수는 총 333개, 집행예산은 34,556백만원, 운영과정수는 8,674개이며, 참여연인원은 601,007명으로 집계됨

〈표 II-1〉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사업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개, 명)

구분	사업수	집행예산	운영과정수	참여연인원
I. 제주인의 성장을 위한 평생학습	96	14,937	2,552	226,004
II. 배움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제주 실현	28	1,536	1,769	28,523
III.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강화	33	2,004	237	31,990
IV. 제주 미래 가치를 높이는 평생학습	156	15,220	3,739	277,146
V. 제주 평생교육 추진 체제 및 기반 강화	20	859	377	37,344
합 계	333	34,556	8,674	601,007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2019).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p21.

- 2019년 계획에서의 사업수는 총 355개 사업, 총 47,859백만원으로 전년도 사업 결과

에 비해 증가함

□ 평생교육 기관 배치 현황

-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평생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는 595개임.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시설 43개소에 비해 다른 법령에 근거한 평생교육 시설이 552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다른 법령에 근거한 평생교육 시설은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의 기관형과 시민사회단체형, 훈련 및 연수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2〉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현황

(단위: 개소)

대분류	중분류		소재지 현황			비고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평생교육법 (43개소)	공공 평생교육시설		18	14	4	※도서관 4개소와 박물관 1개소가 도교육청 지정 평생 학습관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음. 법적 근거를 둔 기관이므로 각각 명시함.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4	4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3	1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4	2	2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5	4	1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2	1	1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1	1	—	
	지식·인력개발 형태 평생교육시설		5	5	—	
	합 계		43	34	9	
다른 법령 (552개소)	평생직업교육학원		27	22	5	
	기관형	주민자치 기관	주민자치센터	43	26	17
		문화시설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70 (-4)	41 (-2)	29 (-2)
			박물관 및 미술관	81 (-1)	38 (-1)	43
			과학관	2	1	1
			지방문화원	2	1	1
			문화의 집	3	0	3
			소계	158 (-5)	81 (-3)	77 (-2)
		아동	지역아동센터	65	40	25
		여성	여성관련센터	6	4	2
		청소년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집	51	27	24

		노인	노인대학 및 지원 기관	38	27	11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및 시설	39	28	11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1	1
		사회복지	사회복지관 및 자활센터	17	11	6
		소계		419 (-5)	245 (-3)	174 (-2)
	훈련 및 연수형	직업훈련기관		24	21	3
		연수기관		7	4	3
		소계		31	25	6
	시민 사회 단체형	비영리 민간단체		16	13	3
		시민단체		19	19	-
		교육관련 단체		3	3	-
		문화관련 단체		7	7	-
		청소년 관련 단체		3	3	-
		여성 관련 단체		5	4	1
		노인 관련 단체		3	2	1
		장애인 관련 단체		11	10	1
		환경교육 관련 단체		13	12	1
		소 계		80	73	7
		합 계			552	362
	총 계			595(100%)		

출처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2019).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실태 조사. 수정 재작성.

-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은 대체로 제주시 중심으로 66.6%의 평생교육기관 배치가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음. 서귀포시 지역 33.4%에 비해 2배 이상 배치되어 있음. 이에 비해 제주지역 읍·면·동별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이 제주시 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평생교육 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나마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 리 단위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관은 매우 미비한 상태임.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제주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운영 현황은 <표 II-3>에서와 같이 2017년 기준으로 성인기초·문해교육이 25개로 2.5%, 학력보완교육이 8개로 0.8%, 시민참여교육이 15개 1.5%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반면 문화예술교육이 552개로 5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는 인문교육이 282개로 28.1%, 직업능력향상교육이 152개로 15.1%의 순으로 운영됨

〈표 II-3〉 제주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운영 현황

구분		성인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총계	1,004개 (100%)	25개 (2.5%)	8개 (0.8%)	152개 (15.1%)	522개 (52.0%)	282개 (28.1%)	15개 (1.5%)

* 출처 : 「2017년 제주지역평생교육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17. 12)

※ 조사에 응한 198개 기관의 1개월 이상 운영 프로그램 총계

- 제주지역 기관 유형별 프로그램 평균 수강 인원은 〈표 II-4〉에서와 같이 2017년 기준으로, 여성이 55.8명으로 남성이 27.5명으로 2배 이상 참여하고 있음.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평균 수강 인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프로그램이 1회성의 대규모 인원 대상 교육 진행과 주제별 한정된 인원 대상 교육 진행 등 교육 운영 방법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음

〈표 II-4〉 제주지역 기관 유형별 프로그램 평균 수강 인원

구분	공공	문화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사회복지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	대학부설	기타	합계평균
남성	72.5	15.9	78.2	0.0	20.3	7.9	56.5	—	4.2	—	16.0	8.0	0.9	27.5
여성	128.6	25.1	73.3	13.5	20.7	26.4	135.0	—	28.7	—	12.6	3.0	39.9	55.8

* 출처 : 「2017년 제주지역평생교육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2017. 12)

□ 읍·면·동(마을단위)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

- 읍·면·동평생학습센터는 읍·면·동 행복학습센터라는 명칭으로 2013년~2015년의 시·군·구 대상 국가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시·군·구별로 거점센터를 두고 최소 3개로 본격 운영됨. 2014년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읍면동 단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당시 행복학습센터는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평생교육진흥 추진체제를 기반으로 각 추진 주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분장을 실시함. 이를 위해 국가-시도, 시도-시군구, 시군구-읍면동 등 각 운영주체 간 원활한 소통과 운영주체 간 활발한 협의활동의 발전적인 촉진제로 행복학습센터가 도입됨

- 제주지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이나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를 법률 근거로 도지사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2016년 행복학습센터운영은 거점센터 2개소(제주시·서귀포시 평생학습관), 읍면센터로 <표 II-5>와 같이 8개소를 운영함

〈표 II-5〉 2016년 제주지역 행복학습센터 운영 현황

거점 (2개소)	제주시 평생학습관 (읍·면 5개소)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읍·면 3개소)		
읍·면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대정	남원	성산
장소 (8개소)	금릉 꿈차롱 작은 도서관	봉성새별 작은 도서관	하도리 사무소	함덕 새마을 작은 도서관	저지리 사무소	대정읍 주민센터	남원1리 사무소	성산읍 주민센터

- 이후 제주시는 2017년 공모사업 종료 이후 자체 사업으로 전환 운영하였고, 서귀포시는 2017년에 5개소로 확대 운영한 후 국비지원 공모사업 종료에 따라 시민제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등으로 전환하여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사업을 종료함
- 2017년 자체사업으로 전환한 제주시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우리동네 학습나눔터’로 <표 II-6>와 같이 지정·운영함

〈표 II-6〉 2018년 제주시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운영 현황

(2018. 10. 1. 기준)

구분	시군구	지역	기관주소
1	제주시	거점센터	제주 사라봉동길 15, 제주시 평생학습관
2	제주시	한림지역(금능리)	제주 한림읍 금능2길 1, 금능리사무소
3	제주시	한림지역(금악리)	제주 한림읍 금악로1길 15, 금악포크빌리지
4	제주시	애월지역(납읍리)	제주 애월읍 납읍로2길 3, 납읍리 새마을작은도서관
5	제주시	애월지역(광령1리)	제주 애월읍 광성로 298-1, 광령1리 새마을작은도서관
6	제주시	구좌지역(송당리)	제주 구좌읍 중산간동로 2240, 송당리 당오름 도서관
7	제주시	조천지역(신촌리)	제주 조천읍 신촌서길 63, 신촌 문화의집
8	제주시	조천지역(북촌리)	제주 조천읍 일주동로 1514, 북촌리사무소
9	제주시	한경지역(고산리)	제주 한경면 고산로1길 5, 놀빛감성학교

- 2019년에는 구좌지역 송당리가 행원리로 변경되어 행원리사무소에서 운영됨
- 제주시는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운영을 위해 학습매니저 8명을 채용하여 지역에 배치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선정과 마을 자체 수강생 모집 및 강사 선정 등을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거주자 중심의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한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읍면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이 미배치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리 단위의 마을 평생학습공간 확보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주는 삶의 배움터다! 참여형 프로젝트’를 2018~9년에 추진함
- 이는 리 단위로 진흥원과 마을회가 협약을 통해 <표 II-7>과 같이 ‘마을배움터’를 마련하여 마을 주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및 도민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임.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일임. 2019년 마을배움터에 총 13개 과정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187명이 참여함

<표 II-7> 2018~9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마을배움터’ 운영현황

구분	시군구	마을배움터	위치
1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귀덕1리 마을회관
2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함덕리 마을회관
3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평대리 마을회관
4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무릉2리 마을회관
5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	위미2리 마을회관

나. 제주 평생학습 참여 실태 분석

□ 평생학습 참여 실태

- 제주지역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국가 통계조사와 연계하여 2016년부터 제주지역 통계를 별도로 조사를 실시함

<표 II-8> 2017년도 제주지역 성인평생학습 참여 실태 조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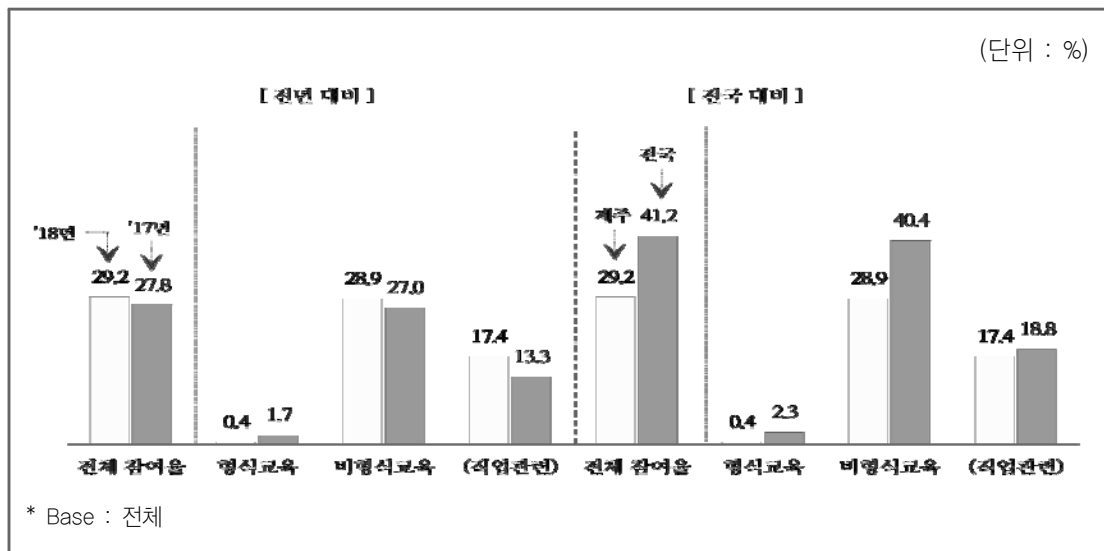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참여 표본수	740명	690명	699명	560명

※ 조사대상은 제주지역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79세 이하 도민(대면 면접조사)

- 제주지역 성인평생학습 참여율은 2017년, 2018년 모두 전국 평균에 대비하여 낮은 참여율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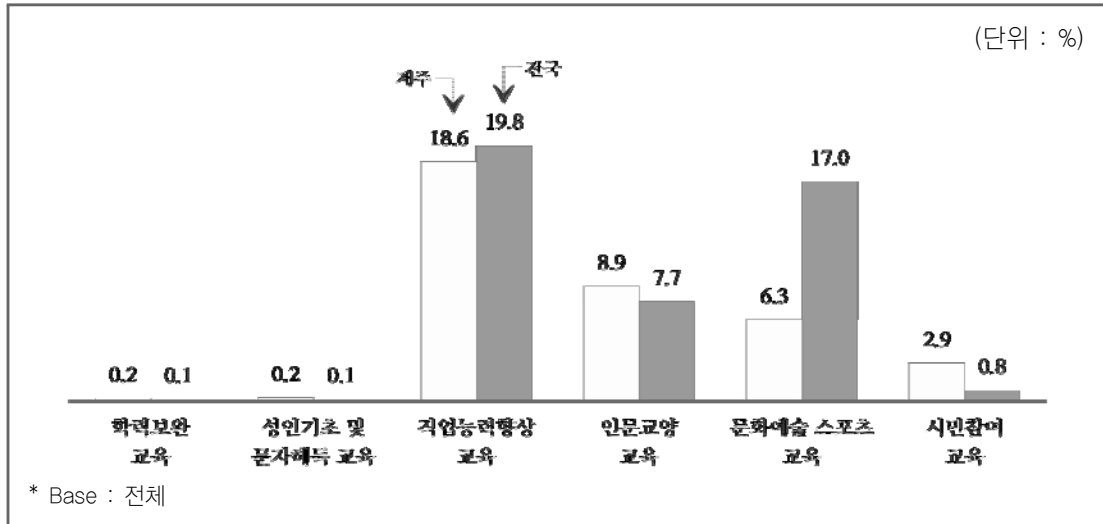
〈표 II-9〉 2017, 2018년도 제주지역 성인평생학습 참여율

구 분	2017 제주지역	2017 전국평균	2018 제주지역	2018 전국평균	비고
평생학습 전체 참여율	27.8%	34.4%	29.2%	41.2%	
전국 편차	전국대비 6.6%p 낮음		전국대비 12.0%p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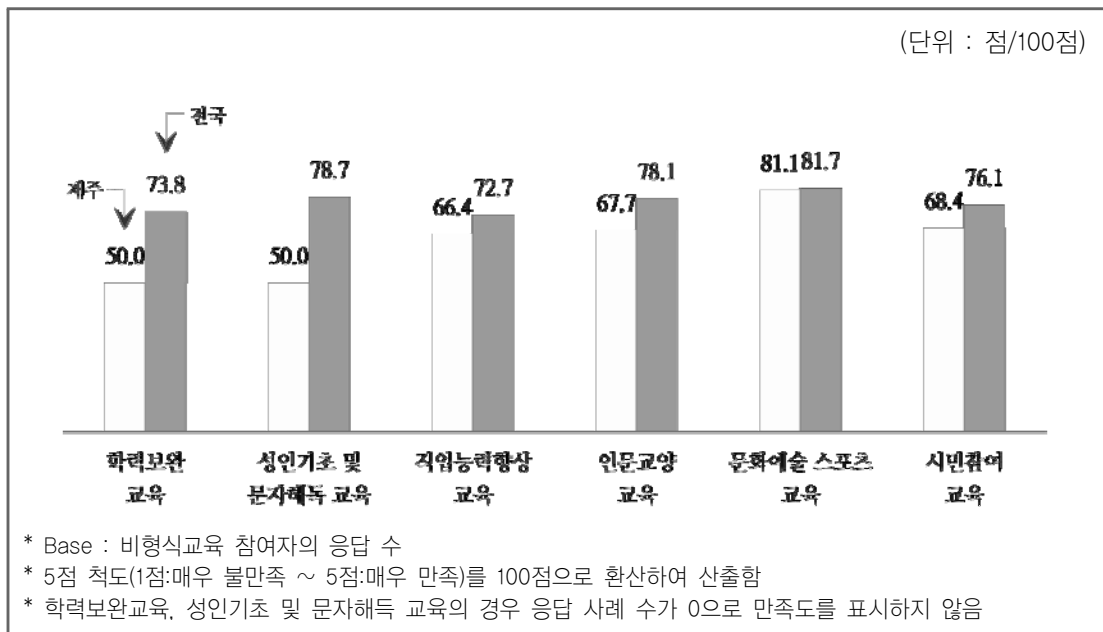
[그림 II-1] 2018년도 평생학습 전체 참여율

- 제주지역 2018년도 성인평생학습 참여율은 [그림 II-1]과 같이 29.2%로 전년도 대비 1.4%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국 평균 대비는 더 격차가 벌어짐
- 2018년 평생학습(비형식 교육) 영역별 참여율은 [그림 II-2]와 같이 직업능력향상이 교육 18.6%로 가장 높으며, 전국대비 1.2%가 낮은 수준임. 그 다음은 인문교육교육(8.9%), 문화예술스포츠 교육(6.3%), 시민참여교육(2.9%) 순으로 참여율이 나타나, 전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 II-2] 비형식 교육 영역별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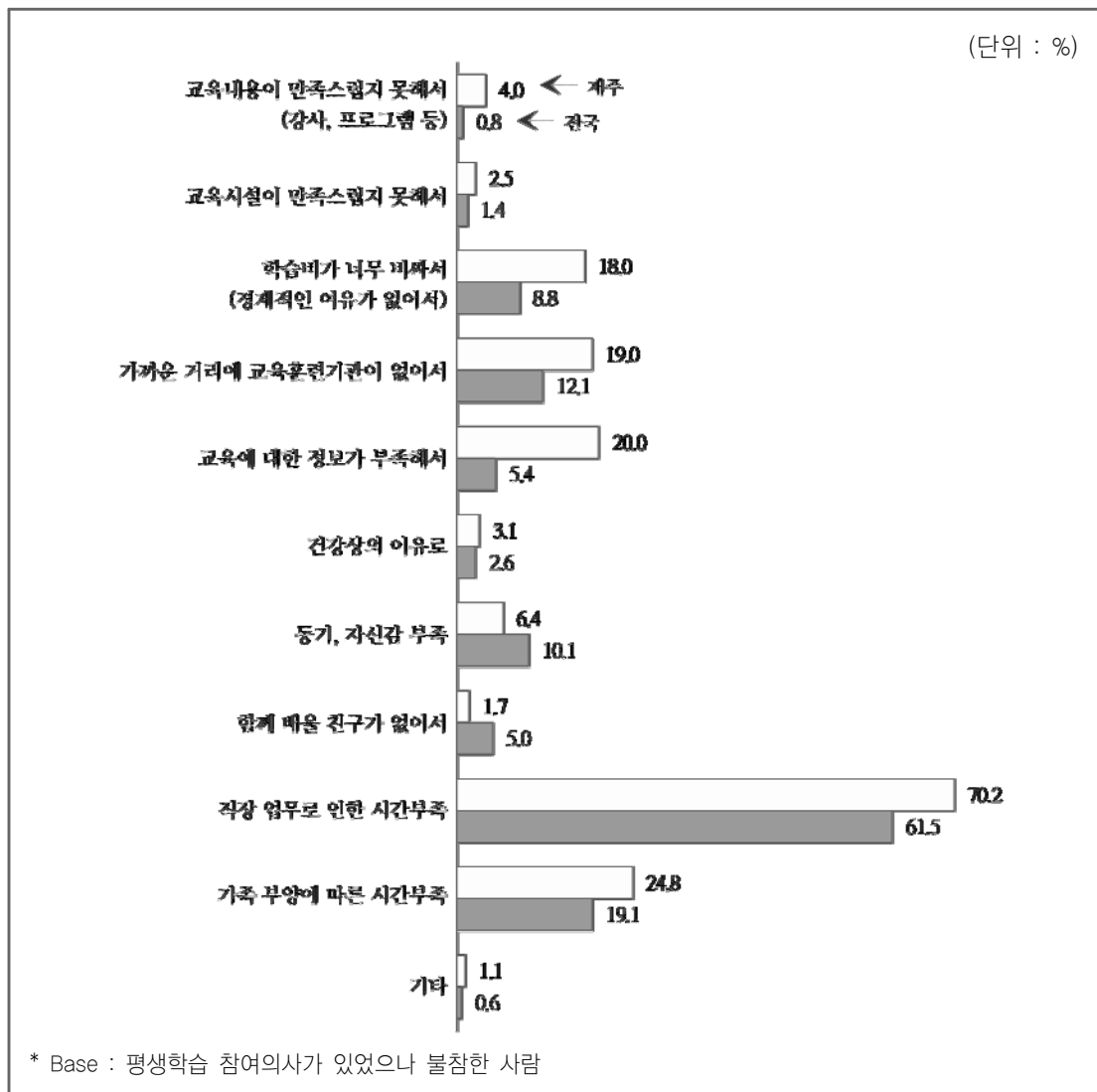
- 평생학습 참여에 따른 영역별 만족도는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이 8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민참여 교육(68.4점), 인문교양 교육(67.7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 비형식 학습 참여에 따른 영역별 만족도

□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

- 제주지역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은 [그림 II-4]와 <표 II-9>에서와 같이 2017년~2018년 기간 중 평생학습에 참여하길 희망하였으나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전국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과 비교해서도 2017년, 2018년 연속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II-4] 2018년도 평생학습 참여 장애 요인

* 출처 : 「2018년 제주지역 성인의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201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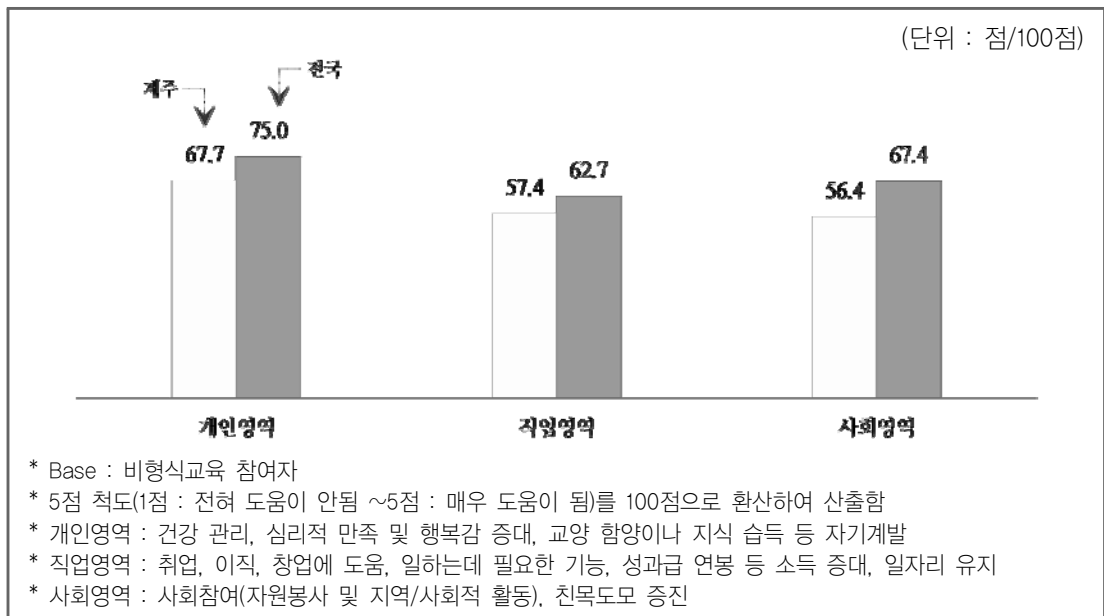
〈표 II-10〉 2017, 2018년도 제주지역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별 평균

구 분	2017 제주지역	2017 전국평균	전국 비교	2018 제주지역	2018 전국평균	전국비교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 1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70.1%	54.1%	전국대비 16%p 높음	70.2%	61.5%	전국대비 8.7%p 높음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 2 (가까운 거리의 교육훈련기관 부재)	24.2%	15.8%	전국대비 8.4%p 높음	24.8%	19.1%	전국대비 5.7%p 높음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 3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부족)	22.2%	18.4%	전국대비 3.8%p 높음	20.0%	5.4%	전국대비 14.6%p 높음

- 특이사항은 가까운 거리의 교육훈련기관이 부재하다는 요인에도 전국 평균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부족도 전국 평균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요인은 제주지역의 평생학습 참여의 장애요인인 시간부족, 교육기관 부재, 가족부양시간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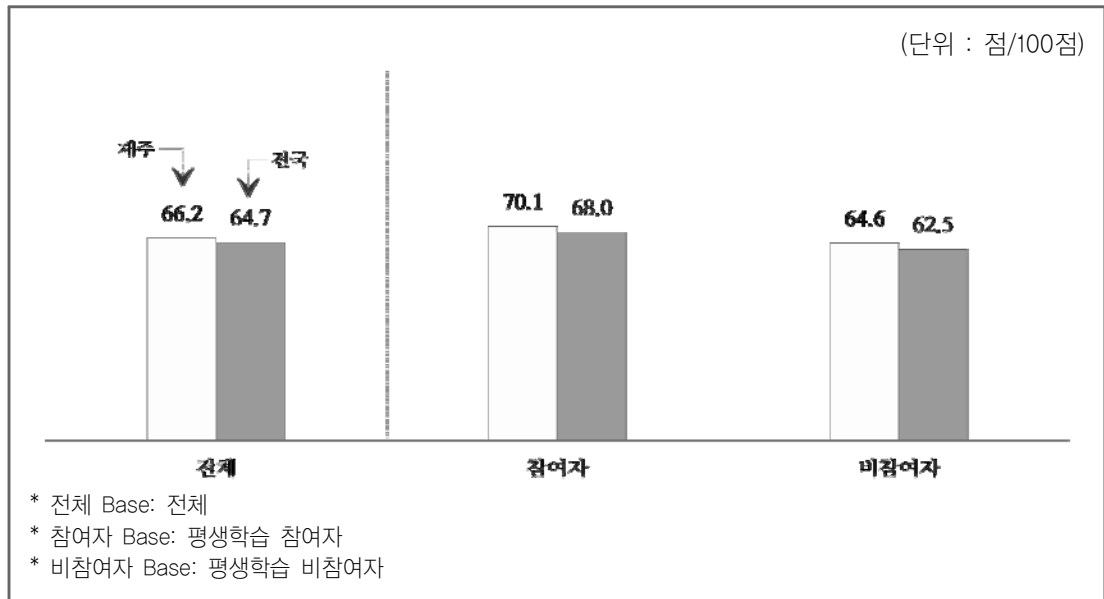
□ 평생학습 참여 성과

- 2018년도 평생학습 참여 성과는 직업영역이나 사회 영역보다 건강관리,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 교양 함양이나 지식 습득 중 자기계발 영역인 개인영역에서 가장 높았음



[그림 II-5] 평생학습 참여성과

- 2018년도 제주지역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정도에서 전체 평균은 66.2점으로 전국(64.7점) 대비 약 1.5점 높게 나타났음



[그림 II-6] 평생학습 삶의 질 향상 정도

Ⅲ. 시민성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1. 평생교육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 실현
 2. 글로벌 시민성 함양과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
-

Ⅲ. 시민성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1. 평생교육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 실현

평생교육은 개인의 잠재력 개발, 자아실현, 나아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발전에 기능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음. 이 절에서는 개인주의 가치가 득세하고 사회적 가치가 간과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평생교육이 지닌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함

가. 사회통합이 절실한 한국의 사회 현실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사회변화와 경제의 급속한 성장, 선진적 정치 체제 도입 등은 우리 사회에 놀랄만한 변화를 가져왔음.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노동의 분업이 촉진되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전문화가 심화되었으며, 국민들의 정치의식도 크게 높아졌음
- 하지만 사회분화에 따른 사회통합은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았음. 국민들이 어떤 도덕 규범을 바탕으로 하나의 집합의식을 형성하거나, 이질적이고 상호 갈등하는 집단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은 미숙한편임. 그 결과 높은 자살율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사회는 뒤르켐(Durkheim, 2019)이 말하는 ‘아노미’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공교육이 아노미를 극복할 보편사회화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어떤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지도 미지수임. 오히려 학교교육은 일리치(Illich, 2009)가 언급한 ‘가치의 제도화’라는 흐름 속에서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권력 획득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학력과 학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임. 하버마스(Habermas, 2006)가 지적한 대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뚜렷이 나타날 것임. 도구적 이성을 앞세운 경제와 정치 논리가 우리의 일상을 더욱 지배하게 될 것임. 가속화된 노동의 분업 속에서 공동선 지향의 도덕교육을 하더라도, 자본주의 생산양식 아래서 순치된 노동력을 길러낼 뿐임. 이데올로기 비판의 의식함양 교육을 하더라도, 최근 우리 사회 지도층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듯 보수주의든 진보주의든, 치열한

경쟁의 일상 안에서 도덕적 해이와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고 역사의 주체로서 시민적 책임을 다하는 삶은 더욱 찾아보기 어려울 것임

- 우리 사회는 노동의 분업과 경제성장, 정치발전에 부응한 사회의 통합(Integration der Gesellschaft)이 절실히 요구됨. 정치, 경제 차원의 체계통합, 조직체 수준의 통합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생활세계, 사회 일반 수준의 사회통합(Sozialintegration)이 필요함. 가족과 같은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론장 등의 일상 안에서 도구적 이성애에 따른 정치나 경제 논리가 아닌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근거한 생활세계를 회복하는 일, 생활세계의 탈식민화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함(Habermas, 2006)

나. 한국 사회에서 평생교육이 추구해 온 사회적 가치

이제껏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다음 다섯 가지 유형의 교육적 가치를 추구해 왔음

□ 학습 사상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의 제도화’ 추진

- 유네스코(UNESCO)는 빠른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의 위기와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1960년대 중반 평생교육을 주창했음. 그리고 1990년대에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제안했음. 우리나라의 교육학계, 특히 평생교육 관련 학자, 실천가 등은 인간, 특히 사회적 약자의 교육받을 권리(education for all) 확대의 연장선 상에서 유네스코(UNESCO)가 소개한 학습권(the right to learn) 담론 실현 차원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을 나타냈음(김신일, 2005)
- 우리나라는 1980년 헌법에 평생교육 진흥 조항을 명시한 이후, 학교 중심 교육제도에 서 소외된 이들에게 학교 밖에서라도 비형식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제도화’에 힘을 쏟았음
- 김종서 외(1982)는 한국 평생교육의 체제 정립을 위해 1) 평생교육의 목적을 삶의 질 향상, 개인과 사회에서의 달성, 전 생애에 걸친 모든 형태의 교육의 결합, 융통성·다양성·보편성 확보로 정하고, 2) 평생교육 내용은 전인적 발달과 행복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교양적 내용과 특수적 내용,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적합한 것, 계속적 학습의 가능성, 교육에 이용 가능한 수단의 총 동원을 준거로 선정하며 3) 평생교육 체제 정립을 위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관계와 연계 설정, 사회교육 시설의 설립 확충, 사회교육

교사의 자격제도 제정, 사회교육 교사 양성의 제도화, 근로자를 위한 교육기회의 확충, 대중매체의 사회교육적 활용 등을 제안했음

- 이후 한승희(2003)는 우리나라 교육을 폐쇄형 종점교육 모형에서 개방형 평생교육 모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새로운 형식’의 개방형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11대 과제를 제시했음. 1) 국민기초능력표준 (National Key Competency Standard) 구축 2) 초·중등교육 수준의 개방형 교육과정을 통한 기초능력 신장 3) 개방형 후기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의 연계 4) 성인기초 교육의 공공성 확보 5) 통합적 평생학습인증제도 정비 6) 국가수준의 평생교육 조정기능 강화 7) 지방정부의 평생학습지원의 통합체제 구축 8) 비영리민간조직(NGO)의 평생교육 지원정책 9) 학원의 평생교육 정비 10) 평생교육사 전문성 확보 11) 국가평생학습문화 촉진 등임

□ 기술격차의 해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의 생활화’ 추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과학기술 발전, 지식기반경제 도래에 따른 기술 격차(skill gap), 교육과 기술 발전의 불일치(mismatch)를 지적하며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을 주창했음. 우리 사회는 노동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경제계의 직업기술훈련 강화에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소개한 평생학습 개념을 도입, 사용하였음
- 이명박 정부는 ‘평생학습의 생활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했고,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교과부, 2008년-2012년)에서는 ‘배우는 즐거움, 일구어 가는 내일, 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한국 평생교육 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인간의 생산 역량을 제도화된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조차 끊임없이 재생산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임

□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추진

- 국제연합(UN)은 최근 기후변화 등 생태계 위기, 테러와 내전 등 폭력으로 인류 평화에 대한 위협 증가, 빈곤과 기아 등 지구촌의 양극화, 국제 이주에 따른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 보호와 다문화 사회의 도래 등 17개의 세계적 도전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이념으로 풀어나가려는 계획을 발표했다(UN, 2015)
- 우리나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임명 이후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과 유대를 크게 늘려나가면서 세계적 수준의 현안들을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조망하기 시작했다

-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연합의 이러한 조치에 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ESD) 담론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음

□ ‘사회운동’ 참여 과정과 결과로 나타나는 평생학습

- 평생학습은 무체제(unsystem), 무형식(informal)의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음. 앞의 세 관점은 어찌 보면 평생학습을 체제 모형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 있음. 학교와 학교 외 교육기관을 결합하고, 시간과 장소를 총괄하는 평생교육의 제도화를 추구한 것임. 하지만 무체제, 무형식의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요청이 전혀 없을 정도로 많은 시대에 필요한 것은 체제가 아니라 무체제”라고 봄. 또한 “교육은 모든 차원을 총망라하는 전인적 영역으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정체되고 비진화적인 어떤 체제의 한계 안에 포함되기엔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하다”고 봄(Faure, et.al., 1972: 173-178)
- 사실 오래 전부터 교육을 무체제의 관점에서, 일상 속에서 바라본 이들이 있음. 이들은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학습(social movement learning)할 수 있다고 믿었음. 로버트 오웬(Robert Owen, 1771-1858)은 보다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면서 교육의 의미를 공동체적 삶 자체 안에서 발견하고자 했음
- 또 국가가 제공하는 기존의 위로부터의 교육과정을 거부하고 노동자들 스스로 통제하는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했던 19세기 영국의 노동교육 운동 역시 그 자체가 노동자들에게 정치의식을 각성시키는 무체제, 무형식 교육의 계기가 되었음. 또 사회주의자들과 반식민주의 운동가들의 정치 투쟁, 그리고 여성운동과 신식민주의적 담론 속에서도 무체제, 무형식 교육을 찾아볼 수 있음. 알제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프란츠 파농(Frantz Fanon, 1925-1961)에 의하면,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근 일세기에 걸쳐 알제리 여성들의 베일을 벗기려 했으나 실패한 반면에, 알제리 민족해방투쟁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알제리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베일을 벗어 던졌음. 왜냐하면 식민지 해방운동에 가담한 여성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데 베일이 장애가 되었기 때문이었음. 알제리 여성들은 남성들과 나란히 투쟁에 참여하는 가운데 베일에 함축된 봉건적 남녀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음(김종철, 1981: 145-147). 이같

은 사회운동학습 담론은 억압적 지배 질서의 재생산에 대항하여 등장한 ‘피억압자의 해방’을 주창한 브라질의 파울로 프레이리(P. Freire)의 교육사상과 맥을 같이 함

- 사회운동 참여가 가져다주는 교육적 성과는 의식화 혹은 관점 전환과 같은 개인의 인지적 차원(Collins, 1995; Mezirow, 1996), 집단 정체성과 연대성 습득이라는 정의적 차원(Kilgore, 1999), 이질적 집단 간 연합이라는 사회적 차원(English & Mayo, 2012) 뿐만 아니라, 집단 내 구성원 간 존재론적 관계 형성이라는 영적 차원(Kim, 2015, Palmer, 2012)에서 찾아볼 수 있음. 파머(Palmer, 2012)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더 이상 분리되어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기’ ‘일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비전을 가지고 공적인 장으로 나아가기’ ‘차별과 보상 시스템을 변형시키기’ 등 마음(spirit)의 발전을 가져왔음을 지적함

□ ‘학습의 일상성’을 구현하는 평생학습

- 평생학습을 무체제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되 사회운동과 달리 일상의 삶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음. 이들은 하버마스(Habermas)의 주장에 바탕을 두고, 도구적 이성애 따른 정치나 경제 논리가 아닌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 생활세계를 회복하는 데 관심을 둠. 이들은 때때로 일상의 삶과 괴리된 학습권 실현, 인간의 총체적 삶과 괴리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 함양, 지속가능한 생활양식(sustainable lifestyle)을 수반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채 단지 억압적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의식화만을 강조하는 것 등은 한계가 있다고 봄
- 이들은 생활세계의 탈식민화 차원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 실현 차원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학습의 일상성’을 회복하는 평생학습을 지향함. “학습이 일상 안에 있다”는 무형식교육의 전통뿐만 아니라 “일상이 학습 안에 있다”는 경험학습, 상황학습, 문화학습뿐만 아니라 인문학 학습과 관점전환학습 등을 평생학습 안으로 포함함
- ‘학습의 일상성’ 담론은 구체적 경험이든 추상적 지식이든 일상과 학습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학습이 가능한 한 일상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교과학습’(이흥우, 1991)과 다름. 또한 ‘학습의 일상성’ 담론은 교육내용 안에 인문학을 포함해 인문학적 지식과 학습자 개인의 삶을 맞닥뜨린다는 점에서 지식과 관계없이 단지 경험, 문화, 상황 등을 중시하는 경험학습, 문화학습, 상황학습과도 구별됨(김민호, 2015)

- 아동들은 소꿉놀이 장면에서 이전에 미리 봤던 것을 선별해서 대화 내용과 상호작용을 재현하며 놀 수 있음. 이 때 아동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양한 장면에서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를 배움. 그리고 부모나 마을 사람들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아동들의 놀이를 고무함. 이처럼 학습과 교육은 아동과 부모가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가운데 발생함. 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학교교육 출현 이전에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두어 아동에게 말과 행동을 가르쳤고, 학교교육 출현 이후에도 교사와 별개로 아동들의 학습을 감독하고 일상생활의 행동방식을 가르치는 교복(敎僕, pedagogues)을 두기도 했는데 이들의 교육은 무형식적이었음
- 중세 서구사회에서는 교회의 성직자와 선교사들이 학교와 별개로 무형식적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길드(Guild) 조직에 의한 도제훈련 역시 무형식 교육이라 할 수 있음. 17세기 영국에서는 과학과 합리적 사고의 발달과 더불어 각종 토론회, 상호향상을 위한 모임 및 찻집 등이 생겨나 무형식적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각종 사회단체,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집단적으로 상호작용(group process)하면서 무형식적 교육의 효과를 얻고 있음(Jeffs & Smith, 1997)
- 이상에서 살펴본 평생학습의 다섯 맥락은 이념형(ideal-type)적 구분일 따름임. 국가의 평생학습 정책이나 민간의 평생학습 실천 등 실제 장면에서는 이 다섯 맥락 중 몇 가지가 뒤섞임. 평생교육의 제도화 정책이 사회운동의 하나인 지역주민의 학습권 확장 운동과 결합할 수 있고, 평생교육의 생활화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 역시 평생교육의 제도화 정책을 토대로 추진되기도 함. 학습의 일상성을 구현하려는 사람들 역시 평생교육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국가 정책과 갈등할 때도 없지 않겠지만 서로 간 일치를 통해 학습의 일상성을 구현하기도 함
- 경제성장과 사회 양극화, 정치발전과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라는 모순적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평생교육의 제도화, 평생학습의 생활화 정책을 추진해 왔음. 그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2018년 현재 42.8%로까지 올릴 수 있었음
-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나 성인들의 시민교육 참여는 여전히 낮은 상태임.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이나 민·관 평생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만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음. 사실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상당 부분은 국민 개개인의 교양이나 문화예술적 소양 함양에 초점을 둔 인문교육이나 문화예술교육이고, 다음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교육임. 이들 교

육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어떤 조직이나 기관을 매개로 형식(formal) 혹은 비형식적(nonformal)으로 전개되었음. 교육 참여자들이 학습활동에 참여하면서 사적인 유대와 교감을 맛보도록 도와주거나, 다양하고 이질적인 학습 참가자들이 어떤 의제를 두고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는 미흡했음

다. 한국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평생교육의 공공성

□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학습권 보장

- 무엇보다 평생교육을 사유재가 아닌 공유재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비문해자, 학교 밖 청소년, 여러 유형의 다양한 장애인, 이주민과 난민, 실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성인, 은퇴한 장년,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 등 당면한 삶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함

□ 한국 사회의 민주적 성숙에 필요한 시민성 함양

- 정치 민주화를 위한 ‘지역 시민성’ 함양 : 국민들은 정치의식 고양에 따라 대의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음. 특히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정착 과정에서 지역주민 사이에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산업화와 탈산업화 사회를 살아가며 이웃과 정서적 유대를 맺으려는 욕구가 늘고 있음.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민 모임이 생겨났음. 지역사회에 살면서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지역 시민성이 요청됨
- 경제 민주화를 위한 ‘포용적 시민성’ ‘노동권’ 함양 : 세계화는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양극화를 초래했음. 자유시장경제의 확대 과정 속에서 빈곤한 아동, 여성, 노인,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국제이주와 난민 등이 증가했음¹⁾. 또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가 늘었음.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종과 민족, 언어와 종교, 문화가 다른 이들, 특히 가난하고 위기에 처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긴급한 과제가 주어졌음. 연대성 교육이 요구됨.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 및 역량 강화를 위

1) 유엔의 세계이주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세계 인구의 3.3%에 해당하는 약 2억4천4백만 명의 해외 이주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국제 이주민들의 증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만 해도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2.6% 또는 2억3천만 명이 국제 이주를 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2010년에는 국제이주가 예상보다 증가하여 2050년의 예상치를 약 4억5천만 명으로 잡았다. 또 201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4천30만 명의 내부 난민(IDP)과 2천2백50만 명의 난민이 있었다.(UN, 2018).

해 노동교육, 경제교육 등도 요청됨

- **사회 민주화를 위한 ‘통합적 시민성’ 추구** : 남북분단이 70여년 이상 지속되며 우리의 몸과 마음, 일상 속에 이념적, 군사적 대립, 군사주의와 서열주의 문화가 젖어 들었음. 미투(Me Too) 운동에서처럼 남성의 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 비폭력과 평화에 대한 외침이 커졌음. 청년 실업의 장기화, 빠른 사회변화 등으로 세대 간 갈등 역시 커졌음. 이념적 대립,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서로 다양한 삶을 수용하며 공존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함. 이를 위해 의사소통적 합리성 및 비폭력, 평화 감수성 함양, 사회적 갈등을 넘어선 성평등교육, 통일교육, 평화교육 등이 요구됨
- **문화 민주화를 위한 ‘자율적 시민성’이 필요함** : 오늘날 한국 사회는 물질적 성장에 따른 ‘개인적 소비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함께 ‘무관심의 세계화’ 등에 직면해 있음. 동시에 주류 문화에 묻혀 지내온 비공식적 문화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이질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개인이나 중간 집단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곤란함. 개인과 가정의 자생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임. 국가의 개인과 가정에 대한 지원은 ‘보조성’의 원리를 지켜, 시민의 자율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임. 이질적이고 다양한 포스트모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다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 토착지식교육 등이 필요함
- **과학기술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성찰적 시민성’이 요구됨** : 과학기술의 발전, 나아가 정보자본주의 노동통제 속에서 많은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도 ‘카톡지옥’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음. 비정규직이거나 알바생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시급노동을 구하고 있음. 노동과정이 ‘알고리즘 경영’의 무인 관리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는 배달, 돌봄, 카풀 등 플랫폼에 등록된 프리랜서 자유노동자들은 자신의 활동과 노동시간이 파편화되고, 자신에게 전가된 추가비용과 위험도 감수해야 함. 첨단 과학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적 소양이 필요함
- **환경 민주화를 위한 ‘통합적 생태시민성’이 요구됨** : 생태계 관점에서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생태위기가 환경 불평등 등 사회위기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생태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면 자연보호와 함께 빈곤 퇴치와 소외된 이들의 존엄회복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환경소양을 종전처럼 단지 ‘환경에 관한 지식, 기술 및 태도’에 한정하지 않고, ‘환경 안에서의 환경감수성’ 나아가 ‘환경을 위한 환경행동’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임. ‘생태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일임. 생명교육, 생태시민교육 등이 요구됨

2. 도민의 글로컬 시민성(glocal citizenship) 함양과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

제주 도민은 이제 세계화 시대를 맞아 글로컬(global + local = glocal)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그에 합당한 시민성을 배양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사회를 주체적으로 이끌고 가야 할 역사적 책임을 지니고 있음. 이 절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등장하는 글로컬 시민의 탄생 경로와 개념적 조건을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하였고, 세 차례에 걸친 제주지역 전문가 집단면담(F.G.I.)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제주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글로컬 시민성 함양의 장애 요인들을 검토하였음

가. 글로컬 시민의 탄생 경로

-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민족국가의 위상이 약화되고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앙 중심의 문화, 담론을 뛰어 넘어 지역의 물리적 공간, 삶의 주체인 인간,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공간적, 지리적으로 국가의 중심성과 대비되는 새로운 분석단위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시공을 가로질러 출현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세계관의 총체”인 지역성(locality)이 서구적 근대성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음(살구나무, 2018; Norberg-Hodge, 1992)
- 그러나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라는 명제가 시사하듯이 지역성은 세계적 보편성과 통합할 필요가 있음. 지역의 울타리 너머에 놓여 있는 보편적이고 세계화된 삶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임. 지역시민은 세계화와 지역화가 만나는 여러 상황에서 개방적이면서도 주체적인 자세로 대응하면서, 글로컬(glocal) 시민의 정체성을 지니는 단계로 나아가 갈 필요가 있음. 다음은 글로컬 시민이 탄생하는 몇 가지 경로를 보여 줌

□ 지역의 특정한 문화가 세계적 보편성을 인정받아 지역시민이 세계시민의 지위를 확보하는 경우

- 지역시민이 지닌 어떤 특정한 문화가 세계적 차원의 보편성을 인정받는 경우임. 예컨대 한류 열풍의 주역 방탄소년단(BTS),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는 더 이상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평가할 수 없음

- 방탄소년단이 한국어로 부른 노래 ‘페이크 러브’ ‘작은 것을 위한 시’ 등이 세계 젊은이들로부터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했기 때문임. 또한 제주 해녀가 더 이상 한반도의 변방,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에서 나잠어업에 종사하며 살아가는 직업여성이나 관광상품의 모델에 한정되지 않고, 인류가 전수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지닌 토착민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임(안미정, 2017). 이제 방탄소년단이나 제주 해녀는 세계와 소통하는 세계시민의 지위를 지닌 사람임. 이들을 글로벌 시민이라 부를 수 있음

□ 지역시민이 지구촌의 보편적 가치를 지역에서 실천함으로써 세계시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경우

- 지역시민이 기후변화 등 세계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역단위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구체적 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경우, 그는 지역시민의 위상을 넘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실천했다고 볼 수 있음
-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2018년 8월 일주일간 '학교 파업'이라며 학교에 가지 않고 스웨덴 국회 앞에서 지구 온난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음. 그녀의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번졌음. 매주 금요일 100개 이상 도시에서 학생들의 ‘파업’을 촉발하는 촉매제가 됐음. 툰베리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 2019년 9월 23일에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한 세계 지도자들을 성토했다는 연설을 하였음(kjee@yna.co.kr, 연합뉴스, 2019.9.25.)
- 한국에서도 청소년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학교를 빠져가며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하였음. 2019년 3월 15일 처음 열렸고, 5월 24일과 9월 27일에도 개최되었음. 지난 8월부터는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며,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제도와 정책 마련을 촉구했음(허진무, 경향신문, 2019.9.27.). 이제 우리는 스웨덴의 툰베리와 우리나라 ‘청소년기후행동’ 참가 청소년들을 글로벌 시민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

□ 지역시민 간 연대라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통해 가치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우

- 제주도 일부 강정 주민들은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의 철군을 바라는

오키나와에 부속된 이시가키(Ishigaki) 섬 사람들, 핵발전소 반대하는 타이완 주민들,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평화운동가인 노암 촘스키(Chomsky), 영국의 핵무기 기지 반대 운동사례 등을 통해 시민적 가치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었음(강정 해군기지 반대 단체의 영문 홈페이지 <http://savejejunow.org> 참조)

-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은 2016년 7월 21일 서울역 집회에 참석한 뒤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여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청원하는 서명에 참여했음. 이들 중 30대 여성 한 명은 “사드는 성주 군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다. 세월호 참사도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니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명했음(박수진, 한겨레신문 2016.7.24.)
- 또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의 양심적 지식인을 도와주고 한국 천주교회와 정보를 공유하며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제적 지지 여론 형성에 도움을 준 일본 천주교회와 일본 양심 세력들의 국제적 연대는 또 다른 형태의 글로벌 시민의 모습을 보여 줌(김종철, 한겨레신문, 2019.9.21.)

나. 글로벌 시민의 개념적 조건

세계화 시대에 지역사회 시민 곧 글로벌 시민이 지녀야 할 시민성의 요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김민호, 2011 참조)

- 설규주(2000)는 ‘지역시민성’을 국가적 시민성, 세계 시민성과 구별하면서 그 속성으로 ‘지역 및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정체성 획득’을 제안했음
- 그러나 지역사회 시민은 세계화 시대에 단지 지역주민만이 아니라 국가 및 세계 사회의 ‘글로벌(glocal)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기에, 참여와 정체성이라는 특수한 자질 외에 국가 및 세계 사회의 시민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자질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필자는 글로벌 시민의 보편적 자질로 ‘연대성’과 ‘주체성’을 추가하였음. 글로벌 시민은 세계화와 지방화의 사회현실 속에서 지역사회만이 아니라 국가 및 세계 사회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연대가 특정 세력의 강제가 아닌 지역사회 시민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면 지역사회 시민은 주체성을 지녀

야 하기 때문임

- 한편 글로컬 시민의 자질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밖의 또 다른 지역사회나 국가, 세계 사회의 대외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지역사회 내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자질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설규주(2000)가 제시한 정체성이 지역사회 시민의 대외적 자질이라면, 참여는 대내적 자질이라 할 수 있음. 필자는 지역사회 시민의 대내외적 자질에 ‘역사의식’과 ‘지역지식’을 추가하였음. 지역지식에 대한 소양 없이 정체성을 형성하기 곤란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역사의식 없이 지역사회의 제반 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임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시민의 자질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Ⅲ-1>와 같음

<표 Ⅲ-1> 글로컬 시민의 자질

구분	대외적 자질	대내적 자질
특수한 자질	지역지식, 다중정체성	역사의식, 지역사회 참여
보편적 자질	주체성	연대성

* 출처 : 김민호(2011: 207)의 <표 1>의 제목 ‘지역사회 시민의 자질’에서 ‘글로컬 시민의 자질’로 수정함

다. 글로컬 시민 형성의 장애요인

글로컬 시민성 형성의 장애요인을 시민성 교육의 학습자, 강사와 교육 전문가, 프로그램 편성과 운영, 지역기반 시민교육 조직들의 네트워크, 학습 문화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학습자 관련 장애요인

○ 학습자의 마을에 대한 소속감 약화

오늘날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진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경향으로서 제주 도민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마을(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크지 않음. 그 결과 마을 단위에서 학습동아리를 조직하거나 마을의 시설이나 조직을 기반으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음.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잘 몰라서 읍면동 체계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평생학습인 걸 떠나 가지고 읍면동 체계에서는 특히 읍면이 안되는 이유는 읍면에 대한 자기 소속감이 별로 없어요. 신촌리는 신촌리민인 것 뿐이지 잘 안 되는게...”(A, 2019.10.29.).

○ 학습 시간 확보의 어려움

제주지역은 사시사철 육체노동을 통해 경제적 소득 창출이 가능함 (고사리 꺾기, 감귤 따기, 밭 농사일 등). 농한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또한 제주지역의 빈번한 경조사 문화로 학습 활동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음.

“제 생각엔 다들 공통되게 이야기하시는 건, (제주 도민들이) 먹으러 갈 일(경조사)이 많답니다.” (D, 2019.10.29.).

○ 제주 도민의 상대적으로 낮은 학습의욕

제주 도민은 외지인에 비해 평생학습 참여율, 적극적 학습 자세가 상대적으로 낮음.

“우리가 4.3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짜거나 제주 역사문화를 짜게 되면 이주민, 건너오신 분들이 (제주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마음으로) 대부분 많이 신청을 하시죠. 그런 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원래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냥 설렁설렁하는 게 있고 두 세 번 듣다가 안 오고 그런 게 있어요.”(1-A, 2019.10.29.).

“저희도 (환경)교육 할 때 보면 도민의 참여가 좀 작은.. 외지인들 참여가 한 70% 정도가 되고, 도민들은 한 30%.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도민들은) 그만큼 교육을 받을..받는.. 여건이 되지 않거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여건도 많이 마련되어 있고 전보다 많이 알고 또 고학력자들도 많고, 제주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에서 교육을 받는 늘 언제나 받을 수 있다는 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3-B, 2019.11.4.).

“(제주도민들은) 문화를 향유하거나 공익시설의 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기부여가 약해요”(3-C, 2019.11.4.).

○ 기초학습 부족으로 이후 학습에 어려움

평생교육 분야에서 기초학습 부족이 이후의 학습에 걸림돌이 됨.

“교육학에 그런 게 있거든요. ‘기초학습이 안되면 다음 단계의 학습이 어렵다.’ 대학부설평생교육원도 보면 늘 오던 사람이 오고, 성당에서도 ‘신자재교육은 늘 받던 사람이 받지 막상

필요한 사람은 잘 안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관련 분야의 기본적 학습 부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1-B, 2019.10.29.)

○ 학습 쇼핑족이 학습동아리 장악

학습을 삶과 연계하기보다 학습 그 자체를 하나의 지위 혹은 자본으로 여기고 이를 점유하는 데 골몰하는 학습 쇼핑족의 등장, 그리고 이들로 인해 학습 학습활동에 좀처럼 참여하기 쉽지 않은 다른 일반 지역주민들의 학습 기회 접근에 장애가 초래되기도 함.

“학습동아리 있잖아요..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어머님들도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이, 받는 분들이 프로그램만 갈아탈 뿐이지 계속..”(3-C, 2019.11.4.)

□ 강사 및 평생교육 전문가 관련 장애요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하여 유능한 사람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제주지역의 경우 평생교육사 배치가 매우 미흡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에 어려움이 있음

“마을배움터나 서울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동단위로 동네 동네마다 심지어 카페까지도 학습 공간화 되어있어요. 자원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현재 우리 제주도는 전문인력이 양 행정시에 한 사람씩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니깐 지역 전반으로 이걸 키우는 정착사업이 순환이 잘 안되는 구조가 되어서.” (3-D, 2019.11.4.)

□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관련 장애요인

○ 공공기관 교육 프로그램의 매력 부족

학습자의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살아나지 않음.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전문가 부재, 공무원의 회피 업무, 프로그램 담당 강사가 주인노릇하며 프로그램을 반복 시행할 뿐 새롭게 개발하지 못함.

“결국에는 홍보 아니겠는가? 홍보란 결국에는 ‘내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되겠구나’ 요런 느낌을 좀 받게 하는, 터치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3-C, 2019.11.4.)

○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교육내용이 제자리걸음

마을 단위의 각종 사업의 교육내용 구성에서 해당 마을에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 과정

이 충분치 않고, 주로 어떻게 하면 사업비를 잘 확보할 것인지를 고려할 뿐임.

“돈 따오는 교육만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이 주민역량사업이라고 교육사업이라고. 실제로 내용 자체를 그렇게 10년 동안 하나까 제자리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도 그렇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교수님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역량교육이 중요하다.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잖아. ‘역량교육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 번 얘기해보십시오’라고 하나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1-C, 2019.10.29)

○ 교육 프로그램이 생활과 분리, 탈정치화함

교육 프로그램이 일상생활과 분리된 경우가 많고, 정치적 현안을 교육에서 제외하려는 경향마저 보임.

“아, 드림타워 어떻 생각하맨? 카지노 어떻 생각하맨?’ 이걸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삶으로부터 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1-B, 2019.10.29.)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편성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지역주민의 학습 요구를 수렴하는 데 한계를 보임.

“그 분위기가 태생적으로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주민자치위원회) 읍, 면, 동장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지연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 온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분위기나 기회를 또 안 줘요”(3-C, 2019.11.4.)

□ 지역 기반 조직들의 네트워킹 관련 장애요인

○ 제주지역 주요 시민단체는 관과 협조할 의지가 없음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행정이란 같이할 생각이 없음. 다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던가 사회적 네트워크, 이런 곳에 시민단체 역량이 일부 투입되었으므로, 공공기관은 그쪽이란 협업을 하면, 시민단체와 사실상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민간 중간조직의 경직성, 단체 간 경쟁으로 네트워킹에 어려움

관으로부터 여러 사업을 위탁받아 제주도민의 역량 개발에 주력하는 민간 중간조직들, 예컨대 사회적 경제센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이 운영의 경직성을 보이고, 유사 분

야의 시민운동 단체들 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어, 지역 단위 시민성 교육 조직 간 네트워킹이 쉽지 않음

“민간의 영역. 중간조직의 영역에도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중간조직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중간조직이 공무원 조직보다 더 못하는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이 중간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까닭은 민간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창의성, 자율성 이런 것들 때문인데, 오히려 (민간이) 더 경직된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요.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죠.” (1-A, 2019.10.29.)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 좋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단체는 우리가 너무 잘해서 우리를 제주도 말로 시알해서 그러는 건지, 잘 오지 않아요.” (3-B, 2019.11.4.)

□ 학습문화 관련 장애요인

○ 학습의 상품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평생교육계 강사들은 학습을 상품화하는 경향이 적지 않음. 건강, 흥미 등의 내재적 가치보다 돈, 일자리, 자격증 등 외재적 가치를 우선 함. 예컨대 요가를 배우면 요가선생님 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지속적인 학습을 독려함

Ⅳ. 평생학습권 보장 및 시민성 증진 사례 탐색

1.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권 보장사례
 2. 근거리 평생학습공간 확보 및 확대 사례
 3. 시민성 증진과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사례
-

Ⅳ. 평생학습권 보장 및 시민성 증진 사례 탐색

1.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권 보장 사례

□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리 평생학습 전달체제 제정비

- 2014년 법을 일부 개정하여 읍면동 단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앙-광역시·도-시·군·자치구-읍·면·동에 이르는 전달체제의 구축이 명문화됨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지역 발전과 주민의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학습생태계 조성을 핵심전략으로 추진, 전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배움과 실천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함은 물론 학습공동체 형성으로 진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됨
- 한국의 마을단위 행복학습센터는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로 추진됨. 이는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연령대든지 원하는 교육과 학습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삶의 질 보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 됨
-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체제 운영의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14.1월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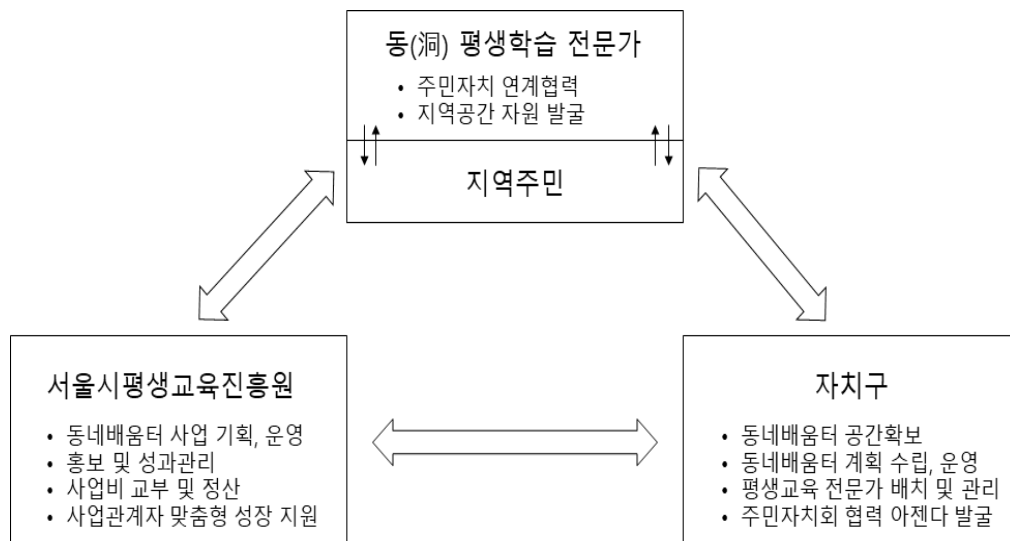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체제 개념은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수렴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센터임.
- 읍·면·동 평생학습체제 추진방향은 근거리 학습권 보장, 생활 속 학습요구 반영, 지역사회 자원 발견 및 연계 3가지 방향임.
 - 근거리 학습권 보장은 학습 접근성을 높여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격차 없이 모든 국민의 학습권 보장임.
 - 생활 속 학습요구 반영은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가장 근거리에서 파악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임.
 - 지역사회 자원 발견 및 연계는 학습동아리 연계, 주민의 재능기부, 마을 공동체 사업 등 사회적 자본 강화임.

가. 서울시 동네배움터

□ 사업추진목적 및 체계

- **사업목적:** 지역 내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이 원하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등 근거리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 **사업체계:** 지역 내 유휴 공간을 발굴·활용하여 마을 단위의 배움터를 조성하는 것이며 동 평생학습 전문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자치구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그림 IV-1] 서울시 동네배움터 추진체계

□ 사업추진경과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자치구를 중심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도로 추진되었던 행복학습센터로 본 사업을 시작함
- 2014년 19개 센터, 2015년에는 51개 센터, 2016년에는 70개 센터, 2017년 45개가 설치 및 지정됨
- 그러나 2018년 기존의 행복학습센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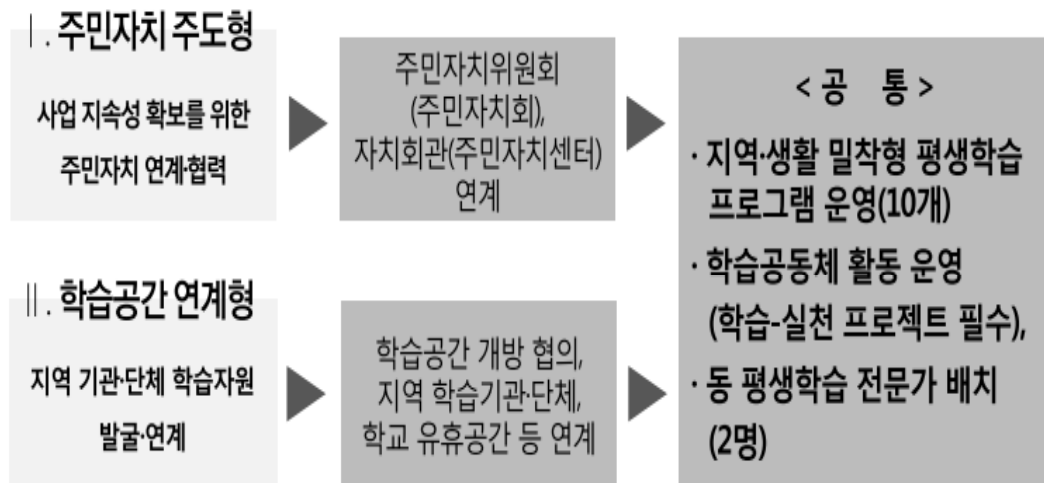
형 평생학습센터인 ‘동네배움터’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2018년에는 약 8,000여명이 참여하여 500회에 달하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하였으며,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192개 운영, 2,580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함. 이외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운영조직 307명이 약 200회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 됨

- 2019년 현재 111개의 동네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으며(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2017: 7). 2022년 424개의 동네배움터 운영을 추진 목표로 삼고 있음.

〈표 IV-1〉 2017-2018 동네배움터 추진성과

구분	동네배움터	배움플래너	프로그램	이수자	배움운영위원회	학습공동체 활동
2017	45개	69명	143개	1,910명	305명 (203회 활동)	2,153명 (470회 활동)
2018	53개	75명	192개	2,580명	307명 (194회 활동)	7,959명 (495회 활동)

- 동네배움터는 2019년부터 2년 연속 지원하되 사업 유형을 주민자치 주도형과 학습공간 연계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동평생교육사를 배치함으로써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체제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사업관계자(담당자, 동평생학습전문가) 역량 강화 및 성과관리 체계화를 유도하고 있음



[그림 IV-2] 동네배움터 사업 유형별 추진 내용

※ 출처: 2019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착수협의회 보고자 자료.

- 학교,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 공공시설이 2017년 대비 2018년 4% 비율로 감소함.
- 지역 문화·예술 공간, 지역 공동체 공간, 상가 내 유희 공간이 포함된 민간 유희시설은 41%로 증가함.
- 공공시설에서 2017년 대비 2018년 주민센터의 참여 확대가 두드러지고 복지시설의 참여가 축소됨.
- 민간 유희시설에서 문화예술공간(233% 증가), 상가 내 유희공간(300% 증가), 지역 공동체공간(15% 증가)의 참여가 확대됨.

〈표 IV-2〉 2017-2018 동네배움터 운영사업 시설

단위: 개

구분		2017	2018	증감률
공공시설	주민센터	4	8	100%
	학교	1	0	△100%
	도서관	11	10	△9%
	복지시설	3	0	△100%
	청소년시설	4	4	0%
	소계	23	22	△4%
민간유희시설	상가내 유희 공간	1	4	300%
	지역학습 공간	4	1	△75%
	지역공동체 공간	13	15	15%
	문화예술 공간	3	10	233%
	아파트내 시설	1	1	0%
	소계	22	31	41%
합계		45	53	17%

※ 자료: 양병찬 외(2017). 「서울형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2017).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2018) 내부자료 재구성.

□ 동네배움터 전담 동평생교육사 배치

- 서울시는 14개 자치구에 30명의 평생교육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배치함.
 - 자치구별 평생교육사 2명을 배치하고 각 구별 7~9개 동네배움터를 운영함.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1일 7시간, 주35시간 근무)으로 다소 안정적인 신분이지만, 한명 당 4~5개의 동네배움터를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서울시 동 평생학습 전문가 역할〉

- ①동네배움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운영
 - ②동네배움터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 ③학습자 상담 및 학습동기 촉진
 - ④동 평생학습 자원 발굴 및 연계, 단체 및 신규학습공간 발굴
 - ⑤지역 주민협의체 평생학습 연계 활동지원
 - ⑥동네배움터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지원
 - ⑦동네배움터 운영을 위한 기타 행정업무
- ※ 출처 : 동네배움터 착수협의회 내부자료(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2019)

- 2019년 서울시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확대('19년 100개 → '22년 424개(누적) 지원)를 통해 근거리 생활권 평생학습망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 지속가능한 동네배움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단순 공모 사업이 아닌 동평생학습 체제로 안착 필요
- 주민자치회와의 적극적 협업과 주민참여 방안 모색하고 다양한 기관단체와 연계 협력 유도
- 동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현장중심 전문역량강화(연수, 현장컨설팅)운영 및 동평생교육사 네트워크 교류를 강화하고 있음

□ 동네배움터 사업 내용 핵심요소

- 학습공간 발굴 연계 : 학습공간의 지속가능성, 안정성, 규모 등을 고려
- 동평생학습 프로그램 특성화 :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내용,방법)의 차별화 및 지역문제 해결가능한 실용 중심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함.
- 학습공동체 활성화 : 프로그램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학습-실천 프로젝트를 사업안에 포함. 주민주도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단계 개발 함.

□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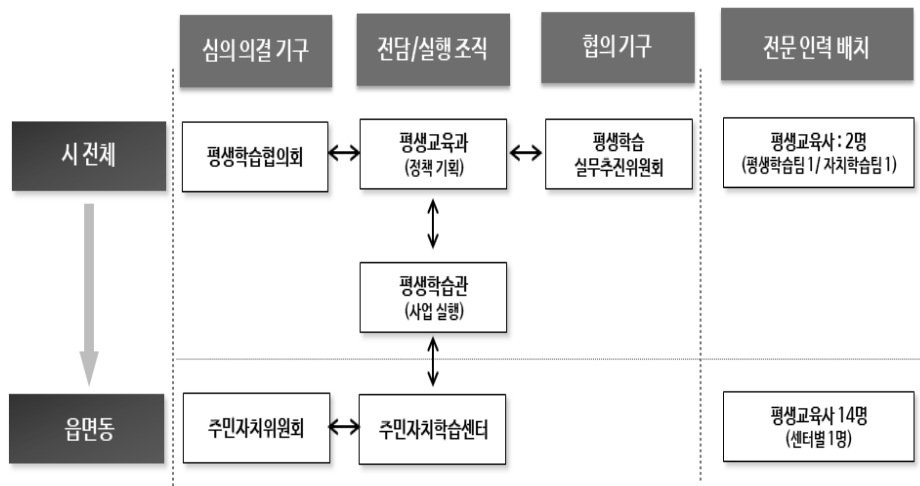
- 2017년: 13개 자치구 대상 12,000천원 ~ 36,000천원(동네배움터별 6,000천원 내외) 책정함.
- 서울특별시 13개 자치구(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 2018년: 15개 자치구 대상 300,000천원 (자치구별 20,000천원 내외) 책정함.
- 서울특별시 15개 자치구(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나.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 사업추진목적 및 체계

- **사업목적:** 도농복합지역 이천시는 농촌과 도시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을 이용한 지역 재생 운동을 실시하고자 지역 재생 운동의 실천 과정으로써 주민자치 학습센터를 운영함.
- **사업체계:** 이천시의 생활권 평생학습센터 체계는 시 전체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전달 체계 속에서 운영됨**.
-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명명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읍·면·동 거점으로서의 조직체계를 구성하였음.



[그림 IV-3] 이천시 평생학습 전달체계

□ 사업추진경과

- 이천시는 견고한 평생교육 전달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제2회 평생학습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하기도 하였음.

- 2005년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음.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14개 주민자치학습센터에 1명씩 배치하여 지역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생활권의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함.
- 주민자치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배치 이후, 정기적 평생교육세미나를 실시하여 지역에 배치된 전문 인력의 능력향상을 고취하고 있음.

〈표 Ⅳ-3〉 이천시 평생학습조례에 규정된 주민자치학습센터 연계 조항

구분	내용
제2조 (정의)	5. “주민자치학습센터”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말한다.
제5조 (경비 보조 및 지원)	2. 시장은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해 이천시 평생교육과(이하 “평생교육과”라 한다)·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당연직 위원〉 이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제22조 (평생교육사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주민자치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배치 할 수 있다.

※ 자료: 이천시(2018). <https://edu.icheon.go.kr/edu/contents.do?key=5959>

- 주민자치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은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초기였던 2005년에는 12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2006년 상반기에는 15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17년 32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이외에도 주민자치학습센터의 공간을 주로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음.
 - **마을행사 개편:** 짝수년에는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홀수년에는 읍면동 마을축제 운영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1주민자치학습센터 1특성화 사업 운영** :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개설한 미싱강좌 프로그램 수료 주민들로 구성 된 ‘출산용품 마을기업을 창업’하고 주민자치센터 내 산모정보‘베이비카페’를 설치하여 운영
- 그러나 평생교육사가 주민자치학습센터에 소속되어 있는바, 주민자치회 일반 운영 및 행사보조, 행정지원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전문가로서 네트워크 활동과 지역자원연계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에 취약한 것으로 보임

□ 전담인력 배치 및 프로그램

○ 2005년 일괄적으로 14개 주민센터에 14명의 평생교육사(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배치함.

-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해 조례를 개편하여 근거조례를 제정함.

〈이천시 평생학습조례〉

제2조(정의) 5. “주민자치학습센터”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을 말한다.

제22조(평생교육사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주민자치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배치 할 수 있다.

- 평생교육사 배치 추진 초기에는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유급간사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1년 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조건으로 배치하였음.
- 평생교육 전담인력의 역할은 지역 간 교육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생학습시설의 확충과 지역시민의 평생학습 참여확대를 위한 역할을 한다고 정의함.
- 이천시 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의 평생교육사 역할은 11가지로 제시함.

〈이천시 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 평생교육사 역할〉

-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기획, 운영/주민자치센터 관리/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강사관리, 학습자상담 포함
- ②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주민자치 사업 공동 기획, 운영
- ③ 마을만들기 사업 기획, 운영
- ④ 예산집행 및 행정업무
- ⑤ 성인문해교육 발굴 및 운영
- ⑥ 격년으로 개최되는 읍면동 마을축제 기획, 운영
- ⑦ 동아리공모사업 서브 및 관리
- ⑧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⑨ 권역별 네트워크사업 기획 및 운영
- ⑩ 주민자치박람회 공모 및 부스운영
- ⑪ 읍면동 업무 서브(필요시)

※ 자료 : 이연자(2018), 이천시 주민자치평생학습 체계구축 추진사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집담회 사례 중

다. 부천시 학습반디

□ 사업추진 배경 및 체계

- 추진배경 : 지역네트워크 기반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는 전담조직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3개 구단위 시민학습원이 권역별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었음
- 2014년 지역밀착형 근거리 평생학습 재편을 위해 시간, 공간,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혁신적 변화를 시도함
- 평생학습의 격차 해소 및 신규 평생학습자 확대를 위해 36개동 주민센터를 동평생학습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우리동네학습공간에 퇴근학습길이라는 특화사업을 만들어 전철역과 버스정류장 단위 동네로 파고 들어가는 전략을 실행함.
- 이른바 시민학습원(구단위)-학습반디(동단위)-학습공간(동네단위)로 체제를 재편 함. 지역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영역과 내용을 차별화하기 위해 시민대학- 시민학교- 마을학교의 커리큘럼을 이미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습반디는 마을학교의 개념과 내용의 차별성을 갖고 있음



[그림 IV-4] 부천시 근거리 평생학습체계 및 지역평생교육과정

- **사업목적** : 부천시의 학습반디 사업은 동 단위의 주민 센터를 학습반디(동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근거리 평생학습 체제 구축 및 시민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하여 학습공동체 형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학습반디매니저 배치를 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보급과 함께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조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사업체계:** 학습반디는 부천시 평생교육과(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자치분권과(주민센터)와의 트라이앵글 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주민자치센터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연계한 생활권의 평생학습센터로서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이미지로서 학습반디)를 지향하고 있음.

□ 사업추진경과

- 학습반디 사업은 2014년 행복학습센터 사업으로 1개의 거점센터와 3개의 학습반디를 시작으로 하여 2017년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학습반디라는 부천시 브랜드명으로 36개 전동을 동평생학습센터로 거점화하였음. 2019년 현재는 2개의 거점 센터(시민학습원), 36개 동 주민센터 전체를 학습반디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표 IV-4〉 부천시 학습반디 지정 및 운영 현황

구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6차년도 (2019년)
센터 수	거점 센터	1	2	2	2	2	2
	학습 반디	3	5	10	36	36	36
학습반디 매니저		5명 (거점2명)	7명 (거점2명)	13명 (거점3명)	42명 (거점6명)	40명 (거점4명)	40 (거점4명)
프로 그램 수	거점 센터	1개 프로그램 (행복학습매니 저 양성과정 기초)	2개 프로그램 (행복학습매니 저 양성과정 기초, 심화)	2개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개발)	2개 프로그램 (행복학습매니 저 양성과정 기초2)	1개 프로그램 (역량강화교육)	2개 프로그램 (역량강화교육)
	학습 반디	12개 프로그램	15개 프로그램	30개 프로그램	65개 프로그램	146개중 73개 시민교육프로 그램	150개 시민교육프로 그램
인원 수	실인원	242	266	489	1,310	2,926	3,000
	연인원	3,981	6,384	7,637	30,530	51,329	52,000
예산 규모	총 계	63,000	78,750	139,600	337,400	527,052	479,991
	국비	31,500	31,500	30,000	50,000	0	0
	시비	31,500	47,250	109,600	287,400	527,052	479,991

□ 전담인력 배치 및 프로그램

- 학습반디 사업 담당 평생교육사와 거점 매니저 4명이 배치되어 있음.

- 36개 주민자치센터에 조성된 학습반디에는 ‘학습반디매니저’를 양성·배치하여 운영함.
 - 2018년 1월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기준 학습반디 사업과 매니저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학습반디매니저를 대상으로 FGI와 설문조사를 통해 ‘부천시 학습반디 운영가이드북’을 제작하여 36개동에 배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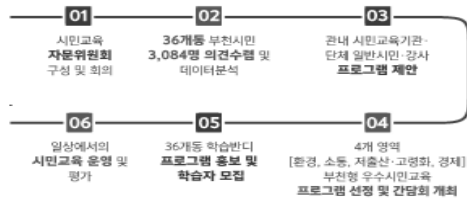
〈표 Ⅳ-5〉 부천시 학습반디매니저의 역할

구분		내용
기본역할	운영자	• 학습자 관리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개발자	• 프로그램 요구 조사 및 분석 •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개설
	학습상담자	• 학습 정보 제공 • 학습자 상담
	촉진자	• 학습 동기 부여 및 격려 통한 학습 촉진
	매개자	• 주민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교육 요구 수렴 • 지역 주민, 주민자치위원, 담당 공무원, 학습원 관계자 등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것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여 매개 역할 수행 • 학습과 관련한 위원장과 소통 일상화
상황에 따른 역할	운영자 (주민자치센터 업무 협력)	• 센터 프로그램 운영 협력 • 센터 프로그램 수강자 관리 지원
	매개자	• 마을 평생학습 자원 발굴 및 연계 • 간사 및 위원장, 공무원,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자 및 기관 간 의견 조율

※ 자료 : 부천시평생학습센터(2018). 2018 학습반디 운영 가이드북.

- 2018년 4월 36개동 **학습반디 운영 프로그램의 방향을 ‘일상에서의 시민교육’으로 전환** 하기 위해 시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후 동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환경, 소통, 저출산, 고령화 등 9가지 영역에서 시민교육과정이 개발 됨

일상에서의 시민교육을 만들기 까지



01 시민교육 자문위원회 회의

○ 개요

- 회의일시 : 2018. 1. 17. 수
- 참여대상 : 감창갑, 박영철, 김병선, 오성래, 이소연, 원지윤, 임정민, 홍인선

○ 회의내용

- 학습반디(36개동 주민센터) 시민교육 운영
 - 지방 자치 분권시대에 맞춰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민교육운영은 중요함
-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시민교육 내용
 - 어떻게? 무엇을? 누가? 누구에게?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 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02 36개동 부천시 시민 의견수렴

기간 2018년 4월 11일~20일
장소 36개동 학습반디(주민센터)
대상 시민 3,084명

○ 시민교육 정의

번	내 용	응답수	%	
1	이웃 간 발생하는 증감소속, 쓰레기, 주차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는 교육	985	56%	1
2	정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투표권을 잘 행사하는 교육	227	13%	
3	소외계층, 독거노인 등과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	547	31%	
총계		1,759	100%	

○ 시민교육 영역

번	영 역	응답수	%	
1	환경	912	30%	1
2	소통	454	15%	2
3	사회복지	288	9%	
4	저출산, 고령화	365	12%	3
5	실	279	9%	
6	민권	194	6%	
7	경제	338	11%	4
8	가치관	169	5%	
9	기타	85	3%	
총계		3,08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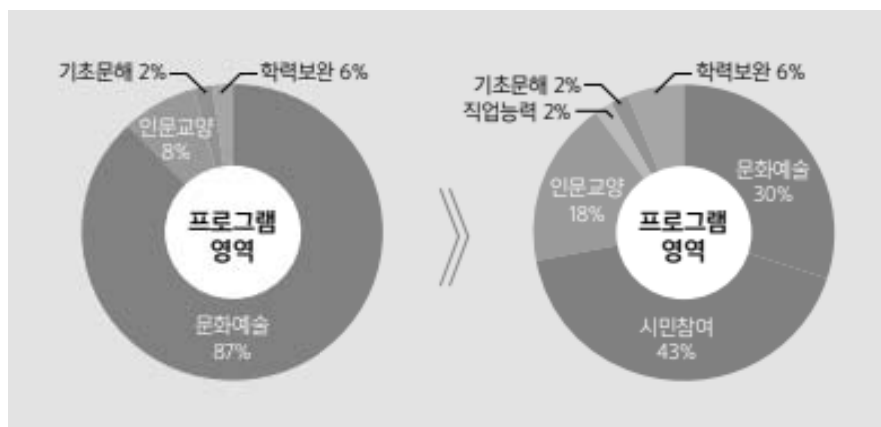


2 |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학습반디 | 3

[그림 IV-5] 2018 부천시 학습반디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홍보 리플릿

- 2018년 사업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환경, 저출산고령화, 경제, 소통 영역에서 73개의 시민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총 4,697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93%의 만족도를 보여줌.
- 2018년 한해 동안 동주민센터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의 영역이 아래와 같이 변화되었음.



[그림 IV-6] 36개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영역 변화(2018)

라. 소결 및 시사점

- 근거리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평생학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 이천시, 부천시의 사례를 살펴 봄. 각 지자체장의 마인드와 관심도에 따라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각자의 맥락을 반영하여 발전되어 오고 있음
- 세 가지 사례의 차이점으로는 근거리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공간의 성격과 평생학습전문가 배치 형태 및 현황 그리고 운영체제는 아래 표와 같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Ⅳ-6〉 서울시·이천시·부천시 동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 비교

구분 (자치구명)	서울시 [동네배움터]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부천시 [학습반디]
평생학습 전문가 배치현황	• 14개 자치구 • 111개 동네배움터 • 30명의 평생교육사	• 14개 주민지원센터 • 14명의 평생교육사	• 10개 행정복지센터 • 26개 주민지원센터 • 36명의 학습매니저(자원활동가)
평생학습 전문가 근무형태	임기제 평생교육사 마급	임기제 평생교육사 마급	자원활동가 (월59시간)
운영체제	복합형 (주민자치/민간학습공간)	주민자치연계형	주민자치연계형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역 할	• 학습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성과 관리 • 주민요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 학습 활동 촉진 • 관계자간 협의와 조정 • 자원발굴 및 연계 • 단체 및 신규 학습공간 발굴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관리 • 주민자치 사업 공동 기획 • 마을만들기 사업 기획, 운영 • 예산집행 및 행정업무 • 성인문해교육 발굴 및 운영 • 읍면동 마을 축제 기획, 운영 • 권역별 네트워크 사업 기획 및 운영 • 동아리공모사업 관리 • 읍면동 업무 서브	• 학습자 상담 및 관리 •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분석 •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 • 교육요구 수렴 • 관계자와의 매개 역할 수행 및 의견 조율 •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
특 성	• 서울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자치구 연계협력 • 시장 공약 • 예산과 전략적인 추진 방식으로 양적-질적 확대	• 조례개정 후 추진 •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추진력으로 시작 • 주민자치회 소속	• 교육부 행복학습센터 사업으로 시작 자체 브랜드로 안정화 • 자원활동가를 매니저로 배치 • 주민자치 연계에 주력
성 과	• 동네배움터 지정 확대 • 동네배움터 전문 인력 30명 배치 • 학습-실천프로젝트 운영으로 학습공동체 주도	•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 • 프로그램의 개편 추진 • 프로그램 운영공간 변화 • 주민자치교육분과와 협업 가능	• 36개 주민센터 학습반디 지정 • 36명 학습반디매니저배치 •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활성화, 주민자치위원 교육운영, 학습 동아리육성, 마을축제 확대

보완점	• 동네배움터 별 평생교육사 배치가 아닌 자치구당 1~2인 배치로 인해 현장전체를 포괄하기 어려움 • 단기적으로 학습-실천 프로젝트 진행의 어려움 • 자치구별 동평생교육사 처우와 업무 등이 매우 다름	• 동평생교육 정책 부재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이 흔들림 •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함 • 주민자치회와 평생교육과 협업과 소통이 어려움	• 평생학습자원활동가 • 처우개선 • 주민자치회 전환에 맞는 연계·협력 구조 필요 • 행정력 향상 필요 • 유급간사와 다른 고유업무 개발 필요
-----	---	--	---

○ 근거리 평생학습 체제를 지속가능하게 구축하고 주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별화와 지역과제화 그리고 주민의 주체성과 실천역량을 제고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측면에서 전략이 필요함

- **지자체 특성이 반영 된 지속가능한 전달체계 구축** :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 정책과의 연계점을 반드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우선적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평생교육 전달체계구축(조례, 예산, 평생학습전문가 배치)이 우선되어야 생활권에서 평생교육을 진흥이 가능해 짐
- **지역과제화 중심의 평생교육을 지향** : 교육과 실천의 거점으로서 공간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역량 제고를 위한 마을 교육의 공간인 동시에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마을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는 공간이며 마을실천을 구상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공간↔교육 ↔실천으로 다차원적인 역동이 일어나도록 해야함.
- **주민 주도 학습공동체 활동 조직 및 지원** : 동단위 거점 공간의 특성과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위해 주민이 학습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문화예술 및 취미교양 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주민주도 거점공간 관리 및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 해야 함.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및 유관 사업과의 연계 체제 구축** : 동주민센터의 경우 학습 소외지역 학습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사회적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확보 및 전 세대에 걸친 지식문화다양성을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임. 다양한 부서와 연계된 예산과 사람이 사업이 집결되기 때문에 이들을 연계하고 융합하는 플랫폼 체제 구축이 필요 함

2. 근거리 평생학습 공간 확보 및 확대 사례

□ 생활권 유희공간 활용 확대로 평생학습 서비스 확대 가능

- 2015년부터 경기도는 생활권 내 유희공간 활용 및 학습 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리동네 학습공간’사업을 진행 하고 있음. ‘우리동네 학습공간’은 활발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고 생활권 내에서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카페와 같은 시설을 학습공간으로 제공하여 학습의 편리성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된 사업임.
- 소규모 학습모임에 개방하고, 지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을 홍보하여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시설주는 시설 내 유희공간을 지역 사회에 기부해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하는 이점을 얻고, 이용자들은 해당 공간에서 학습 모임 활동을 통해서 평생학습 서비스를 받음. 우리동네 학습공간 사업에 참여하면 지정 시설이라는 인증 현판과 함께 진흥원 공식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지원 받음.
- 각 지자체는 우리동네 학습공간 사업에 지역특화 브랜드 사업을 기획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음.

가. 경기도 우리동네 학습공간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생활권 내의 유희공간에서 지속적 학습 모임을 통한 학습공동체 형성
 - 학습공간 및 재능기부를 통한 교육기부 선순환 사례 확산
- 우리동네 학습공간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으로 카페, 도서관, 박물관, 주민자치 공간 등의 유희공간을 시설주가 학습 모임에 무료 제공하는 기부 사업임.
 - 시설주는 시설 내 유희공간을 지역 사회에 기부해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얻고, 이용자들은 해당 공간에서 학습 모임 활동을 통해서 학습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음.

- 2018년부터 공모에 선정된 우리동네 학습공간 시설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지원하고 있음.
- 2016년부터 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평생학습 활동가들이 활동 지역의 우리동네 학습공간을 직접 방문해 시설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임.

□ 현황

- 학습공간 지정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2018년) 20개 시설 선정지원(프로그램 23개운영, 2,069명 학습자 참여)
 - (2019년) 25개 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 후 현재 운영 중임

〈표 IV-7〉 경기도 우리동네 학습공간 현황

연도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정현황			학습나눔 매니저 활동		
	신규 지정	계속 지정	총 지정	매니저 수	모니터링	교육부기부매칭
2019	168	582	750	36	115	-
2018	176	428	604	32	653	104
2017	231	232	463	26	572	93
2016	201	66	267	26	398	114
2015	70	-	70	-	-	-

※ 해당 연도별의 지정현화임(분기별 폐업 등 취소현황 반영으로 올해 기수와 상이할 수 있음).

나. 부천시 퇴근학습길

□ 사업개요

- 퇴근 후 학습할 수 있는 우리동네 학습공간 발굴 및 야간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습에서 소외되었던 직장인의 평생학습격차 해소 및 신규 학습자 유입을 도모함.
 - 2019년 퇴근학습길 주요 추진 내용
 - (퇴근학습길 기반) 학습공간 지정 확대, 운영자 간담회, 협약체결
 - (퇴근학습길 활성화) 정규 프로그램 운영, 가을문화축제, 원데이특강 운영
 - (사후관리 등) 평생학습코디네이터 배치, 학습동아리 구성, 시민강사활동의 장



[그림 IV-7] 부천시 우리동네 학습공간과 퇴근학습길 홍보지

- 2019년 퇴근학습길 추진 방향

- 근거리 학습이 가능하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및 버스정류소 인근 학습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함.
- 서울교통공사와 연계한 가을문화축제 및 지역행사와 연계해 사업을 홍보하고 활성화함.
- 공간별 평생학습코디네이터를 배치해 공간발굴부터 학습자모집, 안내, 일정기간 학습 후 직장인 학습동아리를 구성 등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바쁜 현대인들의 수요에 맞춘 원데이클래스로 시민에게 사업 및 공간을 홍보하고 다양화함으로써 학습시민을 발굴해 신규학습자를 유입

□ 현황

- 2018 추진 실적: 프로그램 146개, 실인원 2,217명, 연인원 8,532명 참여
 - 퇴근학습길 배움한잔 프로그램: 108개, 639회, 실1,468명, 연6,773명 참여
 - 학습공간 활성화를 위한 원데이클래스: 33개, 33회, 실338명, 연338명 참여
 - 퇴근학습길 가을문화축제: 5개역사內, 1,421명(체험411명, 홍보 1,010명) 참여
 - 퇴근학습길 학습공간 업무협약: 극단예터 등 7개소
 - 홍보 및 보도 다수: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경기도 통합부스 영상 상영 등
- 2018 퇴근학습길 주요 성과
 - 학습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학습자 40.2%(372명), 직장인 참여 68.9%(637명)
 - 퇴근학습길 사례 지자체 벤치마킹 : 5개 도시, 33명 방문 (서울구로구,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경기 수원시, 부산시 관계자 등)
 - 2018년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 한국유네스코위원회상 수상

〈표 IV-8〉 2018 부천시 퇴근학습길 추진실적

구분	운영기간	공간	프로그램	운영횟수	실인원	연인원	소요예산
합계	2~12월	-	146	677	2,217	8,532	98,475
겨울특강	2월	15	15	44	206	501	5,270
봄학기	3~6월	28	28	197	458	2,426	24,517
여름특강	7~8월	17	19	81	261	951	8,990
가을학기	9~11월	20	23	203	277	1,890	31,938
겨울특강	12월	19	23	114	266	1,005	13,885
원데이클래스	9~11월	33	33	33	338	338	5,090
가을문화축제	9월	5	5	5	411	1,421	8,785

- 퇴근학습길 학습공간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23개소로 운영중임. 2019년 오정구 권역 평생학습권 확대를 위해 버스정류장 노선까지 확대 운영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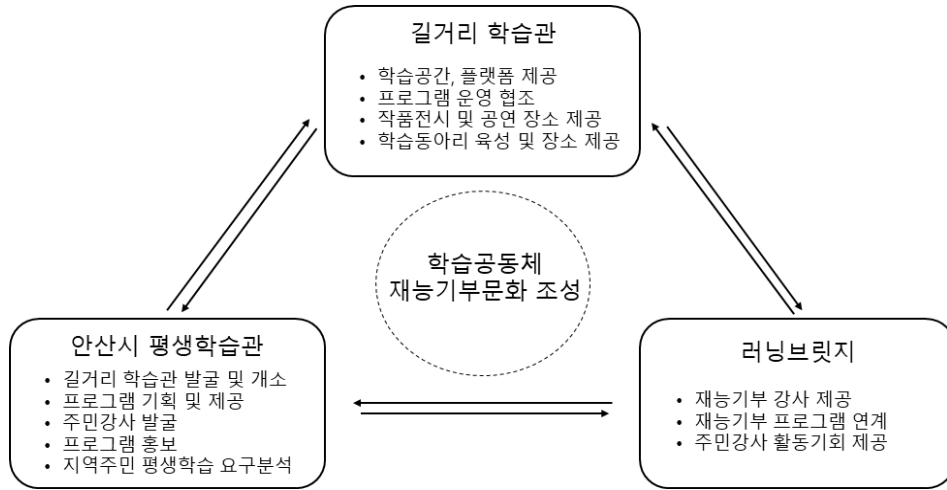
〈표 Ⅳ-9〉 2019 부천시 퇴근학습길 학습공간 현황

1호선 (8개소)		7호선 (7개소)		버스터류장 (8개소)	
역명	시설명	역명	시설명	정류장명	시설명
송내역	한국음악교육협회	상동역	대신증권 부천지점	삼정초정류장	흙이랑 꽃이랑
중동역	미살림		한국음악교육협회	원종종합 시장 정류장	신원중서점
	꿈꾸는 나무		편컬트	축협원미지점 정류장	빠지트(B:zit)
부천역	시론공방카페	부천시청역	비버우드	풍림아파트 정류장	바늘이 천을꼭 찌를때
	새마을금고 부천중앙점	춘의역	G.A.T	부천자유시장 정류장	라온제나
소사역	극단에터		공간옴팡		카락스튜디오
역곡역	카툰캠퍼스	부천종합 운동장역	부천FC사회적 협동조합	오정초정류장	모란가족공방
	역곡두레생협			양지마을입구	the ej수선작업실

다. 안산시 길거리학습관

□ 사업개요

- 삼삼오오 학습마실이라는 사업 비전으로 4가지 역할에 집중하고 있음.
 - 개인의 일상학습 : 개인의 일상학습 지원
 - 지역사회 공동학습 : 친숙한 생활공간을 배움터로 활용하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지원
 - 학습공동체 조성 : 지역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지원으로 학습공동체 활성화
 -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 : 개인의 학습을 지역사회와 함께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 지원
- 평생학습 참여 확대와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3가지 사업 목표를 제시함.
 - 자발적 일-학습의 증가로 평생학습 참여율 향상
 - 틈새시간 및 틈새공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 평생학습 전달체계를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일상학습 및 지역의 창조적 학습문화 조성
- 안산시평생학습관을 주체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길거리 학습관, 안산시평생학습관과 러닝브릿지 세 개를 주체로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그림 IV-8] 안산시 길거리학습관 운영체제

□ 현황

- 2018 추진 실적: 안산시민 1,215명 대상으로 길거리 학습관 총 38개소 운영
 - 분기별 프로그램: 총 124개, 494회 실시, 실1,215명, 연4,580명 참여

〈표 IV-10〉 2018 안산시 길거리학습관 분기별 프로그램 현황

구분	프로그램 수	운영횟수	실인원	연인원
1	33	129	265	1,102
2	26	125	219	1,010
3	33	126	327	1,078
4	32	114	404	1,390
총계	124	494	1,215	4,580

〈표 IV-11〉 2018 안산시 길거리학습관 운영현황

순번	상록구(20개소)	순번	단원구(18개소)
1	카페드코코	21	풀앤풀학원
2	카페제멜로	22	카페 피움
3	영미미술학원	23	소콜라마루
4	반디카페	24	아름인도서관
5	카페 나무바느질	25	카페공방 굿엔레더
6	오늘배움	26	호박넝쿨
7	카페마실	27	브세공방

8	카페포레스트	28	다음에너지
9	카페 지나 C	29	카페더라디오
10	카페 모아	30	좋은 이웃
11	제너러스 카페	31	생각오름학원
12	녹색학원	32	대동학원
13	후크 커피	33	경계에핀꽃
14	바리스타 강	34	아베크
15	카페, 그 곳	35	커피하우스
16	좋은친구들	36	누리카페
17	손커피연구소	37	신길 2단지
18	대동서적 사동점	38	신길 5단지
19	21C 미래학원		
20	커피와 사람들		

- 2015년 10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18년 기준 38개소로 확대 운영 중임.
- 길거리학습관 예산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안산시 예산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표 IV-12〉 안산시 길거리학습관 총 예산 (2015-2018)

구분	2015	2016	2017	2018
총 예산	7,575,800원	22,700,000원	23,650,000원	55,000,000원

라. 고양시 평생학습카페

□ 사업개요

- 시민들이 모이는 공간에 평생학습 결과물을 상시 전시하고, 평생학습 홍보·체험 이벤트 등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고양시의 평생교육 정책을 공유·확산하는 플랫폼
 - 학습동아리 발표, 학습포트폴리오 전시 및 평생학습체험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함.
- 평생학습 카페 운영 대상: 다중이용시설로서 평생학습 결과물 상시 전시 및 평생학습 홍보·체험 이벤트 진행이 가능한 공간
- 평생학습 카페 운영 내용
 - 운영기관: 50개소 목표: 지역조사, 학습결과물 전시, 관련 정보 홍보·전달 모니터링, 성과관리(요구 및 효과성 분석)
 - 평생학습카페별 학습 결과 상시 전시, 홍보·체험 이벤트 진행: 행복학습정원사 활동을

통해 평생교육기관·단체, 동아리, 행복학습센터의 학습결과(작품, 학습 포트폴리오 등)를 상시 전시·판매 체계구축, 학습결과물 순회 전시할 예정임.

○ 추진방향

- 고양시 지역특성에 맞는 풀뿌리 평생학습 공동체를 육성하고 시민주도 학습문화 조성 지원
- 동네학습장을 활용한 학습 이벤트 진행 지원으로 자발적 학습모임 결성 등 지역 학습문화 교류 활성화
- 행복학습정원사, 마을강사 육성을 통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



[그림 IV-9] 고양시 평생학습카페 운영 형태

□ 현황

- 2019 예산 계획: 평생학습 카페 운영비로 국도비 없이 고양시 자체에서 130,000,000 원을 책정하여 운영중임.

〈표 IV-13〉 2019 고양시 평생학습카페 예산

단위: 천원

세부내용	고양시	국도비
평생학습카페 운영 : 강사로 등 운영비	80,000	
학습정원사 운영, 성과공유회, 공감 워크숍 추진 등	50,000	
계	130,000	0

- 2019 예산 계획: 평생학습 카페 운영비로 국도비 없이 고양시 자체에서 130,000,000 원을 책정하여 운영중임.

〈표 Ⅳ-14〉 2019 고양시 평생학습카페 운영현황

순번	학습카페명	순번	학습카페명
1	장어명가 큐앤에이	21	일산책다방북앤드
2	디자인카페	22	카페 일산, 일상 by.빙수팝
3	사단법인 누리보듬	23	베르니 공방카페
4	맘이랑	24	JJ갤러리심리카페
5	나눔나무	25	로템나무
6	엔에이치투오 카페라미	26	가좌대우푸르지오
7	마을카페 민	27	에듀팜댄싱플라워
8	베로스트커피	28	애니스맘
9	창릉천 솔바람에코센터	29	비채건강공작소
10	마더와이즈	30	파머스체험가든
11	카페 루	31	행복한책마을
12	원당서적	32	두레협동조합
13	체스벅커피	33	미연전통음식연구소
14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	34	달님오시는길
15	the 행복한 작은도서관	35	주엽마실
16	지니수제쿠키	36	비플러스
17	뜰안에 차	37	행복한책방
18	카페12pm	38	아이엠 카페

마. 소결 및 시사점

- 우리동네 학습공간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지자체들이 협력하면서 **자체 브랜드사업으로 특화**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함. 지자체별 정책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지역의 **지속가능한 거점역할을 가능케** 위해 **자원활동가를 배치**하거나 **시민강사를 육성**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진화하면서 서울시 등 타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표 IV-15〉 근거리 평생학습공간공유 사례 운영 현황 비교

구분 (자치구명)	우리동네 학습공간 (경기도평생교육 진흥원)	우리동네학습공간 퇴근학습길 (부천시)	길거리 학습관 (안산시)	평생학습카페 (고양시)
공 간	지역커뮤니티 학습공간	직장인의 퇴근길	편리성 보편적 일상학습권	다중이용시설
내 용	지역과 소통하는 생활 속 평생학습	직장인을 위한 워라벨	3명 이상이 5분 이내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학습가능	시민주도 학습문화 조성 지원
성 과	• 유휴시간을 활용한 공간기부 • 생활 속 평생학습 • 지역과 소통하는 선순환적 학습체제	• 신규학습자 유입 • 직장인참여도 증진 • 참여학습자 높은 만족도 • 부천시 대표 브랜드로 전국 벤치마킹	• 평생학습 프로그램 연계 •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 • 신규 학습관 발굴 및 개소 • 학습자참여도 증진	• 주민의견 수렴, 정보제공 • 평생학습 콘텐츠와 가치 공유확산 • 행복학습정원사, 마을강사 육성으로 학습형 일자리 창출
시작연도	2016	2016	2015	2018
사업장소 및 강좌	유휴시설 등 645개소	지하철 1,7호선 버스정류장 등 30개소 포함 69개	락카페, 학원, 갤러리 등 39개소	카페나 공방 등 36개소
특이사항		평생학습코디네이터 배치	소규모 강사비지원 안산시 브랜드 런칭	학습정원사 배치

- 지속가능한 학습공간 운영을 위해서는 학습공간 시설주대상 간담회 운영을 통해 시설 운영시 파손 및 주민학습자 대상 영업활동 자제 등 협업해야 할 부분에 대한 공유 필요
- 지역주민 간 **교육기부를 통해 생활 속 평생학습을 지향**, 지역과 소통하는 선순환적 학습체계를 형성하는데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 공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학습자 관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평생학습자원활동가 배치 고려
 - 공간주가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려(공간주 협약, 공로패, 지역신문 기사화, 시홈페이지 학습공간 현황 탑재로 홍보 등)

3. 시민성 증진과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사례

□ 광장에서 일상으로 민주시민교육²⁾의 생활화

-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상이하면서도 분절되어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화가 시작 됨. 근래에는 법제화 방향이 특정한 기관이나 기구가 주도하는 방식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주된 방향이 되고 있음. 2018년 11월 현재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광역단체 5곳, 기초단위에서는 13곳에서 제정 됨(권진옥, 2018).
- 한편 평생교육법은 ‘시민참여교육’이 6대 영역의 하나로 명문화 됨으로서 평생교육진흥원이나 평생학습관에서 추진이 확대되고 있음. 평생교육계에서는 일부 인문강좌 중심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기존의 프로그램에 공공성, 개인적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공적 경험으로 발전시키도록 구성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 유지를 위한 주권자로서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다문화 사회 도래, 북한이탈주민 급증,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등 사회의 변화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창의성 그리고 민주성을 유연하게 발휘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시민참여교육의 형태로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례,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가. 광명시 ‘공공성 함양 프로젝트’

- 프로그램 대상: 광명시민
- 목적: 학습과 실천의 균형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성과 공공성 함양 토대를 마련하고 삶의 질과 학습력 향상 도모
- 운영 방법: 기관·단체 또는 시민들에게 프로그램 공모

2) 민주시민교육: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하며 시민참여교육, 시민성 교육 등 국내외 유사한 용어들도 민주주의, 시민성, 교육(학습)이라는 가치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같은 범주의 개념으로 간주 함

〈표 IV-16〉 광명시 프로그램 현황

분 야	내 용
대상별	가족, 아동, 청소년, (경력단절)여성, 학부모, 신중년, 노인, 다문화 등
주제별	소통, 인권, 민주, 통일, 환경 등 실천적 주제로 접근성 강화
영역별	개인적 역량(공감, 문제해결 등), 시민성 역량(정체성, 권리와 책임, 신뢰와 가치), 민주주의 역량(다양성 존중, 참여의식, 세계시민성 등)



[그림 IV-10] 광명시 민주시민학교

나. 성남시 '찾아가는 공익성 시민교육'

- 프로그램 대상: 성남시민 (프로그램 당 5~20명)
- 목적: 공익과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력 향상
- 운영 방법
 - 원하는 강좌와 장소, 시간을 선택하면 강사가 찾아가 교육운영
 - 지역 내 정부관련시설, 기업, 기관 등과 공익제휴 사업으로 운영
- 프로그램 현황: 10개 영역, 46개 프로그램

찾아가는 공익성 시민교육

신청방법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성남시 공익성 시민교육 예약' 검색

NAVER

성남시 공익성 시민교육 예약

세계시민 프로그램		인권 프로그램		환경 프로그램	
프로 그램	(1시간) 총출발! 카카오프렌드! 글로벌시대 세계시민교육	(2시간) 나와! 나의! 약속SDGs 글로벌시대 세계시민교육	인권 이해하기! 난 내가 너무 좋아	행복한 노후를 위한 나의 권리 찾기	자기를 살리는 아름다운 행동 소중한 자원을 구출하라!
주관 운영기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KOICA(한국국제협력단)	성남시 평생학습과, 라이프프렌드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성남시 청소행정과, 환경지도자협의회
주최학습대상	초등학생 1~2학년	초등학생 3~6학년	미취학 아동 (5~7세), 초등학생 15~25명 / 장애아동 5명 이상	60세 이상 어르신	네이버 예약 페이지 참조
신청가능인원	5명 ~ 20명 내외	5명 ~ 20명 내외	1회X1시간	10명 ~ 20명	5명 ~ 20명 내외
교육 시간	1회X50분	1회X100분		1회X1시간	1회X1시간
우리 생활 속		환경 프로그램		건강보존 프로그램	
프로 그램	방사능 물질 알기	보이지 않는 적, 미세먼지	우리의 가족의 건강 NO-케미 생활로 지켜요	속닥속닥 소리여행! 아이들을 위한 소리와 소음교육	물방울의 여행!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 교육
주관 운영기관	성남시 환경정책과,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시 환경정책과,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시 환경정책과,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시민교양대학원	성남시민교양대학원
주최학습대상	일반시민	일반시민	일반시민, 청소년(고등학생)	초등학생 1~4학년	유아 6~7세, 초등 1~2학년
신청가능인원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 30명 내외	10명 이상
교육 시간	1회X1시간	1회X1시간	1회X1시간 또는 1회X2시간	1회X40분, 또는 1회X80분	1회X40분, 또는 1회X80분
건강한 부모됨의 시작점		건강보존 프로그램		건강보존 프로그램	
프로 그램	한의학으로 만나는 산후조리	임신이 어렵다면 한방(韓方)에 한의학으로 만나는 난임의 이해	시민이 함께 건강해지는 건강과 건강권의 이해	고령화시대 대표 질환! 노인성 안전한 예방교육	생활속 변이균과 항생제 사용! 감수술 놓아주는 만성질환 바로알기
주관 운영기관	성남시 한의사회	성남시 한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시 의사회	성남시 의사회
주최학습대상	산후조리 중인 여성,	기혼부부, 관심 있는 시민	네이버 예약 페이지 참조	북경가족학연구소가 관심 있는 시민	고혈압과 당뇨에 관심 있는 시민
신청가능인원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 20명 내외	15명 이상	10명 이상
교육 시간	1회X50분	1회X50분	1회X1시간	1회X50분	1회X50분
동화로 배우는 악물오남용		건강보존 프로그램		건강보존 프로그램	
프로 그램	'마법의 악이라고요?'	아파도 걱정말아요, 공공의료 알아보기	보트독 비누를가게 체험을 통한 식중독 예방과 식중독안전교육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의약품 안전사용 및 악물오남용 예방교육	우리 아이를 위한 부모성교육
주관 운영기관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성남시립의료원	성남시 식품안전과, 성남시소비자시민모임	성남시 약사회	성남시 의사회
주최학습대상	미취학 아동(7세), 초등학생	일반시민(성인)	네이버 예약 페이지 참조	네이버 예약 페이지 참조	네이버 예약 페이지 참조
신청가능인원	15명 내외	10명 이상	5명 ~ 20명 내외	10명 ~ 25명 내외	10명 이상
교육 시간	1회X50분	1회X1시간	1회X1시간	1회X1시간	1회X50분
개입으로 배우는		안전 프로그램		안전 프로그램	
프로 그램	사회복지지해학교	이런 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면 돈이 되는 복지상식	영화를 통해 복지알기! 복지시네마 극장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탈출할 수 있도록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주관 운영기관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법무부 법률출판터	을지대 아동학과
주최학습대상	초등학생(저학년, 고학년)	일반시민(부모, 주동원, 장애아동)	네이버 예약 페이지 참조	초등학생, 중학생	네이버 예약 페이지 참조
신청가능인원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 25명 내외
교육 시간	1회X1시간	1회X1시간	1회X1시간	1회X1시간	1회X50분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탈출할 수 있도록		경제 프로그램		경제 프로그램	
프로 그램	재난대비 안전교육	공공했던 세금을 어떻게! 찾아가는 시민 세금교실	신규창업자, 영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및 세정지원 제도 이해	현명한 시민이 미리 준비하는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절세 교육	어는 만큼 보이고 피할 수 있는 금융사기 피해예방교육
주관 운영기관	을지대 아동학과	국세청 분당세무서	국세청 분당세무서	국세청 분당세무서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주최학습대상	네이버 예약 페이지 참조	성인	중·고등학생, 신규창업자, 영세사업자	성인	15세 이상 청소년, 성인, 어르신
신청가능인원	10명 ~ 25명 내외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교육 시간	1회X50분	1회X1시간	1회X1시간	1회X2시간	1회X50분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소통 프로그램		소통 프로그램	
프로 그램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나의 신용은 잘 관리되고 있을까?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신용관리교육	성애주거별 꼭 알아야 할 가족법 이해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법률 쉽게 이해하기	노동법령의 이해와 노동인권 교육
주관 운영기관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성남시가족법률지원센터	법무부 법률출판터	성남시노동법률지원센터
주최학습대상	15세 이상 청소년, 성인, 어르신	성인	성남시가족법률지원센터	성인	성남시노동법률지원센터
신청가능인원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5명 ~ 10명 내외
교육 시간	1회X50분	1회X60분	1회X1시간	1회X1시간	1회X1시간 또는 1회X2시간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소통 프로그램		소통 프로그램	
프로 그램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주관 운영기관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주최학습대상	15세 이상 청소년, 성인, 어르신	성인	성인	성인	성인
신청가능인원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 15명
교육 시간	1회X50분	1회X60분	1회X1시간	1회X1시간	1회X2시간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소통 프로그램		소통 프로그램	
프로 그램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주관 운영기관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주최학습대상	15세 이상 청소년, 성인, 어르신	성인	성인	성인	성인
신청가능인원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 15명
교육 시간	1회X50분	1회X60분	1회X1시간	1회X1시간	1회X2시간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소통 프로그램		소통 프로그램	
프로 그램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내 통장에 주머니 되는 통장관리법
주관 운영기관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주최학습대상	15세 이상 청소년, 성인, 어르신	성인	성인	성인	성인
신청가능인원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 15명
교육 시간	1회X50분	1회X60분	1회X1시간	1회X1시간	1회X2시간

[그림 IV-11] 성남시 시민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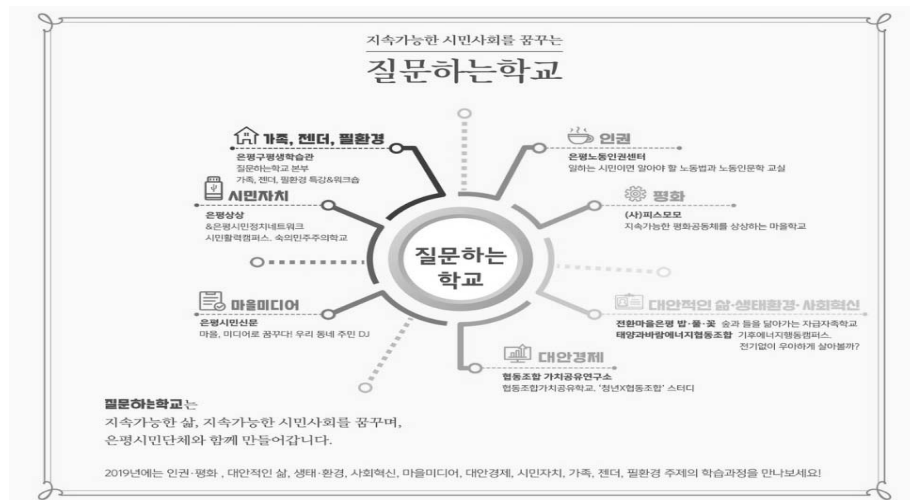
다. 은평구 ‘은평시민대학’

- 프로그램 대상: 은평주민 및 서울시민
- 목적: **질문을 나누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더불어 사는 시민 양성**
- 운영 방법: 지역 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콘텐츠/공간 활용
- 프로그램 현황: 4개 영역, 30여 개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15~30명)
 - 질문하는 학교: 삶의 다양한 주제를 머리와 몸으로 풀어가는 학교
 - 다빈치 실험실: 시민들의 직접 제안 사업
 - 쉬어가는 학교: 대상별 맞춤 학교
 - 시민대학포럼: 시민들이 동네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공론장

〈표 IV-17〉 은평시민대학 프로그램 현황

구분	프로그램	기간	인원
질문하는 학교	2019 속의민주주의학교	9월~10월	20명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우는 마을만들기	6월	25명
	협동조합가치공유학교	6월~9월	15명
	기후에너지캠퍼스 “우와~~한 도전 본능”	8월~10월	20명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 인문학 교실	6월~7월	20명
	협동조합이 뭐길래	8월	30명
	2019 청소년집시워크	7월~8월	20명
	마을, 미디어로 꿈꾸다 ‘우리동네 주민DJ’	5월~7월	20명
	숲과 들을 닦아가는 자립자족 풀약국!	10월~11월	15명
다빈치 실험실	제로웨이스트 살롱	3월~5월	15명
	즐겁고 당당하게 말하는 성	3월~6월	10명
	함께 해 봄	4월~9월	10명
	문화예술기반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	5월~8월	20명
	학(공부하는) 부모들	5월~6월	10명
	청년알라프로젝트	5월~6월	15명
	부모힐링스쿨	5월~7월	15명
	우리 아이 잘 키우는 육아상담	6월	10명
	동글동글 다문화 굴리기 프로젝트	6월~9월	15명
	은평 결혼이주여성리더교육	7월~9월	30명
	다함께 시작하는 마을돌봄	8월	20명
	베이비부머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노인권 확립!! 힐링큐	준비중	
	우리 동네 복지사가 꿈꾸는 원예활동	10월~12월	20명
	동그라미 프로젝트: 지구와 공존하기	9월~	
	환경을 생각하는 환想식탁	10월~11월	16명
	시민영상리포터 양성교육	10월~12월	20명

시민 대학 포럼	열린강의: - 나이들고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 시민햇빛발전소가 우리 집 옥상에?	8월	
	열린강의: - 공동육아, 우리 같이 키웁시다! - 지역민주주의, 지역언론에 답이 있다!	8월	
	열린강의: - 우리동네에, 주민이 만드는 도서관이 생긴다면 - 장바구니에서 시작합니다.	8월	
	포럼: 협동조합이 뭐길래	8월	



[그림 IV-12] 질문하는 학교

질문하는 학교

시민참여캠퍼스 : 2019 숙의민주주의 학교

2019.09.16 ~ 10.21 (10/21(일) 토론회는 16~18시 30분 주회상장허브)

18시 30분 ~ 20시 30분 은평구 평생학습관 강의실

일시	내용	강사	참조
9/16(월) 18:30~20:30	07. 오리엔테이션 시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 이해와 사례	박태순	은평구 평생학습관 3층 대강당
9/23(월) 18:30~20:30	08. 공론의 이해 - 공론장의 구성요소, 사례 및 평가	박태순	은평구 평생학습관 3층 대강당
10/2(수) 18:30~20:30	09. 숙의민주주의의 현장에서 배운다 - 공동체 숙의공론장 사례	박태순	은평구 평생학습관 3층 대강당
10/7(월) 18:30~20:30	09. '온라인 숙의민주주의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권오영	은평구 평생학습관 3층 대강당
10/14(월) 18:30~20:30	10. '이제, 숙의민주주의를 고민하자!'	김준일	은평구 평생학습관 3층 대강당
10/21(일) 10:00~18:30	11. '은평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상상과 제안'	임성환	은평구 평생학습관 3층 대강당

[그림 IV-13] 숙의민주주의 학교

2019 은평시민대학 포럼

협동조합이 뭐길래!?

8월 29일(목) 저녁 7시~9시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2층 상상의 숲

1부 협동조합의 가치, 고민, 우리는 왜 연대해야 하는가?

- 장면 김산(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 회장)
- 박재 최승국(평화과대학원·대사협동조합 이사장)
- 사학 민성환(은평노인신문팀 대표)

2부 토크쇼

- 김산현, 김경미, 최승국, 민성환

은평시민대학포럼은 은평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대안을 찾아가는 토론의 장입니다.

2019년 은평시민대학포럼은 #협동조합 주제로 은평협동조합협의회와 함께합니다.

[그림 IV-14] 은평시민대학 포럼

라. 수원시 ‘유투공’과 시민기획단 나침반 기획강좌

○ 유투공

- 프로그램 대상: 수원시민 (프로그램별 최대 15명)
- 목적: 단발성 특강의 한계, 강사의존의 한계를 극복, 학습자간 만남 중시
- 운영 방법: 기획단에서 유튜브 영상을 기반으로 커리큘럼 제작
 - 관심있는 참가자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강연/다큐영상 시청
 - 소감나누기 토론, 후기작성 후 공유
 - 후속 학습모임 개설 혹은 심화단계 학습 진행
- 프로그램 현황: 30개 프로그램

〈표 IV-18〉 유투공 프로그램 현황

연번	프로그램	기간	인원
1	매주 한 줄이라도 글을 써요	1월	15명
2	자본주의 경제에서 살아남기	1월	15명
3	당신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1월	15명
4	미술과 친해지기	1월	15명
5	행복 심리학 1	1월	15명
6	나를 찾는 인문학	4월	15명
7	Who am I? 어떻게 살 것인가?	5월~6월	15명
8	배움을 이야기하다	3월~4월	15명
9	행복 심리학 2	4월~5월	15명
10	피부에 와 닿는 경제 공부 시작하기	5월~6월	15명
11	미술과 친해지기: 아름다움을 보는 시선	3월~5월	15명
12	영어와 친해지기	3월~4월	15명
13	기획단 유유자적 모임	4월~5월	15명
14	부모학교: 몸으로 가르치기	7월	15명
15	교육과 창의력	8월	15명
16	영어와 친해지기	7월	15명
17	출발, 유투공 문학여행	7월	15명
18	과학과 친해지기: 뇌과학의 세계	7월	15명
19	미술과 친해지기: 현대미술편	7월~8월	15명
20	여행 좋아하세요?	7월	15명
21	뮤지컬 좋아하세요?	7월	15명
22	유투공 기획단 양성과정	9월	15명
23	부모학교: 4차 산업혁명과 밥상머리교육	9월~10월	15명

24	부모학교: 없어지는 직업? 걱정되는 아이 진로!	9월~10월	15명
25	글쓰기로 내 삶의 주인되기	10월~11월	15명
26	인문학 향연: 어떻게 살 것인가?	10월~11월	15명
27	영어와 친해지기: 가을시즌	10월~11월	15명
28	과학과 친해지기: 우주로 떠나는 신비한 여행	11월	15명
29	자본주의 경제 바로 알기	11월	15명
30	포토 토크: 사진을 말하다	10월~11월	15명

○ 시민기획단 나침반

- 프로그램 대상: 수원시민 30명
- 목적: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 운영 방법: 기획단이 기획 및 진행,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개설 및 지원
- 프로그램 현황: 8개 특강 기획 및 운영

〈표 Ⅳ-19〉 시민기획단 나침반 프로그램 현황

구분	프로그램	기간	인원
상반기 기획강좌 - 가족의 재구성	사회학으로 본 가족 : 가족이란 무엇인가	04.05.	30명
	소설로 본 가족 : 「설이」 부모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04.10.	30명
	영화로 본 가족 : 고레에다 히로카즈 「어느 가족」	04.17.	30명
	가족의 미래	04.24.	30명
하반기 기획강좌 - 먹고 사는 일	어느 청(소)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10.16.	30명
	주체가 될 수 없는 대리 노동들	10.23.	30명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과 ‘집’의 의미	10.30.	30명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	11.06	30명

※ 시민기획단 ‘나침반’ : 2015년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했던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 프로그램의 후속 학습동아리로, 현재 프로그램/행사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제안

마. 부천시 ‘학습반디36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 프로그램 대상: 부천시민
- 목적: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학습하고 실천하는 일상에서의 시민성 향상**
- 운영 방법: 영역별 프로그램 공모 및 강사 선발
 - 36개 학습반디(동주민센터)를 통한 수요조사

- 학습반디별 1~3개 프로그램 개설 및 학습자 모집
-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 프로그램 현황: 4개 영역, 20개 프로그램

〈표 IV-20〉 학습반디 프로그램 현황

영역	프로그램	대상
환경	슬기로운 쓰레기 탐구생활	성인
	꿈꾸는 꼬마 정원사	유아, 아동
	지구인의 지구 사용 설명서	청소년, 성인
저출산·고령화	내몸살림 프로젝트	성인
경제	편의 전쟁! 스마트한 경제생활	청소년, 성인
소통	놀이터~ 다같이 놀이로 소통하자	아동, 청소년, 성인
	통통통 신바람 웃음 힐링	성인
	마음을 키우는 도레미 세상이행	성인
	다함께 茶茶茶	성인
	마음이 통하는 ‘엄마의 말풍선’	부모
	꼬리에 꼬리를 무는 놀이문화	아동, 청소년, 성인
	도바시- 이야기가 있는 방	성인
	자존감을 높이는 푸드테라피	성인
	그림책으로 내 아이와 소통하기	부모
	여기 여기 붙어라! 숨쉬는 놀이터	아동, 청소년, 성인
	가치를 더하는 업사이클링	아동, 청소년, 성인
	맛있는 그림책, 한 그릇 똑딱!	성인
	너와 나의 보석 찾기	청소년, 성인
	일기가 말을 걸어요	아동, 청소년
	시민이 원하고 원하는 통통보드	아동, 청소년

※ <https://blog.naver.com/justly68/221505234421>

바. 도봉구 ‘일상의 민주주의와 시민적 학습’

- 프로그램 대상: 시민 50명
- 목적: 시민학습을 통한 일상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
- 운영 방법: 특강운영
- 프로그램 현황: 상/하반기 20회 특강 운영

〈표 IV-21〉 도봉구 시민학습 프로그램 현황

구분	회차	프로그램
1 학 기	1	생활 속 민주주의로 더불어 함께 행복해지는 ‘도봉살이’
	2	도봉구청 행정 서비스 100% 활용법(복지 등 매뉴얼)
	3	스마트한 도봉구민 되기 SNS특강 (카톡, 밴드, 유튜브)
	4	내가 참여하면 민주주의가 온다 (도봉 주민자치회 운영 소개)
	5	미국 역사의 이해
	6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자녀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법
	7	시민정치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8	도봉구민을 위한 인문학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9	동방산 근현대사 민주시민 역사올레길 탐방 (기념관 포함)
	10	도봉 생활 속 민주시민 동아리 활동 계획 세우기(동아리 결성식)
2 학 기	1	마을과 민주주의
	2	교육,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다
	3	헌법으로 본 민주시민교육
	4	역사 속에서의 민주주의 (조선시대)
	5	역사 속에서의 민주주의 (근대)
	6	탐방프로그램(함석헌/문익환)
	7	탐방프로그램(함석헌/문익환)
	8	평화와 민주주의
	9	힐링 프로그램
	10	인문학을 통한 시민적 학습

2019. 도봉 아카데미 민주시민교육과정

일상의 민주주의와 시민적 학습 1학기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 2019. 3. 1.(금) ~ 3. 15.(금) 9시~18시
 모집인원 : 도봉구민 50명 ※정원 미달시 차주 거주지도 수강 가능
 신청방법 : 도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http://eduia.dobong.go.kr>)
 수 강 료 : 무료
 교육기간 : 2019. 3. 26.(화) ~ 5. 28.(화)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19:00~21:00 (10차시, 총20시간)
 교육장소 : 도봉구 평생학습관 2층 대강의실
 문 의 : 도봉구 교육지원과(도봉구 평생학습관) ☎2091-2326

회차	강좌명(주제)	강사	비고
1	생활 속 민주주의로 더불어 함께 행복해지는 '도봉살이'	김성보 (도봉구청 행정과장)	이종길 (도봉구청장)
2	도봉구청 행정 서비스 100% 활용법 (복지 등 매뉴얼)	이향연 (행정복지과 과장)	오동문장
3	스마트한 도봉구민 되기 SNS특강 (카톡, 밴드, 유튜브 활용법)	이성호 (정보통신과 과장)	황영미 (교육지원과 과장)
4	내가 참여하면 민주주의가 온다 (도봉 주민자치회 운영 소개)	이영기 (주민자치사업과)	이주영 (주민행복과 과장)
5	미국 역사의 이해	박기재 (행정복지과 과장)	박기재 (도봉고등학교 교사)
6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자녀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법	안승훈 (미래교육지원과)	한성준 (학사지원과 과장)
7	시민정치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이재경 (미래교육과 과장)	김선보 (행정복지과 과장)
8	도봉구민을 위한 인문학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김대형 (인사지원과)	이부영 (행정복지과 과장)
9	도봉산 근현대사 민주시민 역사올레길 탐방 (기념관 포함)	이부영 (인사지원과)	토요일
10	도봉 생활 속 민주시민 동아리 활동 계획 세우기 (동아리 결성식)	김대형 (도봉고등학교)	토요일

주최 도봉구 주관 (사)마을교육공동체함께해요

[그림 IV-15] 도봉구 시민학습 1학기

2019. 도봉 아카데미 민주시민교육과정

“일상의 민주주의와 시민적 학습” 2학기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 2019. 9. 2.(월) ~ 9. 17.(화) 9시~18시
 모집인원 : 도봉구민 50명 ※정원 미달시 차주 거주지도 수강 가능
 신청방법 : 도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http://eduia.dobong.go.kr>)
 수 강 료 : 무료
 교육기간 : 2019. 9. 24.(화) ~ 11. 19.(화)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14:00~16:00 (10차시, 총20시간)
 교육장소 : 도봉구 평생학습관 2층 대강의실
 문 의 : 도봉구 교육지원과(도봉구 평생학습관) ☎2091-2324

회차	강좌명(주제)	강사	비고
1	마을과 민주주의	이종길 (도봉구청장)	
2	교육,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다	황영미 (교육지원과 과장)	
3	헌법으로 본 민주시민교육	이주영 (주민행복과 과장)	
4	역사 속에서의 민주주의 (조선시대)	박기재 (도봉고등학교 교사)	
5	역사 속에서의 민주주의 (근대)	한성준 (학사지원과 과장)	
6	탐방프로그램 (함석헌/문익환)	김선보 (행정복지과 과장)	토요일
7	탐방프로그램 (함석헌/문익환)	이부영 (행정복지과 과장)	토요일
8	평화와 민주주의	윤이영 (행정복지과 과장)	
9	힐링 프로그램	김대형 (도봉고등학교)	
10	인문학을 통한 시민적 학습	김성보 (행정복지과 과장)	

주최 도봉구 주관 (사)마을교육공동체함께해요

[그림 IV-16] 도봉구 시민학습 2학기

사. 지자체와 대학 협업 사례 ‘서울시와 성공회대: 협치와 시민’

- 프로그램 대상: 성공회대 학부생 30명
- 목적: 협치의 개념과 역사적 맥락 이해, 서울시 중심으로 협치 정책 이해
- 운영 방법: 정규교양과목으로 운영되며, 강의 이수 시 서울시장명의 수료증을 발급함.
명사특강, 정책특강, 일반강의, 현장탐방 등 복합적인 커리큘럼
- 프로그램 현황: 1개 프로그램 3학점(15회차)

〈표 IV-22〉 성공회대 프로그램 현황

회차	운영방식	주요내용	세부내용
1	OT	오리엔테이션	수업소개, 과제 및 평가방법, 협치보드게임
2	일반강의	협치이론 1: 협치의 개념과 역사적 맥락	세계대전 이후 유럽복지국가의 대두와 실패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민관협력과 시민참여
3	일반강의	협치이론 2: 한국사회 공공성과 협치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시민사회 한국사회 공공성 주도의 역사와 협치 마을공공성과 커뮤니티 기반의 시민사회 재구성
4	명사특강	사회혁신가	하승창 전 서울시정부부시장,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주제: 사회혁신과 시민이니셔티브
5	일반강의	협치정책 1: 성미산마을이야기	도시 속 마을공동체의 형성 성미산 마을의 역사
6	현장탐방	성미산마을	성미산 마을 탐방
7			
8	일반강의	협치정책 2: 마을공동체 정책	협치주체의 형성과 마을공동체 정책 넛지전략과 주민의 등장-연결 공동체정책의 전환과 지역사회 재구성
9	정책특강	협치정책 3: 참여에서 권한으로	김병권 전 서울시협치자문관 서울시 민선 6기 협치정책의 기초 시민참여와 권한부여(정책결정, 예산편성) 공론장의 민주성과 숙의성
10	정책특강	협치정책 4: 동단위 주민참여 정책	하경환 행안부 혁신읍면동사업단 과장 “마을계획, 주민총회, 서울형 주민자치”
11	정책특강	협치정책 5: 혁신정책과 중간지원조직	전민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중간지원조직의 성과와 과제”
12	명사특강	청년정책가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 “서울시 청년정책과 청년의 참여”

13	명사특강	청년정치인	주무열 서울시 관악구의회 의원 “풀뿌리 정치와 청년”
14	현장탐방	혁신-협치 현장 탐방	서울혁신파크 방문
15			서울시장 명의 <협치과정 수료증>수여

아. 시민단체 참여연대 사례 ‘누구나 쉽게! 나라예산 감시학교’

- 프로그램 대상: 시민 25명(참여연대 후원회원과 20대 청년은 할인)
- 목적: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하여 변화를 주도
- 운영 방법: 국가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과 구성에 대한 강의, 매주 이슈가 되는 예산 뉴스와 특정 예산들 비판적 검토, 예산감시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론 강의

〈표 Ⅳ-23〉 감시학교 프로그램 현황

날짜	프로그램
09.09.	○ 예산을 알면 1년 뒤 대한민국이 보인다 - 왜 시민예산 감시인가? - 예산안의 편성과정과 구성
09.16.	○ 경제분야 예산 뽐내기 - 도로가 계속 건설되는 이유, 재정의 칸막이에서 짚어보기
09.23.	○ 복지분야 예산 뽐내기 - 예산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 흐름 짚어보기
09.30.	○ 외교분야 예산 뽐내기 - 새마을에서 전자투표까지 공적개발원조(ODA)의 숨은그림 찾기
10.07.	○ 이것만 알면 당신도 예산왕 - 시민 예산 감시 사례와 방법들

출처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22939>

자. 소결 및 시사점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법률에서 말하는 각종 교육은 중앙단위 보다는 실제 일반 주민들과 밀접하게 가까이 존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위에 실시되고 있음. 평생교육에서도 각각의 진흥 또는 지원 법률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통일, 법, 경제, 환경, 교육, 청소년, 문화예술 등 시민교육이 조정·통합되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며 부

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평생교육 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운영 현황 분석 필요:** 위의 사례분석에서 보면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주로 지역기관, 주민자치센터, 지역대학, 지역도서관,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시설 면에서는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으나 교육수요 또는 교육하는 전문 강사나 콘텐츠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 함. 시민단체의 경우 특징 상 이슈중심 조직화, 예산부족, 사업추진의 지속성 부족, 진보조직 간의 편향적 시각 존재 등으로 실질적 한계를 안고 있음.
- **평생교육기관·단체 간 다양한 층위 및 단위에서 협력체계 구축:** 일상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식이 참여적이라야 하고, 쌍방향적이며, 생활과 관계되고, 권위주의적이지 않는 환경에서 실행되어야 하며(‘보이텔스바흐 합의’), 사회적 다양성의 도전들에 대한 인식력이 있어야 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부모, 지방자치단체 및 비정부기구들과 공조하여 구성되어야 함.
- **평생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시민주도형 참여식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 학습자의 수요부족(대중성 미비), 적절한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에 직면 하고 있음
- 경기도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조례 제5036호, 2015.10.13., 제정)’에 따라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내용체계는 그동안 경기도 내 개별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파편적으로 실시되어 온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6).



[그림 IV-17]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 내용체계도

-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의 표준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각종 시민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 학계에서 축적된 의견들,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등 민주시민교육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들 그리고 미국과 독일, 스웨덴 등의 선도적인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 모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31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내용 체계를 추출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익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업은 국가가 하여야 할 사업을 민간영역에서 해주기 때문에 정부 등의 기능 확대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정치권력의 이해와 특성에 따라 자율적이고 목적지향적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행정의 영역을 도구적으로 활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 정권에 따른 불공정한 편중 지원정책 우려 등 부작용도 없지 아니하므로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 등의 보장이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함.

V. 제주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인식 확대 방안 모색

1. 제주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인식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2. 글로컬 시민의 주체적 삶을
실천하는 시민참여교육
-

V. 제주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인식 확대방안 모색

1. 제주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인식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가.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및 기간

- 제주 평생교육 도민인식 및 인지도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해 우선 제주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인식 확대 방안, 제주 평생학습 인지도 향상 과제 도출, 도민의 시민성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모색을 위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함
- 조사대상자는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인력풀로 구성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수집의견 영역에 따라서 시민참여교육, 평생교육 관계기관,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사의 대상과 일정은 <표 V-1>과 같음

<표 V-1> 관계자 심층 면담 대상 및 일정

대상		일정
시민참여교육 집단	A. 시민단체 대표	10.29(화) 14:00
	B. 지역사회 평론 및 문화비평 전문가	
	C. 주민참여예산 및 마을자치 활동가	
평생교육 관계기관 집단	A. 평생교육사 협회 대표	10.31(목) 14:00
	B. 평생교육기관 실무 책임자	
	C. 평생교육활동 참여자	
	D. 평생교육기관 실무책임자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 집단	A. 도민 서비스 유관기관 실무책임자	11.4(월) 16:30
	B. 도 단위 협의체 실무책임자	
	C. 도의회 자문위원	

□ 조사 과정

- 제주도민의 시민참여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와 세 차례에 걸친 제주지역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집단 심층면담(F.G.I)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전문가 심층 면담 내용에는 제주지역 평생학습 참여 환경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배치현황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함
- 제주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민의 체감 증대를 위해 우선 시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전문가 집단 심층면담(FGI) 질문을 통해 검토하여 사업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함
- 또한 제주지역의 시민참여교육을 활성화하고, 제주 도민이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요청되는 글로컬 시민성을 함양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의견 등이 포함됨
- 전문가 집단 심층 면담은 Open Discussion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Open Discussion은 논의방법이나 프로세스를 구조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자들 간에 스스로없이 친숙하게 대화를 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법(Kaner, Lind, Toldi, Fisk, & Berger, 2007)으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임
- 전문가 집단별로 심층 면담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질적 자료를 내용분석의 방법에 따라 분석함. 즉, 수집된 의견을 정리하여 제주지역 인재 역량 및 육성 관련 주요사항들에 대해 코딩(coding)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코딩된 내용을 면담 질문에 따라 상위 범주화 한 후 이를 다시 하위범주로 구분함. 이를 정리하면 <표 V-2>와 같음

<표 V-2> 제주 평생교육 도민의식 및 인지도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

구분	항목
제주지역 평생학습 참여 환경 및 도민 참여 확대 방안	- 제주지역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단체의 배치 현황 검토 -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제공위한 우선 지원 분야 도출 - 마을 주민의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방안 - 학습자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편의성 확보 방안 - 지역사회 기반의 학습공간 확보 및 확대 방안 - 마을 주민의 학습활동을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행정 방식
제주 평생학습 인지도 향상 과제 도출	- 마을기반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전략 - 평생교육 사업 운영 방식의 내실화로 인지도 향상 - 기존 지역 주민 지원정책에 평생학습 재원 반영 - 주민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도민의 시민성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 시민성 증진을 위한 의제 발굴 및 교육과정 개발 - 자발적 참여 중심의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방안 - 시민참여교육 방법 및 평가의 개선

2. 글로벌 시민의 주체적 삶을 실천하는 시민참여교육

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시민참여교육

- 2017년,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발간한 『평생교육백서』는 시민참여교육을 시민성 함양 방식에 따라 다음 <표 1>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음
- 첫째,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시민단체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등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임. 민주주의, 선거, 대화와 타협, 소수자의 인권, 환경, 평화 등의 주제를 주로 다룸
- 둘째,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활동이 일차적 목표이나, 이와 더불어 시민성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경우임. 지역주민들은 학습동아리나 시민사회단체 혹은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주민자치나 마을만들기, 협동조합운동이나 지역개발 반대운동 등에 참여하면서, 혹은 그밖에 다양한 집회나 시위 등에 참여하면서 시민성을 무형식적으로 함양함
- 셋째, 학습자들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시민성을 학습하는 경우도 있음. 문해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개발, 종교교육 등의 성과로서 시민성 함양이 이루어짐.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표 V-3> 시민참여교육의 유형

구분	시민성 함양 방식	사례
범주 1	시민성 함양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 교육 프로그램	헌법교육, 인권교육, 환경교육 등
범주 2	사회참여 활동의 결과로서 시민성을 함양하기	동아리, 시민사회단체, 집회 및 시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에 참여
범주 3	다른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시민성을 함양하기	문해교육, 종교교육, 인문학강좌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평생교육백서.

나. 마을주민의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학습공간 확보

- 공공기관 중심의 접근보다는 마을, 리 단위에서 학습공간 확보하기: 읍·면·동에 집중된 공공기관은 지역주민들이 걸어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리, 자연부락 단위의 접

근이 요구됨. 제주도에 172개의 리, 550개의 자연부락 있음. 하지만 리 중에는 규모가 1,000명에 달하는 큰 규모의 리가 적지 않으므로, 지역주민의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연부락 단위의 접근이 필요함

- **지역사회 기반 시설을 학습공간으로 만들기:** 교육 전담 시설 외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동 단위의 도시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작은도서관, 경로당, 쉼터 및 도시재생사업 공간 등을 활용하고, 읍·면의 농어촌 마을에서는 경로당 외 마을카페, 독립서점, 폐교 및 마을만들기 사업 공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학습자가 편리한 시간에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주간에 근무하는 평생교육의 학습자를 위해 야간, 주말, 휴일 등에 교육 프로그램 배치**

“우리는 밥 먹고 친목도모를 하다가 학부모로서 뭐 배우자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교육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시간이 오전 10시예요. 그러면 일하는 엄마들은 못가거든요. 내가 너무 배우고 싶는데 일을 해서 시간이 안 돼.” (2-D, 2019.10.31)

“행정에서 지원할 게 뭐냐면, 그게 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주말이든 휴일이든 언제나 지원해줄 수 있어야 된다. 다만, 지금 보면 일과시간 이후에 주민센터가 되었던 평생학습관이 되었던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발 안 하고 탄력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기관 협의 관점에서, 시행방안 차원에서 (고려해야 해요).”(3-C, 2019.11.4.).

□ 마을주민은 학습활동에 집중, 예산 집행은 행정 기관이 담당

- **주민은 원하는 교육을 수강 신청만 하는 구조로 행정 절차 간소화:** 마을에서는 강사 요청만 하고, 강의 후 강사의 서명만 받아 제출하면 지원 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산 집행을 여기서(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마을의 경우에는 싸인만 받아서 언제 했다는 서류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돈을 받아 자신들이 집행하고, 그것을 공무원한테 보내서 ‘우리 이거 잘 썼어. 우리 이거 딱 데로 안 썼거든요.’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부담 없이 마을에서는 강사 요청만 하고, 시간해서 싸인만 받아다주면 예산집행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1-C, 2019.10.29)

다. 마을 기반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전략

□ 마을 주민을 시민참여교육의 주체로 세우기

- **글로벌 시민성 교육에서 마을 주민의 능동적 참여 존중:** 글로벌 시민의 정체성, 주체성은 국가나 세계 차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에 지역, 마을 단위에서 형성되어야 마땅함. 마을의 언어, 역사, 전통 등은 마을 주민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쳐 왔음. 다른 한편 마을 주민들은 지역의 언어, 역사, 전통의 생산자로서 다음 세대에게 그 문화 유산을 전수하고 있음. 또한 마을 주민은 자신이 당면한 삶의 문제 해결의 주체임. 따라서 마을 주민을 글로벌 시민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 당사자의 능동적 참여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임

“지금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을 항상 대상화하니까 소비자로서만 있잖아요. 소비자로서만 있지 않고 능동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어떤 걸 제안하고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토론하고 갈등이 있으면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시민성을 증진하는 가장 올바른 프로세스일텐데.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대상화되어 있어요. 소비자로서의 선택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지역 현안을 평생교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1-B, 2019.10.29.)

- **마을 주민을 지식의 생산자로 간주하고, 지역문화 DB 구축하기:** 마을 주민은 적어도 지역문화, 토착지식에 관한 한 지식생산 및 교육의 주체임. 따라서 마을 주민의 생각, 말, 행동 등을 보전, 전수하기 위해 이들에 관한 DB를 구축하는 일은 글로벌 시민 형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지역주민, 거기 살고 계셨던 거기 출신 분들이 그 동네에 대한 어떤 형태든 간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니깐. ‘우리동네 김00’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어떻게 엮어낼지는 좀 고민해야 하겠지만, 마을만들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DB로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3-C, 2019.11.4.)

- **마을 주민의 프로그램 공모 참여 유도하기**

“특별한 무리가 없으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의회에 전화해서 ‘뭘, 예산 잡아줍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한 번 좀 발로 뛰어 보면서 그 프로그램 수요를 발굴해서 나름대로 좀 (기획)해서 제출하면, 평생교육진흥원이 됐든, 평생교육과가 됐든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들이 타당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또 반응이나 평가가 좋으면 업그레이드 하는 것들이 때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있어 봤지만 시민사회단체나 이런(마을) 쪽이 의외로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몰라요.”(3-C, 2019.11.4.)

□ 마을의 역사, 현안 과제, 학습동아리 활동 등을 시민참여교육의 내용으로 삼기

- **시민참여교육의 내용으로서 마을의 역사:** 글로컬 시민의 정체성은 마을의 역사에 대한 이해, 곧 지역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됨. 반드시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이 아닐지라도 마을 내 여러 종류의 평생교육을 진행하면서 마을의 역사를 교육 내용의 일부로 삽입해 두면 글로컬 시민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임

“지역에 숨겨진 이야깃거리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라도 한 번씩은 그거(마을의 이야기)를 반드시 연계 프로그램에 넣어서 소풍가듯이 그런 것들을 반드시 (교육)해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뭐 인문교육하잖아요. 그럼 그분(옛 마을 사람)들의 발자취나 그분들이 어쨌든 고민했었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 마을 주민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 ‘우리 마을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라는 주민들이 손쉽게 다가올 수 있는 프로그램 제목을 다는 것도 좋겠어요.”(3-C, 2019.11.4.)

- **마을에 대한 자긍심 갖기부터 시작하는 시민참여교육:** 글로컬 시민의 지역 현안에 대한 참여는 지역에 대한 역사의식에서 비롯함.

“앉아서 듣는 교육일 수도 있고 이제 어른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지역이 소위 얘기하는 자랑거리, 역사문화유적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의외로 우리 동네에 대해서 뭔가 자긍심을 갖는 순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나 그게 사회적 작업으로써 정신적인 스파크가 될 수도 있거든요” (3-C, 2019.11.4.)

- **지역 현안 관련 시민성 증진의 의제 발굴 및 실행:** 글로컬 시민성을 형성하려면 기획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보다 지역현안 관련 토론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보다 의미 있음. 6개월 혹은 1년짜리 토론 이슈로 '지속가능한 우리 마을 만들기'라는 대강의 주제를 제시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 절차를 짜서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것임. 예컨대 제주도 표선읍 가시리 마을만들기 사례를 공유하면서 마을의 지속가능성 방안을 토론하는 것임. 혹은 제주도 구좌읍 주민의 경우 '제2공항과 소음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토론할 수 있을 것임.

“제주지역 현안을 평생교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토론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무사 정치적인 이야기 하맨?’이라고 할 텐데. --- 미국 도서관에서는 젠더 문제, 인종 간 문제. 이런 것들 키워드로 주고 토론해요.”(1-B, 2019.10.29)

“경기도 느티나무 도서관은 사실 책을 가져서 시사 토론하는 거가 주된 활동이에요.”(1-D, 2019.10.29)

“우리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북촌,’ ‘지속가능한 신촌.’ 이런 식으로 계속 키워드를 드리면 초기에는 개발로 가다가, 관찮은 마을은 개발하지 말고 팔지 말고 냅두자, 바람개비 세우자. 풍력 세워 가지고 풍력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북촌리 해결 다 되거든. 가시리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막 논쟁이 많았지만, 지금 상황은 어쨌든 풍력이란 뭐랑 뭐랑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재원가지고, 가시리는 최고의 마을이에요. 애들 학교 보내는 거 다 공짜잖아요.”(1-A, 2019.10.29.)

○ 마을 내 여성 학부모 동아리의 자녀교육 정보 습득 기회 제공하기

“여성 학부모들이 동네의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인데. 얘길 들어보면, 이들이 아이들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에 목말라 있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듣고 싶어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1-B, 2019.10.29 FGI 중)

- 공무원 평가지표에 지역주민 현안 해결 지원 실적 반영: 도청 평생교육과, 환경정책과, 관광개발과, 노인장애인과 등 행정부서와 평생학습관,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 평생학습 기관의 평가지표에 마을 현안 해결 지원 실적을 반영시킨다면, 마을 현안 해결에 대한 행정 차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임.

□ 일반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공공적 성격 담아내기

- 인문, 예술교육 등 다른 성격의 학습활동 기획을 통한 시민성 함양: 평생교육 기획 단계부터 개인의 성장이 지역사회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에 공공성을 담아내야 함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제주의 역사가 사실 불교문화의 역사다 그러면 거기에 4.3이 붙어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랄까? 아.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하겠구나, 이 생각만 나오면 난 된다고 보거든요.” (3-C, 2019.11.4.)

- **학습결과와 공유를 통한 시민성 함양:**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5060 인생학교’ 수료자들에게 재능기부의 구조화를 의도적으로 전달, 실시하여, 평생학습이 개인적 삶을 넘어 사회적 삶으로 이어지길 기대하였음.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해온 어느 활동가 역시 학습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의 결과 공유를 통해 시민성이 함양될 수 있다고 봄

“저는 주민이 지금의 현재적 삶의 방식과 다른 방식의 삶을 얻고자 한다면, 교육을 4단계로 설정해야 한다고 봐요. 기본적인 강좌중심의 교육, 그 다음 자기가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그 다음은 토론과정이고 조사과정이 있어야 하고 자기 계획이 있어야 함. 세 번째는 실행 과정이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내 것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온 것들을 함께 공유할 때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야만 시민성도 높아진다고 보거든요.”(1-C, 2019.10.29.)

□ 시민참여교육 방법 및 평가의 개선

- **학습자의 참여동기 유발 프로그램 구성:** 딱딱한 시민교육을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임. 예컨대 환경교육, 협동조합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을 보드게임과 연결하기임.

참고 블로그

- 1)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고통받는 바닷속 동물을 구한다는 환경교육용 보드게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rkill2&logNo=221614677438>
- 2) 탄소배출권에 대한 환경교육용 보드게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vw7&logNo=221581602645>
- 3) 3D 프린팅을 활용한 협동조합 보드게임 강사 과정
http://cafe.daum.net/_emergency.html?q=%25ED%2598%2591%25EB%258F%2599%25EC%25A1%25B0%25ED%2595%25A9%25EA%25B3%25BC%2520%25EB%25B3%25B4%25EB%2593%259C%25EA%25B2%258C%25EC%259E%2584

- **평생학습 누적 결과에 대한 인증제 ‘학습계좌제’의 적용 확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대신하여 공공기관(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인증으로 학습동기 부여하기. 평생학습 결과가 일회적 수료증으로 마감되지 않고, 다음의 학습과 연동되는 평생학습 인증 체제 마련. 다만 공적 인증이 개인의 점수 쌓기나 학습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여겨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지역을 확장하며 프로그램을 기초에서 심화로 고급화하기:** 마을-리-읍면동-시-도-국가-세계 등으로 삶의 조건을 확대해 나가며 이에 상응하여 학습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심화해 나가는 것임

“제 생각에는 단편적인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으나 무협지 보면 단계별로 뺏아가는 맛이 있잖아요?” (3-C, 2019.11.4.)

□ 평생교육 사업 운영 방식의 내실화

- **행정시 혹은 중앙부처 주관 주민역량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쇠신:** 효과가 미미하나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지자체 사업들을 재검토하기

“행정시에 기본적으로 교육예산에 1억 5천씩 쓰고 있습니다. 도에서 또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 6천만원 정도되고, 개별적으로 마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예산들인데 그것도 보면 적게는 천만원에서 많게는 칠팔천만원, 1억 가까이 돈이 쓰이고 있는데, 교육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제자리입니다. 제자리인 교육을 참 잘 만드는 거 같아요. ‘이게 평생학습이라 할 수 있었겠냐?’하는 거예요.”(1-C, 2019.10.29.)

-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실시, 프로그램 평가의 절차 거치기:** 마을 구성원의 규모, 특징 등에 대한 기초 데이터 조사 후에 마을에 적합한 프로그램 기획, 실행 및 평가의 과정을 충실하게 거치는 것임

“제주 분들이 일만 일만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 문화적 경험이나 향유나 이게 없어서 제주 사람들이 길러야 할 역량 중에 문화적 감수성..그 부분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주환경 자체가 워낙 어려운 근현대사 거치고 오다 보니 부모님 세대는 아예 영화 한 편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니까 지금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 이렇게 배움의 기회를 제대로 못 가진 분들이 많다. 학교도 거의 그냥 다녔고 겨우 다녔고, 또 학교 다니고 나서도 이제 거의 발농사만 하며 살았던 분들은 (평생교육에 잘 참여하지 못한다.)”(3-D, 2019.11.4.)

“돈 번 데만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해서 가서 봤는데 거기 가서 보는 것도 단면만 보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럼 자기네 안 좋은 걸 얘기하겠습니까? 다 좋은 것만 얘기하지. 그런데 듣고 오면, 우리량은 안 맞아. 시작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1-C, 2019.10.29.)

- **마케팅 관점에서 접근하기:** 평생교육 수요자의 관심과 필요를 잘 공략하는 마케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끌어내야 함.

“그니깐 이제 정책 타겟, 계층별이든 지역별이든 연령별이든 간에 그 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 그니깐 언어 순화해서. 예를 들어 시민교육이다 하면 읍,면,동 내지 리로 들어가잖아요 예. ‘우리 마을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같이 알아보니까요? 아니면 알고 있는 거를 우리 손자, 손녀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동네 이야기꾼 김00’ 그러면 이주민들도 궁금해서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할 거고 객관적으로 지역 어르신들, 지도자 쪽 했던 어르신들, 이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3-C, 2019.11.4.)

“어쨌든 홍보 마케팅을 많이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도. 우선은 잘되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동백습지센터 잘 되고 있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잘 모이거든요. 거기에 뭔가 하나를.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면 흔쾌히 오케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경로당까지 가는 것은 그 이후에 물어발처럼 뻘을 때 얘기고. 우선 접근방식을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곳에 하나를 더 추가하기)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3-B, 2019.11.4.)

- **주민참여예산의 분배를 통한 읍면동, 리 단위 평생학습 재원 확보**

“주민참여예산은 이제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공약을 이행해주셔서 매해 200억원을 쏟아부어요. 200억원 대부분이 시설비라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전환시키고, 매해 목적사업으로 평생학습 요소를 반영해, 이 사업에다가 읍면동이나 리에서 신청을 하면 예산을 줄 수 있게 작업을 하면 (좋겠다). 대충 1년에 최소한 ‘리’쪽 파트 예산이 좀 들어오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뭔가 일할 수 있는 거죠.”(1-A, 2019.10.29.)

- **허브 기능 강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지역 내 다른 평생교육기관 및 행정시 평생학습관과 경쟁하기보다 본연의 취지에 맞게 허브,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함.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관, 각 기관들의 역할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이거 학습관꺼냐 아니 진흥원꺼냐’라고 논쟁이 벌어졌구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연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청과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2-C, 2019.10.31)

“처음에 관계설정이 시간이 더디더라도 그 다음부터 통로가 서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되거든요. ---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생겨서 기존에 평생교육기관, 시설들에 대해서 자각 내지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분명 맞다. 그 역할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파트너십

을 해서 지원체제로 가고, 공기관 대행사업이든 아니면 프로그램이든 (행정시나 유관기관에) 내릴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만 또 다른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니까 유관기관 협력할 때, --- ‘다 내려놓겠다, 같이 잡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 줘야 되요. 그러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3-C, 2019.11.4.).

□ 시민성 교육 지도자(코디네이터) 양성

- **시민교육 지도자 역량 개발 필요:** 공무원, 마을지도자 등 대상으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회의 진행 능력 함양, 리더십 및 주민 조직화 등의 내용을 담아낼 필요가 있음.

“코디네이터들도 제주도에 좀 양성되어 있어요. 그분들도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시민들의 수준이 더 높아. 그래서 오히려 그분(시민)들이 와서 진행하잖아요? (코디네이터가) 진행을 못하는 거야. 수준이 너무 낮은 거야.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싶는데, 깊이 있는 토론을 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1-C, 2019.10.29.)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견학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 공감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자리 마련을 하면, 며칠간 후속 모임을 갖고 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좀 뭐라고 하나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주체로 세워 줄 자리가 필요한데, 한 번 돌리고는 끝이에요.(2-C, 2019.10.31.)

“(환경)교육은 잘 시키고 있으나 이 사람들은 늘 여기도 고민이고 저기도 고민이고.. 이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에서는 다 고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뭔가의 소정의 진행료를 드리던. 아니면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던 그 후속프로그램들이 없으니깐 자꾸 단절되고, 프로그램은 좋으나 후속조치들이 없어요. 후속조치를 위해 도나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3-B, 2019.11.4.)

“제주환경대학이 있어요. 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80명씩 매년 모이거든요.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대학에 직접은 못 가지만 이 교육 1년짜리를 통해서 이제라도.. 지금 까지 17~18회 정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어요. 이 기수가 계속적으로 17~18회까지 가는 거는 본받고 싶은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룹모임을 하고 있어요. 대학총동문회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근데 아쉬움이 있다면 전문교육을 받았으면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나가서 뭔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룹이 아닌 자기네끼리 그냥 향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변질되고 있어요.”(3-B, 2019.11.4.)

□ 시민참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평생교육 관련 조례 강화 및 재구조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격차 해소 조례’ 제정 혹은 ‘제주평생교육진흥조례’에 교육격차 해소 조항을 추가하기, 혹은 폐교 처리 관련 조례처럼 제주도 내 조례 중 교육사업이 들어간 모든 조례를 찾아내 공공성을 높이는 것임.

“어차피 도청이나 도의회에서 만든 조례 몇 백 개 중에 교육 관련 조례는 누군가 한 번씩 정리해야 돼요. 엄청난 양의 조례 중에 평생교육과 연관될 수 있는 것들 찾아내, 거기다가 하나씩 전술적으로 담아 그걸 공공성이 있는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죠.” (1-A, 2019.10.29.)

“난산중학교도 2년 전에 도청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 공간을 평생교육공간으로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공간도 공공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2층 공간을 한 기관 한 부서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대평리 대평초등학교도 서귀포시가 위탁했고 마을에 재 위탁했는데 마을은 또 개인한테 위탁 줘서 그냥 게스트하우스로 있거든요. 그것도 서귀포시에서 다시 받아 청소년수련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간을 사실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양초등학교에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하면 예술교육이에요. 교육공간이기 때문에 작가가 들어가서 별짓을 다 해도 좋은데 작가들은 가서 예술교육해라. 아이들을 위해서. 한경하고 대정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1-C, 2019.10.29.)

○ 평생교육지원 중간지원조직 마련

‘마을교육지원센터’와 같은 마을 간, 마을 내 네트워킹의 허브 역할을 할 중간지원조직 구성 필요함.

“리 단위의 1년 사업계획 중에 사업량으로 치면 12-20%가 다 교육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개별적이에요. 개별 리가 서로가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최소한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이라던가 이런 데서 한번 누군가가 허브가 되가지고 서로 연계를 맺을 수 있게 됐음 좋겠는데 몇 년 해도 안 되는 거 같아요. --- 마을교육이 포커스라면, 마을교육지원센터 같은 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170개 리 550개 자연부락 관련 업무를 하면 내가 보기엔 최소한 10년은 활동해야 하지요.” (1-A, 2019.10.29.)

“마을 차원에서 (사회교육,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여성, 장애인 다 불러서) 한 단면을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지점이 되도록, 다시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전환하는 지점에 마을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1-D, 2019.10.29.)

Ⅵ. 제주평생교육 도민의식 및 인지도 향상 방안

1. 기본방향
 2. 제주 평생학습 참여환경 조성 및
참여기회 확대
 3. 시민성 증진을 위한 시민참여교육의 활성화
 4. 마을평생교육지원 체제 형성과
민·관·학 거버넌스의 활성화
-

VI. 제주평생교육 도민의식 및 인지도 향상 방안

1. 기본방향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생애주기의 변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제주지역사회의 대응능력을 겸비하는 지역평생교육체제의 전면적인 혁신과 재구조화의 필요성이 커짐.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평생학습 참여 실태는 여전히 전국대비 낮은 참여율과 특정지역 중심의 평생학습 기관 배치 특성으로 인해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가 제한적인 여건임.

그러므로 도민 누구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사회적 활력, 도민의 행복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체제 및 인프라 확충 등 제주 도민의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 체제 구축은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앞서 IV, V장에서 알 수 있듯이 타 지역은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해 평생학습권 보장, 근거리 평생학습 공간 확보 및 확대, 시민성 증진과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등 각 지역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시도들이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혁신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지역 평생교육 정책 실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 그러므로 타 지역 사례들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제주지역에서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도의 향상과 시민성 증진을 도모함은 매우 중요함. 이는 제주지역 평생교육의 방향과 역할을 제고하고,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의 운영과 성과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임. 또 궁극적으로 도민의 평생교육 의식 및 인지도를 향상케 할 것임

가. 제주지역 평생교육 정책의 강점 개발 및 확산 노력 고려

- 2002년 2003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 2006년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제주 지역 전체가 평생학습도시 지역이 되었음. 도 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하던 평생교육 정책 업무가 2014년 도 본청 특별자치행정국에 평

생교육과로 신설되어 본격적인 평생교육 정책 실행에 힘이 실려졌음

- 타 광역시·도와 달리 두 개의 행정시로 구성된 행정체계에 따라 제주지역 평생교육 정책의 통합적 적용과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지니고 있음. 또 도 산하 출연기관인 진흥원이 있어 지역 내 전문적인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양 행정시의 평생학습관과 더불어 제주 전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 완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제주지역의 특성은 제주 도민 누구에게나 평생학습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평생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임. 그러므로 제주지역의 특성과 지역 여건 등에 따른 강점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제주에서의 성공 사례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전 지역사회에 보급·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나. 제주지역 내 마을 단위 교육지원사업 간의 연계·협력 활성화

- 제주지역은 특별자치도로서 국가로부터 광역시·도 단위의 다양한 정책지원과 예산 적용을 받고 있음. 특히 제주지역 전반에 걸쳐 국가균형발전을 비롯한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지원 등이 광역수준에 맞춰 지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제주도민의 1차적인 생활공간인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과 각종 교육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균형발전사업을 비롯한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기업육성, 마을자치활동지원,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 마을단위의 사업을 비롯하여 마을에 위치한 마을복지회관 지원사업,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마을단위의 정책 및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주민의 학습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성 증진을 위한 양질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모색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다.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 지원

- 2000년대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인 평생교육 정책이 시행된 이후 2007년 시·도지사에게

평생교육 정책 실현의 책무가 부여되면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된 만큼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음.

- 이는 타 시·도에서의 평생학습 공간 조성 및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도와 성공 사례를 통해 인지되는 사실임. 이러한 우수 사례에 대한 제주지역에서의 적용 방법 등을 확인하고, 지역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 진흥원-행정시-평생학습관-지역 기관·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 기회 마련이 필요함
- 제주 전 지역의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도- 진흥원-행정시-평생학습관-지역 기관·단체 간의 공통의 목표 설정과 방향성에 대한 상호간의 역할 인식이 우선 요구됨. 이를 기반으로 상호간의 협의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타 지역의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와 기관별 컨설팅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공유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라. 제주지역 공공 학습지원 체계마련 중심의 정책 강화

- 제주지역의 평생교육 기관 배치 현황을 통해 평생교육법령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이 그 밖의 다른 법령에 근거한 평생교육 기관에 비해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 제주시 동 지역 중심에 집중 배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제주 도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 자체가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제주지역에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배치를 확대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특히 읍·면지역의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따름
- 기존 공공 평생교육 기관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제주 전 지역에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요원한 과제가 될 것임. 우선 도 단위 평생교육 정책을 통해 제주지역의 기관 배치 특성을 고려하여, 읍면지역의 다양한 공공 시설 및 공간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위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체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원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2. 제주 평생학습 참여환경 조성 및 참여 기회 확대

가. 제주 평생학습 참여환경 조성

- 제주지역은 특별자치도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단일 조직 구성의 공공행정체계라 할 수 있지만, 실체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남과 산북이라는 지역 경계 구분과 함께 동·서로 나누어진 생활권 단위의 특성을 지님. 전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지리적,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참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 2002년, 2003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정책 시행에 중점을 둠. 양 행정시에서도 일부 특정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전 지역 대상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교두보 확보는 미진한 상황임. 더구나 제주시 중심 동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현황을 고려하면, 읍·면지역의 평생학습 참여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까지의 행정시 평생학습관에서 더 나아가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그리고 리 단위 마을 학습공간의 확보와 운영·지원 등을 공식화하는 정책 수립이 요구됨. 이를 도 단위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실행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으로써 제도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 제주시는 2017년 행복학습센터 공모사업 종료 이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여 ‘우리동네 학습나눔터’로 운영하고 있으나 확대 운영 없이 1개 거점 및 8개 운영에 그치고 있음. 서귀포시는 공모사업 진행 이후 후속 사업 없이 종료하였음.
- 도 단위에서 공공행정체계를 적용하여 행정시와 공동으로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선정·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단계별 전 지역 확대로 이어지는 중장기 사업을 도입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업의 실효성은 경기 부천시와 이천시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실제 두 지역은 주민자치센터를 학습센터화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였고, 조례에 근거를 두면서 지속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였음
- 더불어 공공 전문서비스 기관이자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복지관 등과 평생교육 중심의 연계망을 확립하여 도민에게 평생교육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인식 제고 노력이 요구됨. 이를 위해 도 지정 전문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별도 명칭의 부여를 통한 제주도만의 브랜드화를 시도할 수 있음

- 또한 2019년 기준으로 제주지역 생활권 단위에 배치되어 있는 410개의 마을복지회관과 444개의 경로당, 127개의 문고시설(새마을문고) 등의 유관 시설 등을 도민 평생학습 활용 공간으로 조성하는 접근 필요함. 타 시도에 비해 제주 전역에 기 배치되어 있는 다수의 주민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학습공간화 정책 및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이와 함께 타 시·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 시설 및 카페 등 다양한 공간을 가용 가능한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수 있음
- 종합하면 제주지역은 공공적 자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인프라 활용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평생학습 참여환경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지역에 활용 가능한 모든 공간을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 상시적 활용이 지속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제도화할 수 있음

나. 제주도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2018년 연속으로 제주지역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 중 가장 높은 요인이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이었고, 가까운 거리의 교육훈련기관의 부재와 더불어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부족이 전국 평균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2018년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정도는 전체 평균 66.2점으로 전국(64.7점) 대비 약 1.5점 높게 나타났음. 이는 대체로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는 어려우나, 평생학습에 참여한 도민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을 전문가FGI에서는 사시사철 육체노동을 통해 경제적 소득 창출이 가능하고, 농한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제주지역의 빈번한 경조사 문화가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외지에서 제주로 이주한 도민이 더 높은 학습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은 단순히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

로 해결되기 어려움. 제주지역은 하나의 섬이라는 단일 생활문화권으로 쉽게 인식되나 실제로는 마을마다 다른 역사와 생활방식, 언어, 풍습 등 매우 이질적인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그러므로 마을단위의 수요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방식의 적용이 우선 필요함

- 또한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정보와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실질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현재 온라인 평생교육정보망을 통해 평생교육 정보제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온라인 정보이용 접근성이 부족한 노인층과 교육취약계층은 이용 제한이 따르게 됨.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 공공행정망과 사회복지 연계망을 활용한 직접 평생교육 정보전달 서비스 체계 구축이 요구됨. 이와 더불어 리 단위 마을회와 연계하여 마을단위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정보를 직접 찾아가는 정보 제공 서비스로 의 확대가 요구됨
- 지금까지의 제주 평생교육 지원체계는 도 평생교육과, 행정시 평생교육 담당, 도 진흥원, 행정시 평생학습관 중심의 특정사업 예산 지원과 관계기관 및 관계자, 기존 학습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머물고 있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동참하여 조력하는 다양한 주체의 발굴과 육성 및 역할 부여, 그리고 기존 사업의 한계 분석을 통해 체계성의 확립과 다양하고 다층적인 접근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도민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게 하는 환경 제공, 주민 활동가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부여, 학습 결과의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개인 학습자를 넘어서 집단 학습으로서의 학습동아리 육성, 마을단위의 마을학습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수립,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어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과 마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주민자원활동가의 양성, 담당자에 대한 학습자의 특성 이해와 프로그램 기획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체제 마련, 지역(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 컨설팅 지원 등이 요구됨
- 궁극적으로 도민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 범위인 마을이 삶의 중심 공간이자 일터인 동시에 학습의 현장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됨. 이는 곧 제주지역 전체의 성장과 발전으로 집약되어 나타나는 것임. 그러므로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

대는 지역(마을)의 자생력 촉진 노력에 집중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 대상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요 맞춤형에서 시작해 사회적 요구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확대되어야함

3. 시민성 증진을 위한 시민참여교육의 활성화

- 우리나라 평생교육이 추구해온 교육적 가치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평생교육의 제도화, 평생학습의 생활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 ‘사회운동’ 참여 과정과 결과로 나타나는 평생학습, ‘학습의 일상성’을 구현하는 평생학습임. 그 중심은 평생교육의 제도화와 평생학습의 생활화 정책이며, 2018년 42.8%라는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에 도달하였음.
-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나 성인들의 시민교육 참여는 여전히 낮은 상태임. 더구나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상당부분은 개개인의 교양이나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직업능력교육으로 학습활동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문화 교류와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는 미흡했음
- 우리사회가 당면한 삶의 문제 해결과 모든 사람에게 고른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성숙한 시민성을 함양하여 포용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주체로 역할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증진하는 것임
- 그러므로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양적 확대를 위한 공급도 중요하지만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도 중요함.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은 학습자의 시민성 증진으로 이어지며, 이는 평생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증진하는 공익적 접근이기도 함
- 이러한 시민성 증진은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적 활용역량을 기르는 시민참여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음. 시민참여교육은 현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 영역임. 시민참여교육은 시민 책무성 프로그램, 시민리더역량 프로그램,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시민책무성 프로그램은 지역이해 및 정책이해교육, 주민자치교육, 주민참여예산교육 등을 말하며, 시민리더역량 프로그램은 지역리더양성과정, 주민자치지도자, 지역의 역사·문화해설사 등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

을 개발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 활동의 참여, 마을사업 등 공익적 사업에의 집단적 참여를 촉진하는 실천 활동 등을 말함

-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사회적 변화는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소속감을 약화시켜 공동체 형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는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짐.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우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1 단계는 주민의 학습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간과 기회 제공, 2 단계는 마을에서의 평생교육 운영 체계의 안착과 주민 학습참여의 안정화 단계, 3 단계는 마을 주민의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사회적 요구 및 자치역량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화, 4 단계는 주민의 조직화와 주민의 학습 주체화를 통한 공동체 형성임
- 종합하면, 시민참여교육의 활성화는 공공적 지원체제로 마련되어야함. 도-진흥원-행정시-평생학습관-읍·면·동(주민자치센터)-마을회(마을복지회관)로 이어지는 공공 행정 및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공공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평생교육 기관의 참여와 기여를 이끌어 내는 촉진 노력이 지속될 때 마을 중심의 내발적 성장이 가능함

4. 마을평생교육지원 체제 형성과 민·관·학 거버넌스의 활성화

- 마을단위 평생교육의 활성화는 앞서 III장에서 살펴 본 광역단위 서울시의 동네배움터와 경기도의 우리동네 학습공간 사례와 기초단위 경기 이천시와 부천시의 사례에서와 같이 시·군·구 기초단체의 계획 실행과 광역단위 진흥원의 기획과 운영 지원·관리, 그리고 주민자치와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성공적 요인이었음
- 궁극적으로 제주지역의 마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체제적 접근이 요청됨. 이는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수렴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전담 평생교육사(자원 활동가)의 배치가 우선되어야 함. 그리고 부천시 사례와 같이 년 단위로 센터 수의 확대를 통해 전 지역 동단위를 대상으로 확산·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 이와 함께 평생학습센터인 ‘학습반

디'운영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운영방식과 특성을 공유하고, 담당 평생교육사(자원활동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와 연수·컨설팅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더불어 지역 및 학습공간의 특성과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학습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문화예술 및 취미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주민주도 학습공간 관리 및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해야 함. 이러한 과정이 주민 주도 학습공동체 활동을 조직화하고 지원하는 지름길임
- 마을단위 평생학습체제 형성은 하나의 평생학습센터의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임. 평생학습센터의 단독 활동 범위에 그친다면 또 다른 관 주도의 행정서비스 사례로 남게 됨. 지역에는 이미 다른 법령에 근거한 다양한 평생교육 관계기관이 다수 배치되어 있음. 자칫하면 마을 평생학습센터가 민간 평생교육기관과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소모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음. 또한 민간 평생교육기관이 활동과 경험을 통해 쌓아 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능력과 콘텐츠도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자산이기도 함.
- 그러므로 마을단위 유휴공간의 활용 차원에서 민간이 소유한 공간을 주민의 공동 학습공간화하여 주민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공공 예산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우리 제주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 마을 곳곳에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카페가 들어서 있음. 마을에 있는 카페가 단순히 관광자원으로만 그치지 않고 마을 주민의 학습공간으로 제공됨으로써 교육자원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간의 교류 협력의 장이 되어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풀뿌리 평생학습 공동체 육성은 정책적 의지와 예산 투입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님. 누가 추동할 것이며, 어떠한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될 것인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요인이 작동하는 것임. 또한 지역사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평생교육 강사와 평생교육 기관·단체, 그리고 마을의 공교육기관인 학교를 비롯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유관사업의 연계체제 구축, 더 나아가 이들을 연계하고 융합하는 플랫폼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이로써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어 모두가 안전한 동네, 함께 더불어 성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삶의 질이 높은 마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Ⅶ. 결 론

-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

VII.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평생학습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하여 도내·외 평생교육 참여 환경 조성 현황과 시민성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분석을 통해 제주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인식 확대방안을 모색하였음.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평생교육 도민 의식 및 인지도 향상 방안으로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 환경 조성 및 참여 기회 확대, 더불어 시민참여교육의 활성화, 마을평생교육지원 체제 형성 등에 관한 방안을 제안하였음. 연구목적 실현하기 위해 각 장별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I 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의 급속한 사회변화 등에 따른 지역 평생교육체제의 혁신과 재구조화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평생학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인하고, 연구의 목적과 내용,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음
- II 장에서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제주지역 평생교육의 의미와 제주 평생교육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평생교육 인프라 및 도민 참여 실태를 분석하였음. 도 단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의 수행과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제주지역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 참여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도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시간부족, 교육기관 부재, 가족부양시간 등이 전국 평균대비 높게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한편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정도는 전국 평균 대비 약 1.5점 높게 나타남으로써 평생학습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이 재확인하였음
- III 장에서는 시민성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 실현, 도민의 글로컬 시민성 함양과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이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음.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평생교육이 지닌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자 하였는데, 사회통합이 절실한 한국의 사회 현실에 비추어 다섯 가지 유형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였음. 첫째는 학습 사상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의 제도화’ 추진, 둘째는 기술격차의 해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의 생활화’ 추진, 셋째는 지구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추진, 넷째는 ‘사회운동’ 참여과정과 결과로 나타나는 평생학습, 다섯째는 ‘학습의 일상성’을 구현하는 평생학습 등 다섯 가지 맥락이 실제 국가의 평생학습 정책이나 민간의 평생학습 실천 등에서는 혼재되어 진행되고 있음.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평생교육의 공공성은 모든 사람의 학습권 보장, 민주적 성숙에 필요한 시민성 함양으로 도출됨. 제주 도민의 글로컬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학습자와 강사 및 평생교육 전문가,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지역 기반 조직들의 네트워크, 학습문화 형성의 장애요인을 동시에 해소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FGI를 통해 검토함.

- IV장에서는 평생학습권 보장 및 시민성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하였음.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권 보장 사례로 서울시 동네배움터,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부천시 학습 반디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음. 이어 근거리 평생학습 공간 확보 및 확대에 대해 경기도의 우리동네 학습공간, 부천시 퇴근학습길, 안산시 길거리학습관, 고양시 평생학습카페 사례를 검토하였음. 또 시민성 증진과 시민참여교육 활성화는 광명시 ‘공공성 함양 프로젝트’, 성남시 ‘찾아가는 공의성 시민교육’, 은평구 ‘은평시민대학’, 수원시 ‘유투공’과 시민기획단 나침반 기획강좌, 부천시 ‘학습반디36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도봉구 ‘일상의 민주주의와 시민적 학습’ 사례를 검토하였음. 더불어 지자체와 대학 협업 사례로 서울시와 성공회대의 ‘협치와 시민’, 시민단체 참여연대 사례로 ‘누구나 쉽게! 나라예산 감시학교’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V장에서는 제주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인식 확대방안을 전문가FGI를 통해 분석하였음. 전문가 심층면담은 제주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인식 확대 방안, 제주 평생학습 인지도 향상 과제 도출, 도민의 시민성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글로컬 시민의 주체적 삶을 실천하는 시민참여교육을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하였음.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시민참여교육의 유형을 확인하고, 마을주민의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시한 방안은 첫째, 걸어서 갈 수 있는 학습공간 확보, 둘째, 학습자가 편리한 시간에 교육 프로그램 제공, 셋째, 마을주민은

학습활동에 집중하고 예산 집행은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임. 이어 마을 기반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전략은 첫째, 마을 주민을 시민참여교육의 주체로 세우기, 둘째, 마을 역사·현안 과제·학습동아리 활동 등을 시민참여교육의 내용으로 삼기, 셋째, 일반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공공적 성격 담아내기, 넷째, 시민참여교육 방법 및 평가의 개선, 다섯째, 평생교육 사업 운영 방식의 내실화, 여섯째, 시민성 교육 지도자(코디네이터) 양성, 일곱째, 시민참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제시되었음

- VI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평생교육 도민의식 및 인지도 향상 방안으로 제주지역 평생교육 정책의 강점 개발 및 확산노력, 제주지역 마을단위 교육지원 사업 연계·협력 활성화,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 지원, 제주지역 공공 학습지원체계 등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이를 토대로 제주 평생학습 참여 환경 조성 및 참여 기회 확대와 시민성 증진을 위한 시민참여교육의 활성화, 마을평생교육지원 체제 형성, 민·관·학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이러한 방안들은 앞으로 제주지역 평생교육 정책 실행의 성과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시민성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운영 및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VII장에서는 I ~ VI장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향후 제주평생교육 도민 의식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제주 평생학습 참여환경 조성 및 참여기회 확대 등 제주 평생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2. 정책적 시사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의 급속한 사회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평생학습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있음. 이에 따라 지역평생교육체제의 혁신과 재구조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음. 우리 제주지역은 2002년 제주시가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이후 학교와 민간단체, 기관 중심의 평생교육을 넘어선 공공 정책으로 평생교육 진흥 사업이 20년에 걸쳐 지속되어 왔음. 이는 매년 도 단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수행과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반면에 제주지역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참여율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으로 시간 부족, 교육기관 부재, 가족부양시간 등이 전국 평균대비 높게 나타남. 반면에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확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무엇보다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환경 조성을 통한 참여 기회의 확대로 도민의 시민성을 함양하고, 이에 따른 성숙한 시민사회의 구현은 제주지역 평생교육 정책 실행의 성과를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일임

-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지역에서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도의 향상과 평생교육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성 증진을 할 수 있도록 향후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의 운영과 효과적인 성과관리 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무엇보다 평생교육 정책의 성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도 평생교육과(진흥원)-행정시(평생학습관)-읍면동(주민자치센터)-리(마을회)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전달체계의 확립과 연계·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제주지역에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이 배치되어 있으나 공공 평생학습 지원체계의 구축과 중심적 역할이 우선되어야 함. 그리고 제주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일련의 평생교육 기관·단체와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연결망으로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도 평생교육과(진흥원)-행정시(평생학습관)-읍면동(주민자치센터)-리(마을회)간의 역할 정립과 상호 간의 협력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함. 이를 위해서 제주도 단위 평가 지표의 설정과 연차별 평가체계의 마련, 상호 성장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우수 사례의 공유 기회 제공, 성과를 인정하여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제주도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도서관·박물관 등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지역복지관의 주민교육사업, 그리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어 근래 확대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이미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할 것임. 도민에게는 어느 사업의 일환이든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는 과정으로 인식됨. 지역에서 전개되는 도민대상 교육의 현황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재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도민의 실질적인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사업 간의 상호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제주 지역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이는 도민이 평생학습 참여과정에서 소비자 역할에 그치지 않고, 주체자로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필수조건임
- 셋째, 제주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공공 지원체계와 접근 방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

함. 현실적으로 도 재정 환경에 따라 충분한 평생교육 예산 투입 자체가 불가능한 여건임을 고려하여 최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함. 무엇보다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고, 개별 사업단위 지원보다 지역단위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이로써 제주 전 지역에 걸친 학습 환경 조성에 대한 도 단위 평생교육 정책 수립을 통해 읍·면지역의 다양한 공공시설 및 공간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위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체적 운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넷째, 평생교육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제주 평생교육 진흥의 목적과 방향성의 재정립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곧 개인의 성장과 역량 개발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식되고 있음. 자칫하면 평생학습 참여 환경 조성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도 개인적 성장에의 기여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양적 확대를 강조하는 사회적 배경이 되기도 함. 궁극적으로 공공 평생교육 정책의 수립과 지원체계를 마련함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익적 접근임이 우선 강조되어야 함. 이와 같이 평생교육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성 증진은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적 활용역량을 기르는 시민참여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도달할 수 있음. 이는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접근으로, 조직적이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전문적 지원 체계의 마련과 마을 중심의 내발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고려해야함
- 마지막으로 누구나 평생학습의 참여가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 이를 위한 참여 환경 조성 및 참여 기회 확대의 필요성은 정책적 구호에 머물 수 없는 현실적 과제가 분명함. 그러므로 공공의 책무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관계기관과 학습자인 주민의 참여를 강화해야함. 보다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하여 공동의 노력을 펼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과정을 보장해야함. 더불어 주민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풀뿌리 평생학습 공동체 육성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6).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수립연구**. 경기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고태호(2019). **제주 인구 유출입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제주: 제주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2007).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8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권진욱(2018). 민주시민교육의 최근 흐름과 발전방향. KDR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32호.
- 김민호(2011).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개념적 조건. **평생교육학연구**. 17(3), 193-221.
- 김민호(2015). ‘학습의 일상성’ 구현: 장애요인과 기본원칙. **평생학습사회**. 11(1), 1-26.
- 김신일(2005). 학습권론 형성과 전개. 김신일, 박부권(편저). **학습사회의 교육학**(pp.13-37). 서울: 학지사.
- 김종서 외(1982). 한국에서의 평생교육 체제 정립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pp.1-175). 남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종철(1981). **프란츠 파농 연구**. 서울: 한마당.
- 김종철(2019). ‘겁났으나, 그들 풍찬노숙하는데 연락 끊을 순 없었다.’ 한겨레신문 2019.9.21.
- 김종철(2019). ‘송영순, 독재정권의 발목을 잡아채다’ 한겨레신문 2019.9.21.
- 박수진(2016). ‘성주군민 150여명, 416광정 찾아 ‘세월호 서명’ 한겨레신문 2016.7.24
- 부천시(2018). **2018 학습반디 운영 가이드북**. 부천: 부천시평생학습센터.
- 살구나무(2018). 로칼리티 담론. <https://blog.naver.com/dalsan21/221422826621>에서 2019.09.15 인출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2017). **서울형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운영모델개발연구**. 서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설규주(2000).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시민교육**.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안미정(2017). 벗이 있어야 물질한다: 제주해녀(잠녀) 문화의 보편적 가치. 국립무형유산원(편).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기념 국립무형유산원 특별전). 전

- 주: 국립무형유산원, 120-133.
- 이홍우(1991). **교육의 목적과 난점**(제5판). 서울: 교육과학사.
- 한승희(2003). **평생교육론: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서울: 학지사.
- 허진무(2019). ‘학교 결석하고 광화문 모인 청소년들 “기후위기, 지구 미래 없어요.’ 경향신문 2019.9.27.
- Collins, M. (1995). Critical commentaries on the role of the adult educator: From self-directed learning to postmodernist sensibilities. In M. Welton (Ed.), *In defence of the lifeworld* (pp. 71-98).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Durkheim, E.(2019). 뒤르켐: 교육과 사회학 (이종각 옮김). 서울: 배영사. (원저 1922년 출간)
- English, L. M. & Mayo, P.(2012). adult education and citizenship: A contested terrain. In L. M. English & P. Mayo(eds.). *Learning with adults: A critical pedagogical introduction* (pp.37-41). Rotterdam: Sense.
- Faure, et.al.(1972). *Learning to be: 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UNESCO.
- Habermas, J.(2006). **의사소통이론 2: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을 위하여** (장춘익 옮김). 서울: 나남 (원저 1981년 출간).
- Illich, I.(2009). **학교 없는 사회**(박홍규 역). 서울: 생각나무 (원저 1971년 출간).
- Jeffs, T. & Smith, M. K.(1997). What is informal education? *The encyclopedia of informal education*. <http://infed.org/mobi/what-is-informal-education> 에서 인출
- Kilgore, D. W.(1999). Understanding learning in social movements: A theory of collective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8(3), 191-202
- Kim, M. H.(2015). A Spiritual Transition from ‘Rentership’ to ‘Stewardship’: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Staff Development at a Worker Center in L.A.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1(2), 339-372.
- kjee@yna.co.kr(2019).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툰베리 ‘대안 노벨상’ 수상. 연합뉴스 2019.9.25.
- Mezirow, J. (1996). Contemporay paradigms of learning. *Adult Education Quarterly*, 46(3), 158-173 (1996).

Norberg-Hodge, H.(2007).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양희승 옮김). 서울: 중앙 books (원저는 1992년 출간).

Palmer, P. J.(2012).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김찬호 옮김). 파주: 글항아리 (원저는 2011년 출간).

Save Jeju Now(2019). GangJeong Village Story. <http://savejejunow.org> 에서 인출

UN(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s> 에서 인출

UN(2018). *World Migration Report 201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rkill2&logNo=22161467743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vw7&logNo=221581602645>

http://cafe.daum.net/_emergency.html?q=%25ED%2598%2591%25EB%258F%2599%25EC%25A1%25B0%25ED%2595%25A9%25EA%25B3%25BC%2520%25EB%25B3%25B4%25EB%2593%259C%25EA%25B2%258C%25EC%259E%2584

평생교육 전문가 집단면담 (F.G.I.) (2019.10.29.; 10.31; 11.4)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Jeju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제주평생교육 도민 의식 및 인지도 향상 방안 연구

발행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전략기획부)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4층
Tel) 064-726-9850 Fax) 064-726-9848
Home Page : www.jiles.or.kr
제 작 온누리디앤피(064-722-0086)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복제나 복제는 금합니다.

ISBN 978-89-94495-64-4

〈비매품〉